



和合과 團結로

세계의 各國들은 自國의 利害得失의 모든 問題들로 主張과 反論이 끊임없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올림픽이란 스포츠의 大祭典은 人種, 理念, 宗教, 言語 등을 초월하여 全世界人이 한 곳으로 모이는 地球村의 最大의 스포츠 祭典이며, 平和의 大廣場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미국 L.A에서 開催한 올림픽 대회에 소련을 위시한 東歐圈의 不參한 불미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140여개국이 참가하여 성공리에 마쳤고,

우리 健兒들은 올림픽 參加 史上 最高의 凱歌를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유도, 레슬링, 복싱 등 우리 태권도 와 같은 關枝 種目的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84 LA올림픽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분전한 우리의 선수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포츠인들은 올림픽을 참가하고 구경하는 客人의 立場에서 보아왔습니다만, 앞으로 四年 뒤에 거행될 '88 서울 올림픽은 客人이 아닌 主人으로서의 役割을 하여야 합니다.

세계의 스포츠인들을 우리의 서울에 불러서 우리 손으로 大祭典을 치루어야 하며, 그보다 앞선 二年 후에는 '86 아시안 게임도 치루어야 할 莫重한 責任이 있습니다.

올림픽 대회를 盛大하게 잘 치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88 서울 올림픽에서는 '84 LA 올림픽 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려 국위를 세계 만방에 선양하는 것은 더 큰 課題의 하나 입니다.

소련 및 동구권의 LA올림픽 불참이 우리 건아들의 메달 획득에 客觀的으로 도움을 주었음을 우리 스포츠인은 認知하고, '88 서울 올림픽에서는 客觀的인 國民들의 憂慮를 排除시키기 위하여 培前的 努力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권도는 '88 서울 올림픽의 심장인 「메인스타디움」 개장식에 사마란치 IOC위원장 및 국제 스포츠 인사와 유명 선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1,000여명이 태권도 「마스게임」을 펼치며, 태권도 우수선수에게는 올림픽 경기 종목과 같이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을 지급키로 확정되었으며, 국기원에서는 1982년 1월부터 국내 심사비의 5%씩 태권도인 복지기금으로

올림픽에 對備하자!

대한태권도협회
회 장 김운용

적립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메카」인 국기원 아카데미 교육원에서는 각종경기를 대비하여 국가검정 자격 교육을 시키는 분원을 설치 2급경기 지도자 107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제반 여건에 힘 입어서,

우리의 國技인 태권도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86 아시안 게임에서 당당하게 祖國의 명예를 드높일 것이고, '88 서울 올림픽을 향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국내 350萬 태권도 가족과 세계 109개국의 태권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 올림픽이란 高地를 向하여 和合하고 團結하여 그 힘으로 前進하고 또 前進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發展을 위한 和合과 團結이라는 側面에서 우리 주변에 障礙요인은 없는지 살펴 보십시오.

첫째, 舊態依然한 要素는 없는지?

둘째, 一身의 榮達과 安逸은 피하고, 公과 私를 確實히 區分하여 業務를 遂行하고 있는지?

셋째, 個人의 名譽와 立身揚名을 위해 大義를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넷째, 指導者로서 跆拳道人의 共同利益을 위해 얼마나 奉仕하고 있는지?

모든 不平不滿과 障礙요인은 이러한 것에서 싹이 트는 것임을 銘心하여 냉철히 判斷하고 行動하여야 하겠으며,

만약 조금이라도 不滿要素가 있다면 다같이 努力하여 改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歷史는 人間이 만드는 것이며, 人間은 가더라도 歷史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後日, 우리 世代以後 태권도 歷史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꾸며 놓았음을 後代人들이 評價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씨알」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되면 계속 「한 알」의 「씨」로 남지만, 땅 속에 묻히어 껍질이 벗겨지는 아픔이 지나면, 많은 「씨알」을 탄생시키거나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目前해 둔 發展의 岐路에서 和合과 團結로 第二의 跳躍을 爲하여 精進합니다.

감사 합니다.

특 별 기 고

島山 과 白凡



宋 建 鎬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 ☆언론인
- ☆ 서울大 法大卒
- ☆ 한국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 논설위원
- ☆ 경향신문 동아일보 편집국장 역임

島山과 白凡은 허다한 抗日 민족운동가 중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 가령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사사로운 개인의 명예욕이 없어 자리다툼 같은 말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점, 또 남달리 정직하고 성실했다는 점, 그리고 숨을 거둘 그때까지 일제와 추호의 타협도 없었다는 점 등은 두 사람에게 비슷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점도 없지 않았다. 가령 島山은 務實 力行을 주장하여 민족 교육을 창조하고 먼저 교육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겠다고 주장하여 교육에 힘썼으나, 白凡은 원수 日本에 대한 투쟁의 한 수단으로 테러도 서슴치 않았다는 점이 달랐다.

島山은 20세 되던 해(1897) 평양의 快哉亭에서 시민들을 앞에 놓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抗日운동을 위한 민중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대열변을 통해 20세 전후에 벌써 그 지방에서 지도자로서 이름이 높아 抗日鬭爭을 하면서도 그 鬭爭이 어디까지나 교육을 통한 민족운동에 치중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白凡은 21세의 나이에 국모를 살해한 혐의를 보인, 변장 日軍 장교 土田禎亮(쓰찌다)를 살해함으로써 민족의 원수를 테러로서 보복하려 했다는 점 등이 달랐다.

島山은 어디까지나 開化된 민중지도자였으며, 白凡은 전통적인 愛國志士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島山과 白凡은 다같이 亡國을 앞둔 구한말 이 땅에 태어나 평생을 抗日운동에 바쳤다. 島山은 일제에 잡혀 미처 光復을 못보고 1938년 恨을 품은 채 敵治下에서 생을 마쳤고, 白凡은 다행히 광복을 맞고 고국에 돌아왔으나 이 승만의 추종자들의 손에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못한 채 살해되었다. 이 두 사람의 나이는 白凡이 島山보다 2살 위였으나 민족운동가로서는 거의 같이 활동했다.

어떤 사람들은 島山이 8·15를 못보고 적의 손에 숨을 거둔 것을 애석히 여긴 나머지 만약 8·15까지 島山이 살아 남아 있었다면, 혹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가슴 아파하는 이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島山도 白凡이나 夢陽과 같이 霧南 추종자의 손에 무엇인가 번을 당하고야 말았을 것이라고 개탄하는 사람도 있다. 하여간 島山이 만약 살아 남아 있었다면 8·15 때 그중 나이 67세였으므로 그가 80세까지 장수했다고 가정할 때 58년까지 생존할 수 있었겠고 민족의 운명도 아마 크게 달라졌을 지도 모른다고 아쉬워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러한 가정이 모두 보잘 것 없는 일이기는 하나 오늘의 민족 운명이 하도 한심하니까 이런 공상도 해보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도산은 白凡보다 훨씬 일찍 이름을 날렸다. 그가 1899년 서울의 萬民共同會에서 활동할 때 도산의 웅변은 이미 서울 장안에 이름이 높았다. 그는 수구시



대 정부에 의해 '만민공동회'가 일대 탄압을 받아 1900년대 초에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그러나 도산이 귀국한 것은 한일 협약(1905년)의 소위 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국권을 빼앗겨 나라가 亡한 뒤였다. 이 무렵 도산은 아마 1907년 쯤 되었을까 이제 겨우 30세가 된 그는 당시 통감으로 서울에 부임해 와 있던 이등박문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서울 장안에서 당시 이름이 높았던 도산을 회유해 볼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미 70세에 가까운 노화한 이들은 이 때 온갖 감언이설로 도산을 회유하려 했으나 도산은 '오늘의 일본을 일본 청년들이 건설하였듯이 오늘의 한국의 발전은 한국인에게 맡겨져야 할 것이다'라고 응수하여 이등으로 하여금 도산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감탄케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무렵 백범은 국모 살해범으로 한 때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탈옥하여 전전피신하다 고향에 돌아가 사립 학교를 세워 후진 양성을 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도산과 백범이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신민회」 운동때 부터가 아니었던가 한다. 그러나 이 신민회 운동 때 도산과 백범이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뚜렷한 기록이 없다. 두 사람이 직접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919년 상해의 망명 정부때 부터가 아니었던가 한다.

상해 망명 정부에서 만난 두 사람은 그들의 사립됨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3·1 운동 후 상해에 모여든 수많은 지식들은 망명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이 승만을 수반으로 추대했다. 신 채호동 일부에서 한국을 미국의 위임 통치로 할 것을 주장한 장본인이라 하여 반대하는 주장도 했으나 하여간 미국의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독립운동 경력도 같다 하여 이 승만 추대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 승만은 수반으로 선출되고서도 미국에 머물러 있었고 생활이 불편한 상해에 오래하지 않아 임시 정부의 기능도 정상을 찾지 못했다.

상해 임시정부는 거의 도산의 힘으로 체면을 유지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1919년 5월 상해에 도착후 즉시 미국에 연락하여 「대한민국민회」로 부터 2만 5천불을 마련하여 이 돈으로 프랑스 조계에 빌딩을 세내어 임시 정부 청사를 마련하고 우선 사무의 기틀을 잡아 놓았다.

도산이 구상하고 실시한 운동 중에 聯通制가 있다. 약 반년만에 이미 10개도에 조직을 완료했다. 이 조직이 군에까지 미친 곳은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기도, 충북 등 7개도에 달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상해에 온 도산은 내무총리 겸 국무총리 대리에 취임했다.

島山과 白凡은 비슷한 점이 많았다.

「사사로운 개인의 명예욕이 없어 자리다툼이 없었고」

이것은 각 지방에서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들면 그 자리를 내놓는다는 조건하에 받아들인 것이었다. 도산은 임시정부 안에서 요직을 전혀 바라지 않았다. 각료 명단에 끼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의 나머지 임정을 떠나가는 판에 도산은 '자리' 같은 것은 거의 안중에 없었다. 그는 각지에서 영수(領袖)들이 속속 모여들자 내무총장 자리도 내놓고 스스로 물러났다.

이무렵 상해에 도착한 백범은 그의 평소 소원대로 정부 청사의 수위가 될 것을 자처한다. 그는 일찌기 서울에서 감옥 청사 유리를 닦으면서 만약 내 나라가 선다면 정부청사의 수위가 되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한 바 있어 임시정부의 수위가 되겠다고 자처한 것이었다.

서로 다투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판에 백범의 이 진정은 특히 도산을 감동시켰다. 당시 내무총장이던 도산은 40이 훨씬 넘는 白凡을 어떻게 수위를 시키겠느냐며 그를 임정을 지키는 경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아무런 사실없이 오로지 민족의 독립만을 생각한 순수한 점에서 도산과 백범은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내부 사정은 복잡하기 그지 없었다. 당면한 항일투쟁보다도 자리다툼, 지연대립 등으로 임정은 사실상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견디다 못한 도산은 1921년 5월 임정을 떠났다. 끝없는 파쟁에 도산과 같은 담백한 사람은 배겨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도산과 백범은 한 자리에서 같이 말 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나를 보여주는 몇가지 일화가 있다.

1932년 4월 29일 윤 봉길씨 흉구 공원에서 일본 군에 폭탄을 던져 白川대장을 비롯해 많은 일본인들이 사살된 사건이 있었다. 이 날은 바로 일본 천황의 생일이라 상해에서 일대 축전을 거행하였는데 이 기회를 노린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일본군은 조선인 독립 운동가들의 총 검거령을 내리고 사정없이 가택수색을 하고 항일 운동가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었다.

이때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일제히 피신을 했다. 그런데 도산은 이보다 며칠 전 어느 동포의 집 어린이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일이 있어 모든 항일운동가들이 피신했는데 유독 도산만은 어린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집에 들렀다가 잠복한 일경에 체포되고 만 것이다.

어린이와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도산은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결국 도산으로 하여금 1938년 60세를 마지막으로 숨지게 만든 원인이 되었으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도산의 면목이 여기에 나타난다.

경우는 다르나 백범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자서전 「백범일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백범일지 속에는 이런 글이 있다.

“...나는 애당초 임시정부의 문 파수를 지원하였던 것이 경무국장으로서 노동국총판으로서 내무총장으로서 오를대를 다 올라가 다시 국무위원이 되고 주석이 되었다. 이것은 문 파수의 자격이던 내가 진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白凡이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나를 발견하게 된다.

누구나 자기를 과대 평가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대 선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상례인데 김 구는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를 말하고 있다.

白凡은 자기의 중국에서의 항일운동도 결코 과장하지 않았다. 자서전 속에서 그는

“...나는 임시정부 청사에서 자고 밥은 돈벌이 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적저적 돌아다니며 얻어 먹었다...이들의 집으로 다니며 아침, 저녁을 얻어 먹은 것이니 거지 중에도 상거지였다...”

김 구의 이같은 고백을 그의 자서전 속에서 읽으며 우리는 김 구가 중국에서 한 일이 별 것 없었고 알고기보다 오히려 그의 이같은 정직한 고백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케 된다. 어느 사람같으면 자기의 항일운동을 과장 미화시키려 드는 것이 보통일 터인데 白凡처럼 정직한 사람은 드물었다.

그런데 도산이 미국에서나 중국에서나 또는 고국에 접혀는 뒤에나 그가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 민족이 쇠망한 원인으로서는 ‘거짓을 내

「정직하고 성실하였고」「숨을 거둘 때까지 日帝와 추호도 타협이 없었다」는 점이다.

세웠다' 도산은 '거짓'과 그로 인한 '불신'이 정치,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국력을 약화시킨 원인이라고 보았다.

'아아, 거짓이며,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우나'라고 부르짖었고 언제나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쳤고 또 자기 자신 그것을 몸소 실천했다.

도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인들 가운데 권력에서 소외된 평민은 진실하게 살아왔으나 소위 지배층이라는 자들이 거짓과 공리공론에 물들어 국력을 쇠퇴시켰다고 개탄하였다.

거짓으로 쇠퇴한 민족의 처지를 다시 강화시키는 길은 성실한 행동 뿐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족을 건질 뜻이 있으면 그 방법을 멀리서 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짓(속임)을 버리고 각 개인의 가슴에 진실과 정직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산이 민족희망의 원인으로 든 또 하나의 요소는 실행이 없는 말과 주장들 즉 공리 공론이었다. 그는 이러한 '거짓'과 '공론'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의 운동을 강조하면서 그 정신운동의 내용으로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네가지 덕목을 들었다. 무실·역행의 뜻은 참되기를 힘쓰라는 것이다. 무실의 반대는 거짓과 허위요 역행의 반대는 공리공론이다. 언젠가 도산이 사랑하는 아들 필립을 몹시 매질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아들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돌아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정신에서 조직된 것이 홍사단이었다. 1913년 5월 1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된 홍사단의 회원은 '정직'해야 했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홍사단의 설립 목적은 건전한 인격과 단결을 위한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4대 정신이었다. 홍사단의 정신은 홍사단에 가입할 때 주고 받게 되어 있는 문답 속에 소상히 나타나 있다. 홍사단 운동은 비정치적 도덕 운동이었다. 민족 독립 운동가로서의 도산의 특징이 바로 이런 점에 있었다.

白凡의 민족운동은 도산과는 달랐다. 그 자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하였지만 도산처럼 그 운동을 윤리적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적에 대한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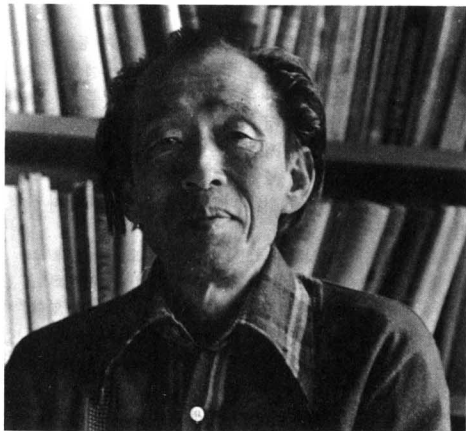
와 테러를 위주로 삼았다. 1932년 1월 이 봉창의 사의 일본 천황에 대한 폭탄투척, 같은 해 4월 29일의 윤 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폭탄사건은 모두 김구가 배후 조종한 것이었다. 이렇게 어떤 점에서는 서로 통하고 어떤 점에서는 대조를 보이기는 했으나 이 양인이 다같이 명에도 지위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타협 없는 투쟁을 한 점에서 도 공통점이 많았다.

8·15 후의 시점에서 볼 때 김 구와 도산은 만약 그들이 오래도록 살아 있었다면 그 개인적 영향력으로 해서 8·15 후의 정치풍토, 사회풍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 틀림없다. 민중은 지도자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만약 도산이 해방된 이 땅에서 지도로 등장했다면 우리나라 정치, 경제 풍토가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는 “대한민족을 건질 뜻이 있으면 그 방법을 멀리서 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짓(속임)을 버리고 각 개인의 가슴에 진실과 정직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8·15 후의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술수' '속임수' '사바사바' 속에 해를 거듭할수록 혼탁해 간 것은 이승만 한민당 등의 집권 연장을 위한 국민에 대한 거짓말에서 결정적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특히 60년대, 70년대에 들어와서도 거짓말이 정상처럼 만연되어 이 나라는 상, 하 할 것없이 거짓과 불신이 가득차게 되었다. 5·16의 '혁명공약'에서부터 3선 개헌, 그후 71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박정권은 거짓말을 떠먹듯 국민을 우롱하였고 국민도 이제 집권자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쏜대도 곧이듣지 않게 되어 오늘날 이나라는 거짓과 불신이 천지에 가득차게 되었으니 이런때 일수록 우리는 지도자로서 도산을 생각하게 되고 「정직」과 「성실」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거듭 갈망하게 된다. *



올림픽 화면

金 泰 吉 (哲學) 教授

서울대 文理大 哲學科 卒
美國「존스 홉킨스」大 修了
서울대 人文大 教授 (철학과장)
著者: 「倫理學」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새 人間像의 定礎」 「人間回復의 序章」 「뉴이의 社會哲學」 「검은마음 흰마음」 「웃는 갈대」 「빛이 그리는 생 각들」 外 多數

요즘을 국민의 관심은 제23회 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는 로스앤젤리스로 온통 쏠리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은 대중매체의 선전 효과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한국 선수들의 승리 소식을 고대하는 심정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역시 나라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한다. 국제 경기를 지켜보면서 우리 편을 응원할 때와 같은 단결이 평소에도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터인데 하는 생각이 스친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하여 바라본 경기장의 모습은 인생 그 자체의 축소와도 같다. 인생의 마당 그 자체가 본래 크나 큰 경기의 마당이 아니던가. 다만 인생의 마당이 몹시 어지럽고 구질구질한데 비하여, 경기의 마당은 대체로 질서가 정연하고 명랑하다. 인생의 마당은 음모와 거짓 그리고 미움으로 얼룩져 있

지만, 경기의 마당에서는 정정당당한 대결이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한다. 경기의 마당에도 불미스러운 사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마당에 비하면 깨끗한 편이다. 경기에 마당이 인생의 마당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당이 경기의 마당을 본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역(逆)으로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경기에는 심판에 불공정함이 있고, 약물 복용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승리의 원계관 값을 돈으로 따지는 것도 섭섭한 일이다.

스포츠에 정치의 입김이 들어가면 경기의 마당은 더욱 더 오염으로 얼룩진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스포츠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올림픽 대회의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은 아주 좋지 못한 선례를 보였거니와, 스포츠를 정치의 도구로 삼은 것은

양대 강국만의 특례(特例)가 아니다.

삶의 축소와도 같은 경기장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개인적 생활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를 느끼게 된다.

승자와 패자,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의 거동을 바라보면, 경기의 마당이 인생 공부의 도장 같기도 하여서 경기 그 자체를 떠나서도 이것 저것 느껴지는 바가 있다.

경기 마당에 있어서나 인생의 마당에 있어서나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승리의 영광을 안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승리자가 있는 곳에는 자연 패배자도 있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까닭에 모두가 웃을 수 없으며, 평생 동안 항상 승리자 노릇만 할 수도 없는 까닭에 언제나 웃고만 살 수도

「체력과 기술이 비슷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을 바라보며

인생 전체의 마당에서 마음의 여유
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패배자가 될
공산이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없다. 웃음과 울음이 교차하는 경기의 마당, 인생의 마당.

경기의 광경을 바라보며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순간을 지켜본다. 월등한 실력의 차이로 승패의 판가름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 힘과 기량이 백중하여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가려진다. 체력과 기량이 비슷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보다 강한 정신력을 발휘한 편에 결국 승리가 안겨진다. 체력과 기량 그 자체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장한 노력의 산물이며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만이 비장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기장의 승리는 필경 정신력의 승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경기장에서 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있어서도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마지막 승리가 되는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본인의 실력 하나만이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흔히 '운'이라고 불리우는 우연적 조건도 상당히 중요한 인자(因子)로서 작용한다. 준우승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대진운이 나빠서 초반에 탈락하는 예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연습 도중에 부상을 당하여 대결의 기회조차 잃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수가 많다. 기본 체력 또는 운동 신경을 잘 타고 나는 것도 역시 본인의 실력을 초월한 행운의 선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생 전체에 있어서도 '운' 또는 우연의 요인이 작용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운의 힘을 입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도 하고, 불운으로 말미암아 고전을 면치 못할 경우도 있다. 다만, 인간이 운 또는 우연 앞에 속수무책인 것은 아니며, 강한 의지의 힘으로 불운과 싸워서 이기는 사실도 있다. 그리고, 일평생을 통해서 행운만을 만나는 사람도 없

고 불운만이 연속되는 사람도 없다. 어쨌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훌륭한 인물로서 칭송한다.

경기의 화면을 바라보면 진 편이 이긴 편을 축하하고 이긴 편은 진 편을 위로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하나의 형식으로서 겉으로만 축하하는 시늉 또는 위로하는 시늉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별로 큰 뜻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축하와 위로의 표시라면, 그것은 경기의 내용이나 승리 그 자체보다도 더 멋있고 더 귀중한 인간 정신의 발휘라 할 것이다. 지고서 이긴 상대방에게 축하를 보내고 이기고서 진 상대방에게 위로를 보내는 마음의 여유. 이것은 금메달보다도 더 값지고 거액의 현금보다도 더 귀중한 인간 정신의 자량이다.

욕심과 시간에 쫓겨가며 분주하게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결핍한 것이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한다. 이렇게 글을 쓰는 나 자신도 남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 없이 각박하게 살아 가는 웅졸한 위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음의 여유가 아쉬워진다.

투혼이 비상하고 집념이 강하지 않고서는 낙오자가 되기 쉬운 세상이다. 남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는 느슨한 마음 가짐으로 입한다면 승리라는 것은 아예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운동 경기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인생 전체의 마당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패배자가 될 공산이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어린이를 씩씩하고 바르게 키우자



강 준 수

(신일특수철강 대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知識도 중요하지만 體力도 이에 상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는 뼈뿔어진 人生 을 견기 쉽다.

요즈음 어린이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機能面으로 볼 때 知力에는 예전에 비해 월등히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體力은 이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력의 신장으로 어린이들의 체위가 신장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곧 體力의 向上일 수는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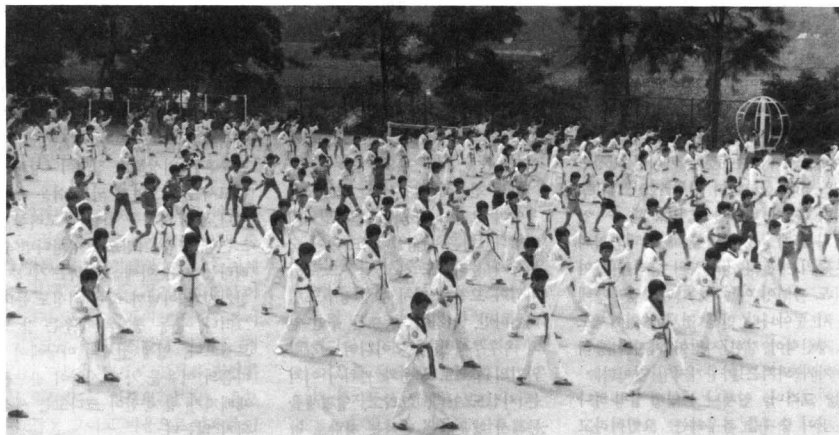
국민학교 조희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조금 길어지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다가 하면 복근(腹筋)이 약하여 차렷 자세를 제대로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으며, 어쩌다 넘어지는 경우에는 위험에 대처하는 순발력 및 반응감각의 둔화로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한다.

심한 경우이긴 하지만 부유층의 동네 유치원에는 보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까지 생기고 있다니 「과보호」란 낱말이 실감난다.

체력은 빨리 달리고 오래 달리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있을 수 있는 능력등, 물리적인 측면에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변화에 대처하는 적응능력, 고통을 이겨내는 정신력(극기심),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 등으로 거울을 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조그마한 일에도 좌절하여 자포자기하고, 단세포적으로 충동적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예 등져 버리는 경향들 「과보호」가 낳은





체력의 열세에서 오는 나약한 정신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영향은 현시대의 어른들이 불행시대를 지내오며, 못먹고 못입던 본인의 혈육인 자녀들을 「과잉보호」 함으로서 자신들의 과거를 보상하려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거니와 「과보호」가 선진국의 자녀를 키우는 정도(正道)라고 잘못 이해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진사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냉혹하다 할 정도로 극기교육을 시켜서 자립심을 키우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자는 새끼를 기를 때 높은 벼랑에서 떨어뜨린다 하며, 매(鳥)도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일부러 깃(巢)에서 떨어져 먹이가 땅으로 떨어지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이렇게 짐승도 곤경에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정신과 능력을 길러 주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과보호」 속에서 심약하게 키워서 되겠는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극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래 참으며 책과 같이하는 능력도 극기하는 능력이니 말이다.

최근 「心弱한 어린이들」이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원내의 폭력문제가 국민학교에까지 번지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조사 발표 통계에 의하면 2개월간에 1만2천건의 사건들을 학원 주변에서 단속하였다 한다.

밝고 밝은 서울 천지에서 하루 200여명의 자녀들이 돈을 빼앗겼거나 시계 만년필 등을 빼앗기고, 심지어 신고있는 신발까지도 빼앗겼다니——

매일 한 두명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꾀갯하게 생활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심약한 아이가 되지 않도록 자기 보호능력을 갖추도록 강한 어린이로 키워야 하겠으며

둘째,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고발정신이 철저하도록 하여 사고의 근원을 찾아야 하며

셋째, 계속적인 단속강화로 그릇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최근 극기교육 강하니 체육훈련이니 하여 방학을 이용한 캠프훈련,

야간 오리엔테이션 등의 체육활동 확대로 떠들썩하다. 그러나 극기심이나 체력은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속성 없는 방편 보다는 청소년들의 전 성장과정을 통하여 부모들의 끈기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학교나 단체의 공식교육도 필요하지만, 비형식적이긴 하나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통한 자기 발견으로 본인 스스로 할일을 찾도록 함이 중요하다.

이에 순수한 방법중의 하나가 스포츠를 통한 교육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나 기능이 누구나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기구 시설등에 다소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시작할 수 있다.

극기훈련은 스포츠를 통한 체력 훈련으로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아침 일찍 가족과 혹은 혼자서 일정한 「코스」를 정해 놓고 매일 달리를 한다거나 마당이나 방에서 윷몸 일으키기, 풋쉬업(엎드려 팔 굽히기), 제자리 달리기, 줄넘기 등을 생활화 한다든가, 아니면. 인접 체육관(태권도, 유도 등)을 찾아서, 체계있게 수련을 한다든가——어떠한 형태로든 운동을 계속하여 운동 정신의 생활화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서 심약한 어린이에서 탈피할 수 있음은 물론 건강 한 가정도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 모두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밝고 명랑한 어린이들로 키워, 그 어린이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보다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써 보자.

제19회

대통령하사기 쟁탈 전국



대통령기 5연패의 영광을 잠시 반환한 한국체대는 6연패의 영광을 안았다.

신록을 자랑하는 초여름.

19돌을 맞이하는 본 대회는 고등부 43개팀에 335명, 대학부 14개팀에 127명, 일반부 7개팀에 57명으로 총 519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여 6월 20일~23일까지 열린 4일간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대회사에서 김운용 대회장은 본 대회는 태권팀의 발전은 물론, 태권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뿐 아니라, 경기의 질적 수준 향상과 선수 개인인의 기량을 향상시키는데 훌륭한 촉매 역할을 하였다고 전제하고, 본대회를 알차고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계

승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 하였고 대회를 준비한 관계임원과 선수들을 육성, 출전시킨 학교와 지도자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서 태권도 육성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성동상업학교의 왕춘정교장께 감사패를 증정하여 공적을 치하하였다.

첫, 게임은 시온고등학교의 이철준(핀급)대 김정일(문산종합고등학교)의 대전으로 이철준의 승리로 서전(緒戰)을 장식하였다.

10체급중 6체급의 선수를 확보하면 어느 팀이든 참석이 가능해 선수들 기량의 차이가 심하다고할

까... 계체에 있어서도 고등부 133명 계체의 25%인 33명이 체중조절에 실패, 불합격 되었으며, 대학부는 14명 계체에 5명 불합격으로 계체 불합격이 35%나 되었다.

신인 선수들이 많이 참석하였다는 하나 평균 30%의 계체 실패는 조금은 심한 상황이다.

대전번호 50번의 웰터급 조삼식(배영고)대 신명훈(안흥전공고)의 경기에서 청코너 조삼식의 앞돌려차기가 신신수의 안면을 강타 1회 1분 30초에 첫 K.O 승을 거두었다.

6월 21일 목요일 맑음)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6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체대의 주역들

계체 152명중 35명의 불합격으로 23% 실격 특히 일반부 17명중 10명의 계체 실패는 그것의 수준을 대변하는듯 하였다.

대학부 38면 게임에서 장정휘(계명대) 선수가 이계필(송원전문대) 선수를 오른발 내려찍기로 얼굴을 강타 K.O승을, 고등부 182면 게임에서는 기량이 돋보이는 이선장(남대전고) 선수가 한정석(대원고) 선수를 1회 1분 38초만에 멋진 왼발 뒤돌아차기로 안면을 강타 장쾌한 K.O승을 거두었다.

이어 202면 게임에 김도경(풍생고) 선수가 K.O승을 거두는등 계

임에 열기를 더해갔다.

6월 22일(금요일 맑음)

3일째 접어든 경기는 백중세로 과열되어 갔다.

각 팀의 명예는 물론, 팀을 맡고 있는 코치의 명예(?) 때문이랄까...

261면게임, 고등부 플라이급 우창문(청주기공)대 이종현(성동고)의 대전에서 우선수의 판정승으로 판정이 내려지자, 성동고등학교 코치의 강한 어필로 10여분 경기가중 단되고, 소청을 하여 소청심의 결과 성동고의 이종현선수의 승리로 판정이 번복되었다.

이어 경복체고 등이 다소 소란하

였는데 이는 정확한 득점의 판단을 보는 사람 모두가 심판과 같게 보지 않는 관점의 차이는 물론, 코치석에서는 자기편 선수에게 치중한 편견도 있을수 있다 하겠다.

득점 부위에 강과 약의 차이가 시각, 청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5심제이긴 하나 심판 전원이 확인하지 못하는 코너의 공격등, 확실한 득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되었다.

일반부에서는 밴더급 윤준철(성동O.B)대 고대균(인천간석체)의 대전에서는 일방적인 윤선수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2회 45분에 기권하였다.

6월 23일(토요일 맑음)

팀의 우승이 확정되는 결승전이다.

일반부의 상무팀은 우승이 확실한 상태로 경기에 임하는 여유를 보였고, 대학부는 한국체대와 경희대, 조선대가, 고등부는 남대전고교와 동대문상고, 풍생고교등이 금메달을 놓고 우승을 노리는 각축전이었다.

우승이 확정되자 환희와 실의가 엇갈리며 열린 4일간의 경기가 막을 내리었다.

입상한 각 부별 종합전적과 지도상, 최우수선수상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로패를 받는 김용길 심민분과 우위원장

입 상 전 적

고등부 입상팀

- 1위, 남대전고등학교(금3)
 - 2위, 동대문상업고등학교(금1, 은1, 동3)
 - 3위, 풍생고등학교(금1, 은1, 동2)
- 감투상, 경북체육고등학교
장려상, 한성고등학교
지도상, 이계승(남대전고교)
최우수선수상, 이선장(남대전고3년)

대학부 입상팀

- 1위, 한국체육대학(금3, 은3, 동3)
 - 2위 경희대학교(금3, 은1, 동1)
 - 3위, 조선대학교(금2, 은2, 동3)
- 감투상, 유도대학
장려상, 부산동의대학
지도상, 장낙희교수(한국체대)
최우수선수상, 권용주(한국체대2년)

일반부입상팀

- 1위, 상무(국군체육지도대) (금6, 은3, 동1)
 - 2위, 성동O.B (금2, 은2, 동1)
 - 3위, 경천체육관(경북) (금1, 은2, 동2)
- 감투상, 부산동원체육관
장려상, 인천 간석체육관
지도상, 윤창욱코치(상무)
최우수선수상, 고훈수(상무)

참가선수 현황

체	급	고등부 43개팀	대학부 14개팀	일반부 7개팀	계 64개팀
퀸	급	40명	11명	5명	56명
플라이	급	42명	13명	5명	60명
밴	팀	42명	14명	7명	63명
케터	급	41명	12명	7명	60명
라이트	급	41명	13명	5명	59명
웰터	급	39명	14명	7명	60명
라이트미들	급	31명	12명	5명	48명
미들	급	22명	12명	5명	39명
라이트헤비	급	21명	13명	6명	40명
헤비	급	16명	13명	5명	34명
합	계	335명	127명	57명	519명

고등부 입상자

체 급	등위	성 명	학년	소 속
편 급	1	이선장	3	남대전고등학교
"	2	이종선	2	동대문상업고등학교
"	3	김상국	2	한성고등학교
"	3	함준	2	전북체육고등학교
플라이급	1	이종현	1	성동고등학교
"	2	조성철	3	성동상업고등학교
"	3	한명수	3	동대문상업고등학교
"	3	류철렬	3	전북체육고등학교
밴던급	1	김인호	3	남대전고등학교
"	2	박노식	3	경기풍성고등학교
"	3	김병철	2	광성고등학교
"	3	송용철	3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페더급	1	하계수	1	경북체육고등학교
"	2	임내락	1	전남체육고등학교
"	3	김도경	3	풍성고등학교
"	3	이용일	3	동대문상업고등학교
라이트급	1	박봉건	2	동성고등학교
"	2	배창호	3	부산체육고등학교
"	3	김경환	2	서울체육고등학교
"	3	이종학	2	경북체육고등학교

체 급	등위	성 명	학년	소 속
웰터급	1	박해영	3	인천체육고등학교
"	2	이섬주	3	시온고등학교
"	3	오연식	3	전남체육고등학교
"	3	오정수	3	풍성고등학교
L.미들급	1	박용웅	3	남대전고등학교
"	2	정용석	3	광성고등학교
"	3	배병태	3	성동상업고등학교
"	3	윤순철	2	서울체육고등학교
미들급	1	김진호	3	전남체육고등학교
"	2	김현곤	3	전북체육고등학교
"	3	박종일	2	동대문상업고등학교
"	3	이병찬	3	향도실업고등학교
L.헤비급	1	노신	3	동대문상업고등학교
"	2	조영호	3	경북체육고등학교
"	3	이승원	3	향도실업고등학교
"	3	남명희	2	남대전고등학교
헤비급	1	원종철	3	풍성고등학교
"	2	윤두종	3	삼천포고등학교
"	3	김광섭	3	동성고등학교
"	3	김동욱	1	서울체육고등학교



고등부 우승자



대학부 우승자

대학부 입상자

체급	등위	성명	학년	소속
핀급	1	최천	1	경희대학교
"	2	신재동	1	조선대학교
"	3	한성동	1	한국체육대학
"	3	우하성	2	대구보건전문대
플라이급	1	이정희	2	조선대학교
"	2	김준태	1	경희대학교
"	3	이해진	2	동아대학교
"	3	김태룡	2	대구보건전문대
밴던급	1	권기문	2	한국체육대학
"	2	김재호	3	동아대학교
"	3	이재규	2	동의대학교
"	3	김달수	1	조선대학교
페터급	1	장명삼	2	경희대학교
"	2	정우용	3	한국체육대학
"	3	강종길	3	유도대학
"	3	김대환	2	청주대학교
라이트급	1	김윤표	4	유도대학
"	2	이창건	1	한국체육대학
"	3	한재구	4	청주대학교
"	3	이차열	3	조선대학교

체급	등위	성명	학년	소속
웰터급	1	최공집	3	조선대학교
"	2	곽동수	4	경희대학교
"	3	이준명	2	한국체육대학
"	3	장익수	3	동아대학교
L미들급	1	최찬웅	4	유도대학
"	2	김정국	4	동아대학교
"	3	곽병호	3	조선대학교
"	3	김형대	3	명지대학교
미들급	1	박상식	2	한국체육대학
"	2	김양기	2	조선대학교
"	3	김진욱	1	계명대학교
"	3	이세도	1	명지대학교
L헤비급	1	이정진	2	경희대학교
"	2	이계행	2	조선대학교
"	3	장철환	3	한국체육대학
"	3	박한일	3	동아대학교
헤비급	1	권용주	2	한국체육대학
"	2	정지호	2	동의대학교
"	3	김병수	3	경희대학교
"	3	임재익	4	청주대학교

일반부 입상자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핀 급	1	정재균	상	무
"	2	배병관	경 천 체 육 관	관
"	3	윤명기	동 원 체 육 관	관
"	3	백승락	태 종 체 육 관	관
플라이급	1	김석찬	성 동 0 B	
"	2	박재성	상	무
"	3	김용기	간 석 체 육 관	관
"	3	김성환	동 원 체 육 관	관
밴 텀 급	1	윤준철	성 동 0 B	
"	2	홍종만	상	무
"	3	박용구	경 천 체 육 관	관
"	3	고대균	간 석 체 육 관	관
페 더 급	1	임관인	상	무
"	2	이근훈	태 종 체 육 관	관
"	3	박세광	간 석 체 육 관	관
"	3	윤기섭	성 동 0 B	
라이트급	1	고봉수	상	무
"	2	윤종필	동 원 체 육 관	관
"	3	김철완	간 석 체 육 관	관
"	3	최환근	강 성 체 육 관	관

체 급	등위	성 명	소	속
웰 터 급	1	김창규	동 원 체 육 관	관
"	2	김형중	상	무
"	3	장태영	경 천 체 육 관	관
"	3	전일병	태 종 체 육 관	관
L 미들급	1	오일남	경 천 체 육 관	관
"	2	박영수	강 성 체 육 관	관
"	3	김종관	동 원 체 육 관	관
"	3	이강일	상	무
미 들 급	1	이중균	상	무
"	2	이기수	경 천 체 육 관	관
"	3	윤형근	강 성 체 육 관	관
"	3	김한주	태 종 체 육 관	관
L 헤비급	1	김종석	상	무
"	2	임종남	성 동 0 B	
"	3	이수영	동 원 체 육 관	관
"	3	김형근	간 석 체 육 관	관
헤 비 급	1	최호성	상	무
"	2	하용성	성 동 0 B	
"	3	곡가재	간 석 체 육 관	관
"	3	이호원	동 원 체 육 관	관



일반부 우승자

참가팀 임원 및 중요전적

고등부

순위	팀	명	단	장	감독	코치	중요전적
1	한광고	홍성결	이계혁	황재원	제4회 연대총장기 우승		
2	대구공고	이태순	김기수	황재원			
3	풍생고	홍사홍	원동수	강선장			
4	목포고	최홍진	강성순	오용진			
5	항도실고	김영복	이상배	김상명	제6회 연대총장기 우승		
6	협성상고	신진성	장기홍	이영기			
7	송도상고	김허남	배종안	김상명			
8	전주건설공고	전기수	나정흠	이영기			
9	대전체고	유종선	이영길	김기홍	제13회 대통령기 우승		
10	인천광성고	류형렬	장천기	이용환			
11	남대전고	손병관	이계승	하용성			
12	전북체고	최경철	유형환	하용성			
13	청주기공	한창동	김권목		제19회 협회장기 우승		
14	문산중고	심경섭	한갑	국선			
15	배영고	김용갑	한이	국선			
16	부산체고	김영석	이정	국선			
17	광주승일고	장내성	정재	원보	제9회 대통령기 우승		
18	청주신흥고	라덕찬	최창원	김기호			
19	경상공고	이병재	김철원	김제근			
20	동대문상고	민우식	박주호	주신규			
21	승실고	김창결	윤종성	이백운	제8회 대통령기 우승		
22	동성고	박순재	김인수	김세혁			
23	예산고	신승현	유봉호	김기호			
24	서울체고	손종목	박창덕	김기호			
25	성동고	한우택	노상석	김태균, 이재훈	제18회 대통령기 우승		
26	마포고	박인출	조창호	유병호			
27	안중중고	허홍배	연응	김영민			
28	인천체고	고선진	윤치영	황용수			
29	시온고	박승철	김수복	정상채	제16회 대통령기 우승		
30	한성고	양재	남규식	강현일			
31	위례상고		김의범	하석광			
32	안흥전자공고	안규옥	박해종	하석광			
33	성동상업학교	왕춘정	남상덕		제18회 대통령기 우승		
34	경북체고	손호건	윤종욱	오일남	제16회 대통령기 우승		
35	대원고	염동은	안창해	전양주			

〈고 등 부〉

순위	팀	명	단	장	감독	코	치	중요전적
36	환 일 고	윤 태 중	김 덕 천	정 의 명	제17회 대통령기 우승			
37	전 남 체 고	성 용 규	양 승 길					
38	동 원 공 고	김 일 회						
39	사 천 농 고	윤 규 환	정 인 화					
40	삼 천 포 고			김 정 철				
41	마 산 공 고			이 춘 환				
42	삼 천 포 공 고			김 정 철				
43	통 영 고	박 태 우	최 성 락	김 정 렬				

〈대 학 부〉

순위	팀	명	단	장	감독	코치	중요전적
1	동 아 대	손 현 수	이 형 진	김 우 규	제10회 대통령기 우승		
2	청 주 대	권 영 원	정 만 순				
3	대구보건전문대		한 국 선	이 상 태			
4	동의 대		김 광 석	조 충 경			
5	계 명 대	김 태 환	이 철 회	이 완 욱			
6	한국체 대	박 철 빈	정 낙 회	이 승 국			
7	유 도 대	이 상 찬	이 규 석	진 중 의	제18회 대통령기 우승		
8	경 회 대	심 태 식	김 경 지	최 영 열	제17회 대통령기 준우승		
9	명 지 대		유 철 회		제1회 대통령기 우승		
10	송원전문대	천 정 복	윤 판 석		제2회 대학연맹전 우승		
11	성균관 대	김 상 구	김 영 돈	정 윤 배			
12	제주 대	현 평 호	김 성 찬				
13	조선 대	박 인 환	김 주 훈	윤 오 남			
14	통영수산전문대		김 정 열				

〈일 반 부〉

순번	팀	명	단	장	감독	코치	중요전적
1	경북경천체육관	예조해	윤중욱				제18회 대통령기 3위
2	부산동원체육관	홍상우				강대복	
3	성동 O B	임성근	이정돈		조남수		
4	간석체육관	손순성	김영수				
5	상무정	남균	임용인		윤창욱		
6	강성체육관				장원모		
7	태종체육관				이강수		

대통령기쟁탈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역 대 전 적

각부 우승팀

회수	경 기 일 자	대 회 장 소	고 등 부	대 학 부	일 반 부
1	66. 10. 28-29	한 성 여 고			경 회 대
2	67. 11. 13-14	장 충 체 육 관			해 병 대 표
3	68. 5. 25-26	"			"
4	69. 6. 7-8	"			해 병 A 팀
5	70. 5. 30-31	"			해 병 대 표
6	71. 5. 29-30	"			"
7	72. 6. 2-4	"	(고등부 신설) 남 장 품 선 전		제 1 공 수 단
8	73. 9. 14-16	국 기 원	천 호 상 전		육 군 A 팀
9	74. 7. 18-20	"	서 울 체 고		경기도협회 A 팀
10	75. 6. 12-14	"	성 동 상 전		동 아 대
11	76. 6. 10-12	"	"		육 군 대 표
12	77. 5. 19-21	"	"		해 군 대 표
13	78. 10. 28-29	"	동 대 문 상 고		한 국 체 대
14	79. 5. 18-20	"	성 동 상 전		육 군 원 호 단
15	80. 7. 2-4	"	서 울 체 고	(대학부 신설) 한 국 체 대	해 군 대 표
16	81. 6. 13-15	경 북 실 내	경 북 체 고	"	육 군 원 호 단
17	82. 6. 12. -15	광 주 실 내	전 남 체 고	"	해 군 대 표
18	83. 6. 21-24	국 기 원	성 동 상 고	"	해 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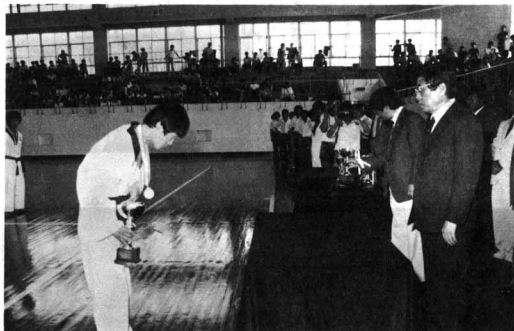


제 6 회 아시안 태권도 선수권 대회 (1984년 11월 9일~11일까지)

아시아 연맹 주최, 필리핀 협회 주관, 세계 연맹과 필리핀 올림픽 위원회 후원으로 실시하는 본 대회는 아시아 연맹의 29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신청(7월 3일자 현재) 하여 선수 250여명과 임원 125명, 대회 조직위원 30명, 심판원 30명등, 450~500명의 선수단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선수 숙소는 생활대학 기숙사(Universe city of life; 세미나시 정부요원들의 숙박장소임)에, 조직위원 및 임원은 마닐라 가든호텔, 리전 마닐라호텔등에 정하였으며, 이를 거행할 체육관

은 RIZAL MEMORIAL MULTI-PURPOSE AR-ENA(리잘 메모리얼 멀티-필포즈 아리나)로서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 종합 센터이다. 총 집행 위원장은 홍 성천사범으로, '83년 9월 김운용총재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인 Michael M. Keon을 비롯한 정부각료가 이를 적극 후원하며 개회식에는 필리핀의 MARCOS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각 신문사, T.V. 방송국 등의 협조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개회식날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하사기쟁탈전의 기린아



이 선 장 선수
(중남대전고 3학년)

인내와 책임감의 승리!
불굴의 태권도 정신의 승리였다.
「스포츠맨십」의 모든 좋은 날말을 골라서 칭찬을 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다. 준 결승전! 최소한 동메달은 확보하고 이 대전에서 승리를 하면 금메달을 놓고 치루어야 할 결승 진출의 관문에 서있는 이선장선수의 결의는 승리의 의욕으로 불타있었다. 상대선수는 국가대표 상비군(B팀)에 선발된 함준(전북대) 선수, 그러나 불행스런게도 1회 중반에 함준선수의 오른발 앞돌려차기를 막다가 왼쪽 바깥팔목뼈(尺骨)의 두곳이 골절되었다.

그러나 이선장선수는 상대에게 아픔을 표시하지 않으려 어금니를 질끈물고 3회전을 뛰어 판정승으로 결승에 올랐다. 이선수는 대망의 결승전에서 상대선수가 팔목 부상을 알까봐 철저히 보안을 하고

팔목에 부목을 대고(본래는 기브스를 하여야 하나)참고 견디었다.

결승전에서 이선수는 부목을 풀고 강적 동대문상고의 이종선선수와 금메달을 놓고 겨루어 판정승으로 원금의 왕자가 되었다.

본기자가 만나본 이선장 선수는 소년티의 암전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그 엄청난 인내가 나왔을까의 심이 갔다.

「팔목의 골절상을 입고 어떻게 경기에 입할 각오를 했느냐?」는 물음에-

「우리학교에서 3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였는데 종합성적으로 볼때 제가 기권을 하면 우리학교가 우승을 못하게 되기때문에 학교를 위한 사명감에서 아픔을 참고 경기에 임했다」고

결과적으로는 남대전고의 단체우승에 영광은 물론, 본인은 원금의 왕자에도 고등부 최우수선수상까지 받는 일거양득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암전하고 수줍은 듯한 얼굴에 환한 웃음은 치열한 경쟁을 딛고 승리로 장식한 장한 태권도선수가 아닌 소년의 모습이었다.

이선장선수는 군생활 30년 만기 제대한 국군유공자 이형래氏의 3형제중 2남으로 국민학교 3학년때 태권도를 시작하여 6학년때 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한 7년의 선수경력의 소유자로서 전적을 보면,

80년 중고연맹전 1위,

81년 전국소년체전 1위,

종별선수권대회 2위, 등으로 지역대회에서는 우승을 독차지 하였고 한다.

1972년 대통령기에 고등부 신설후 지방학교로서는 3번째로 단체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선장선수는 우승의 영광을 이계승 사범과 학교측에 돌리며 가장 기뻐할 분은 아버지라고.....

말은 느리지만 행동은 빨라유 -의 청청도 남대전고 태권도부의 발전을 기원한다.



제 11 회

韓 國

中高等學校 跆拳道 聯盟

會長旗 大會

1983년 7월 16일~19일까지(4日間)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第11回 韓國 中高等學校 跆拳道 聯盟 會長旗 大會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그동안 여러 해를 거쳐오면서 금번 大會같이 많은 人員이 참가하기도 처음 있는 일이다.

女中 66名, 女高 101名, 男中 315名, 男高 623名, 總 102팀 1,105名이 참가하여 우승고지를 향한 4日間の 열띤 公방전이 전개되었다.

또한 금번 大會는 聯盟 事務局에 의하여 예년에 비해 2個月여 늦게 大會를 치루게 되었다.



高等学校는 全國 各 市道 代表選手들이 總출전하여 10月 大邱에서開催될 全國 體育大會 전초전으로, 탐

색대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選手들의 精神의 자세와 기량 면에서 必勝의 신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구나 몇몇 市道支部에서는 協會任員이 競技場에 직접 찾아와 자기道 출전 選手들을 격려하고 타道 選手들의 個個人的 특성 및 戰力을 分析하고 있었다.

오후 2시에 있는 開會式에서 이승환 聯盟 會長은 「이번 大會에서는 sports 精神에 입각하여 正正堂堂히 싸워 跆拳道人으로서 긍지를 가질수 있는 大會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開會式後 공개행사로 진행된 大成中學校 시범단의 跆拳道 시범에 觀衆들은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金 仁 守
(韓國中高聯盟專務理事)

그리고大會 運營面에서 任員의 일치 團結로 매 競技時 일어나는 심판 판정의 항의에 대하여 특히 주력하였다.

또한 해가 갈수록 출전 選手가 많아 지고 따라서 觀望자의 응원이 치열하였다.

특히 上級學校 進學 특혜 및 優勝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한, 두 件의 이익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問題는 좀더 각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수많은 어린 學生들 앞에서 서로가 自己 選手들에게 감독 코우치의 권위의식 위주로 항의를 한다는 것은 指導者로서 잘못된 행동이므로, 앞으로 시정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競技場內 選手들의 질서유지 문제는 進行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要因이라고 보아 스스로 질서유지에 유의 學校授業의 연장이라는 意識을 고취시킬 必要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심판의 자질향상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항상 느끼고 있지만 指導者의 자질향상 또한 중요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 자라나는 새
싹들에게 우리 선배
태권도인은 무엇을
모범으로 보여 주어
야 할 것인가?”



競技內容面에서는 女學生의 경우 아직도 男學生 選手들과 같이 power 있는 攻撃, 技術이나 다이나믹한 技術 전개 등에는 미숙하나 몇몇 靑靑급 選手들은 다양한 技術과 숙달된 競技運營을 보여 주었으며 男學生의 경우, speed, power, 순발력 등을 구사하는 다양한 技術의 전개를 볼 때 86아시아 게임과 88올림픽 시범종목의 꿈나무로서 손색이 없어 보여 선배 跆拳道人으로서 마음 든든함을 느꼈다.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우리 선배 跆拳道人은 무엇을 모범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으며, 여러 문제점들은 하나 하나 빨리 시정하는 것이 태권

도를 발전케 하는 길이며, 앞의 사항이 시정될 때 비로소 새싹들이 밝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운동할 수 있으며 이런 성숙한 분위기가말로 종주국의 면모를 유지해 나갈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열면 4日間の 競技가 끝나고 시상식에는 各體級의 入賞者와 團體賞이 시상되고 심판및 競技關係者 노고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끝으로 本大會를 성공리에 마치게 된것을 大會 심판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늦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奎室學生體育館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단체입상성적

여고부 : 우 승 : 청산여자상업고등학교

준우승 : 인천체육고등학교

3 위 : 숭신여자고등학교

감투상 : 고양여자종합고등학교

장려상 : 시온고등학교

남고부 : 우승 : 성동상업학교

준우승 : 서울體育高等學校

3위위 : 東星高等學校

감투상 : 東大門商業高等學校

장려상 : 만경고등학교

남중부 : 우 승 : 동성중학교

준우승 : 경수중학교

3 위 : 예산중학교

감투상 : 강동중학교

장려상 : 당곡중학교

여중부 : 우 승 : 상인천여자중학교

준우승 : 상원여자중학교

3 위 : 대방여자중학교

감투상 : 영복여자중학교

장려상 : 고양여자중학교

〈남 고 부〉

이름 순위	1 위	2 위	3 위	3 위
체급 소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핀 급	김영준 동 성 고	이종선 동대문상고	양춘열 서울체고	최성수 숭 실 고
플라이급	오영주 서울체고	오상훈 동 성 고	김기홍 풍 생 고	김홍수 풍 생 고
밴 탐급	진만식 성 동 상 업	유명식 성 동 상 업	김만우 부산체고	김병철 인천광성고
케 터급	이희우 동 성 고	하계수 경북체고	김도경 풍 생 고	김정남 서울체고
라이트급	강문섭 성 동 상 업	김경환 서울체고	박용권 동 성 고	배창호 부산체고
웰 터급	양대승 서울체고	최상진 전주건설공고	이섬주 시 온 고	이효열 문 산 종 고
미 들급	배병태 성 동 상 업	박용웅 남 대 전 고	정용석 인천광성고	황동순 전주건설공고
미 들급	이주열 서울체고	이병찬 향 도 실 고	강수광 풍 생 고	이용혁 서울체고
L해비급	노 신 동대문상고	조영호 경북체고	황진철 창 신 고	김용건 위 레 상 고
해 비급	안병덕 성 동 상 업	여준기 경 주 상 고	김광섭 동 성 고	김동욱 서울체고

〈여 고 부〉

소속 순위	1 위	2 위	3 위	3 위
체급 이름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핀 급	이정미 숭 신 고	김현숙 인천체고	유혜숙 문 성 여 상	김미영 고양여고
플라이급	배은정 청산여상전	이 영 시 온 고	박경순 근 명 여 상	박연실 문 성 여 상
밴 탐급	김정임 청산여상전	안희정 고양여고	허정애 숭 신 여 고	김효연 시 온 고
케 더급	오순덕 인천체고	노정미 시 온 고	유경희 청산여상전	김미숙 은 광 여 고
라이트급	김소영 청산여상전	최원찬 근 명 여 상	김명희 인천체고	이은영 진 명 여 고
웰 터급	김지숙 청산여상전	김현정 인천체고	김미혜 은 광 여 고	김유숙 청산여상전
미 들급	김현희 청산여상전	허승주 숭 신 여 고	황경숙 청산여상전	허혜숙 은 광 여 고
해 비급	정완숙 청산여상전	이진희 인천체고	최지숙 문 성 여 상	김영애 문 성 여 상

〈남 중 부〉

이름 등위	1 위	2 위	3 위	3 위
체급 소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핀 급	이육근 경 수 중	김훈섭 풍 생 중	권태호 동 성 중	홍영기 동 성 중
플라이급	하태경 경 수 중	신대준 한 영 중	최응석 장 안 중	송인환 동 성 중
밴 탐 급	한재주 예 산 중	심기훈 동 성 중	권오철 청 주 중	이대철 한 성 중
케 터 급	조영남 동 성 중	최재우 경 수 중	정용기 풍 생 중	김우섭 경 수 중
라이트급	윤정욱 동 성 중	백의현 한 영 중	조규식 경 수 중	최진령 한 성 중
웰 터 급	김병갑 경 수 중	황원순 예 산 중	서관호 서울체육중	장응호 동 성 중
미들급	민태남 동 성 중	김병섭 예 산 중	서정일 쌍 문 중	황순호 경 수 중
헤 비 급	박희석 강 동 중	조광천 동 성 중	하성호 청 주 남 중	백승범 서울체육중

〈여 중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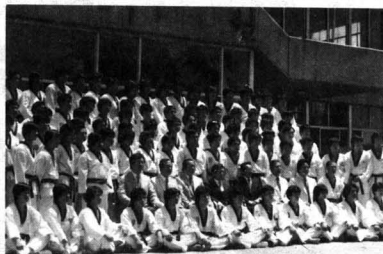
이름 등위	1 위	2 위	3 위	3 위
체급 소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핀 급	김미숙 상인천여중	윤 회 상인천여중	송갑남 고 양 여 중	문희경 근 명 여 중
플라이급	신 숙 한 강 여 중	남선경 상인천여중	이지희 근 명 여 중	박경희 근 명 여 중
밴 탐 급	김은아 낙 생 중	노은미 고 양 여 중	김남희 상 원 여 중	조미애 고 양 여 중
케 터 급	정은경 상인천여중	유정희 상 원 여 중	손영례 상 원 여 중	최명숙 고 양 여 중
라이트급	박현순 영 북 중	박현숙 고 양 여 중	임은주 상 원 여 중	강현희 근 명 여 중
웰 터 급	김지영 대 방 여 중	조정희 상인천여중	유미현 근 명 여 중	조인경 고 양 여 중
미 들 급	윤은일 상인천여중	방경애 근 명 여 중	최경미 상 원 여 중	천혜진 대 방 여 중
헤 비 급	남정동 상 원 여 중	문경희 상 원 여 중	김연중 상인천여중	이덕순 고 양 여 중

제42기 지도자교육 실시

국기원에서는 1984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 제42기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등록자 95명중 87명이 수료율 하고 8명이 실격하였다.

수료자 명단 (무순)

변영진, 박기동, 김창국, 박종일, 이경수, 권태철, 김현수, 노달현, 김영수, 전익기, 이준성, 이장호, 유규상,
엄석용, 박홍석, 박광일, 임준식, 김만보, 신우섭, 김형일, 김익환, 박규식, 진재일, 정용봉, 채수하, 정종수,
조구제, 양승희, 박재청, 김광수, 오광환, 이인재, 성영권,
조광표, 민병팔, 서기수, 정방영, 김광렬, 박구배, 손용주,
김형석, 민경희, 배기성, 김상환, 김동수, 신병현, 양천석,
김백수, 윤인섭, 전정우, 서정두, 김영호, 박명철, 이훈수,
장승화, 김기환, 최찬웅, 강동호, 조광연, 권태홍, 김중희,
박영규, 이상록, 탁 현, 조주훈, 김홍남, 김인국,
최석규, 김봉수, 김정복, 신동원, 김정규, 정재복,
이종욱, 조한곤, 임도식, 김 귀진, 김원섭, 백종영,
서창원, 황선두, 안광신, 김장호, 박명수, 김광섭,
오일남



제 3 회 서울특별시 시장기쟁탈 대항 및 개인선수권 대회



송 봉 섭
(서울특별시협회 전무이사)

제65회 전국체육대회 서울특별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대표선수 선발대회)

서울시 태권도협회에서는 1984년 6월 11일부터 13일(3일간)까지 국기원에서 서울시 체육회와 공동주최로 서울특별시 시장기쟁탈 초·중·고 대학 단체 대항 및 개인 선수권 대회와 겸하여 제6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의 대표선수 선발을 겸한 대회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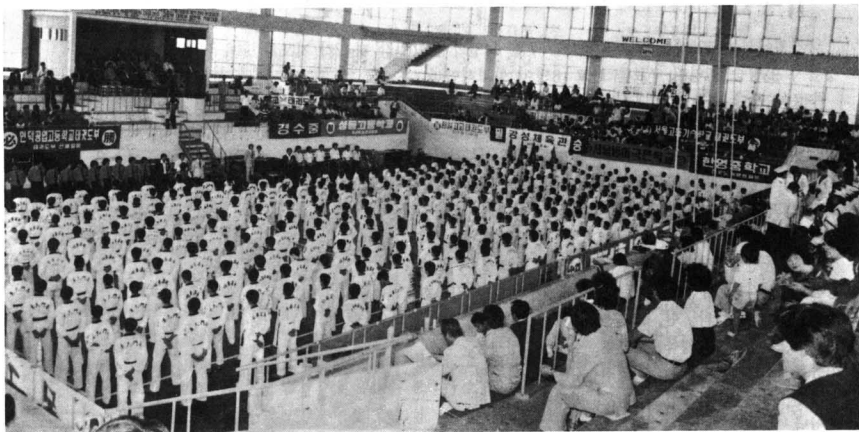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체육회 노우덕 부회장, 서울시협회 임원 및 내반들이 참석한 개회식에서 엄운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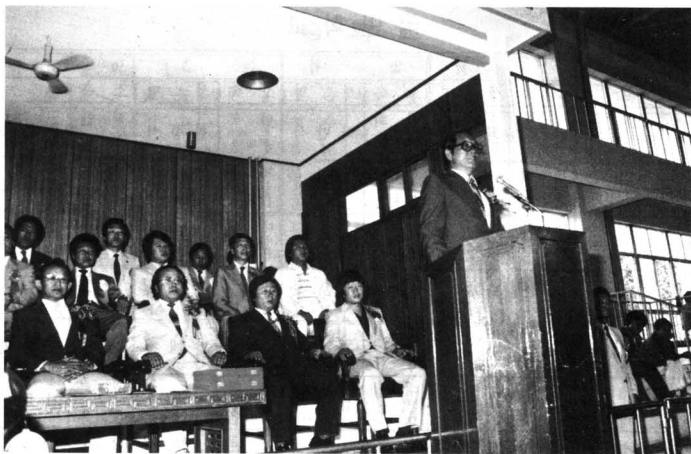
회장은 1,000만의 인구를 보유한 서울특별시 시장기 대회를 3번째 맞이하는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대회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본대회는 65회 전국체전에 파견할 서울 특별시의 태권도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자리이니만큼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는 평소 닦은 기량을 10분 발휘하여 대표선수의 영예를 얻어 전국체전에서 서울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소년체전에

서 우승한 중등부를 치하하였다.

그리고 국민학교부 태권도가 소년체전 종목에 가입은 '86아시안 게임을 목전에 둔 즈음 당당한 것이므로 국민학교 태권도 선수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서울시 체육회 노우덕 부회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권도를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대회를 치루도록 협조하여 줌에 감사의 말씀을 전제로, 지금껏 태권도가 서울시체육회를





전국대회에 우승으로 이끄는 건
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금번 대회
에서 선발된 선수들에게 거는 기
대가 크다고 말씀하고 86아시안
게임에 정식종목으로 태권도가 채
택되어 국위를 선양하게 될때 이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기
를 희망한다고 격려하였다.

본대회에는 국민학교부 248명,
중등부 271명, 고등부 255명, 대
학부 62명, 일반부 33명으로 총
869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국민학교부에서는 광희국민학
교가 단체우승을 하였고 중등부
는 경수중학교, 고등부는 서울체
고, 대학부는 한국체고, 일반부는

상무팀의 독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본대회 시상식후 서울
시 체육대회에서 수여하는 우수
선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국교부: 박재홍(웰터급우승 교동
국교 6년) 권순정(미들급우승 광
희국교 6년) 군에게 각 20만원씩.
중등부: 이종은(헤비급우승 경수
중 3년) 조준원(벤텀급우승 동성
중 3년) 군에게 각 25만원씩.

고등부: 노신(라이트헤비급 우승
동대문상고 3년) 이주열(미들
급우승 서울체고 3년) 군에게
각각 포함시켜서 30만원씩, 모두
6명에게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각부별 입상자는 다
음과 같다.



국 민 학 교

체 급	등 위		1 위		2 위		3 위		3 위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핀 급	영 풍 6-6	최 의 립 6-12	광 회 6-12	박 만 석	면 목 4-3	원 종 석	장 안 5-1	문 성 대		
플 라 이 급	광 회 6-1	전 재 민	장 안 5-2	배 동 인	계 원 6-8	이 호	광 회 6-13	신 남 호		
벤 팀 급	면 목 6-5	서 덕 수	면 목 6-14	김 성 오	대 립 6-8	허 석	성 동 6-1	이 상 호		
캐 더 급	남 산 6--	권 영 호	남 산 6-2	박 양 훈	평 회 6-16	진 동 환	면 목 6-14	오 경 환		
라 이 트 급	잠 일 5-1	박 두 용	광 회 6-8	김 윤 형	중 곡 6-16	양 태 철	교 동 4-5	천 창 영		
웰 터 급	교 동 6-4	박 재 홍	대 립 6-9	신 성 수	양 목 6-10	장 종 오	광 회 6-8	전 효 진		
미 들 급	광 회 6-3	권 순 정	개 원 6-2	맹 미 정	중 곡 6-1	박 창 선	장 충 6-3	김 승 덕		
해 비 급	면 목 5-8	이 경 환	마 천 6-8	박 중 회	평 회 6-14	김 효 경	영 풍 5-5	유 길 경		



중 학 교

체 급	등 위		1 위		2 위		3 위		위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핀 급	경 수 2-11	이 욱 근	경 수 2-10	이 인 형	수 유 2-8	박 진	배 명 2-7	서 보 훈		
플 라 이 급	경 수 3-16	하 태 경	동 성 3-5	송 인 환	동 성 3-4	서 대 원	강 동 3-14	조 기 현		
밴 텀 급	동 성 3-1	조 준 원	동 성 2-1	박 세 홍	배 명 2-9	양 정 석	쌍 문 3-1	유 용 호		
페 터 급	한 영 3-14	강 창 모	경 성 3-5	고 영 일	경 수 1-14	박 진 석	경 수 2-14	최 재 우		
라 이 트 급	동 성 3-6	윤 정 욱	동 성 3-3	심 우 현	경 수 3-13	조 규 식	한 성 3-12	최 진 영		
웰 터 급	경 수 3-17	김 병 갑	동 성 3-2	장 용 호	동 성 3-6	조 준 결	체 욱 3-1	서 관 호		
미 들 급	동 성 2-7	민 태 남	체 욱 3-1	박 기 도	경 수 2-12	황 순 호	한 영 1-4	홍 종 철		
해 비 급	경 수 3-5	이 종 은	체 욱 3-1	백 승 범	중 동 3-7	김 호 남	동 성 3-5	조 광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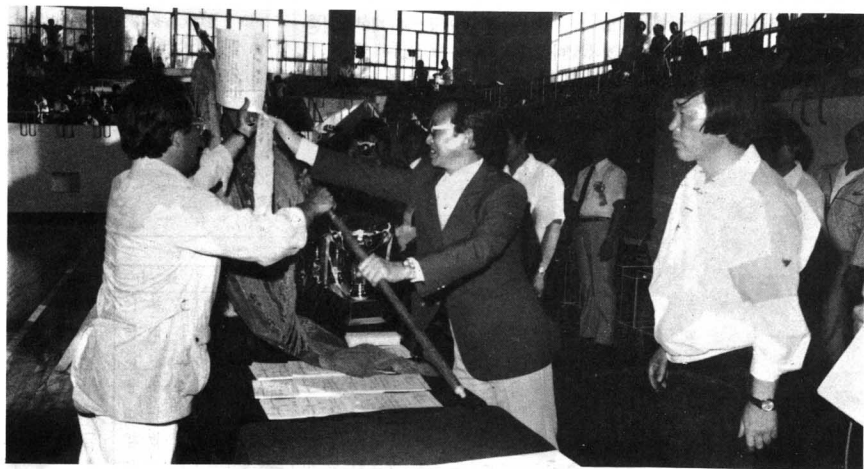
고 등 부

등 위 체 급	1 위		2 위		3 위		3 위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편 급	서울체 2-1	강철우	성동상 3-3	김성환	성동고 1-10	최영우	서울체 1-1	양춘열
플라이 급	동대문상 3-9	한명수	동성 1-4	이광로	성동상전 2-1	나광운	서울체 3-1	오영주
밴탐 급	성동상 3-4	진만식	성동상 3-3	유명식	성동상 3-1	김철호	동대문상 3-10	홍용섭
페더 급	동성 3-9	서정현	성동고 1-4	최명호	서울체 3-2	신경목	동대문상 3-1	이용일
라이트 급	동성 2-3	박봉권	서울체 3-1	장기석	서울체 2-1	김경환	한성고 3-4	김성진
웰터 급	서울체 1-1	양대승	동성 2-10	김용수	동성 1-3	조창현	성동상전 3-2	김한주
라이트미들급	성동상 3-1	배병태	동성 3-5	임용택	성동 1-2	이명호	서울체 3-2	박화용
미들 급	서울체 3-1	이주열	성동 3-1	김성룡	환일 2-2	이명완	보성 1-4	강신춘
라이트헤비급	동대문상 3-6	노신	서웃체 3-1	박현	인덕 2-3	장성식		
헤비 급	동성 3-4	김광섭	성동상 3-3	안병덕	인덕 2-3	박지성	서울체 1-1	김동욱



대 학 부

등 위 체 급	1 위		2 위		3 위		3 위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핀 급	성 대	최용덕	유 대	박 기 정	한채대	한 성 동		
플 라 이 급	한채대	인 해 진	유도대	박 명 철	한채대	고 정 호	유 대	이 종 도
벤 탐 급	한채대	박 기 성	성 대	전 응 환	유 대	양 영 팔	유 대	이 기 영
페 더 급	한채대	정 승 환	유 대	강 종 길	유 대	권 오 준	유 대	김 종 길
라 이 트 급	유 대	김 창 구	유 대	김 윤 표	한채대	나 민 수	한채대	이 경 식
셀 터 급	한 체	최 광 근	유 대	정 기 수	성 대	박 종 길	유 대	이 근 호
라이트미들급	유 대	최 찬 웅	성 대	유 종 철	성 대	김 시 태	한 체	이 효 주
미 들 급	한 체	문 원 재	성 대	김 상 천	유 대	이 기 훈	유 대	최 무 경
라이트헤비급	유 대	황 선 두	성 대	이 완 회	유 대	김 기 찬		
헤 비 급	한 체	김 재 영	성 대	박 종 만	성 대	김 세 영	유 대	김 영 구



제20회 대한 태권도 협회장기 및

〈제11회〉

한국 중, 고연맹 개인 선수권 대회

하늘은 높고 오곡이 머리숙여 결실을 재촉하는 가을 /

태권도의 「메카」인 국기원에서 1984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대회를 거행하였다.

우수한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한 전통을 이어온 중·고연맹은 이제 명실상부한 한국 태권도의 중흥의 기치를 한껏 드높히고 있다.

본대회에는 중등부 남자선수 256명, 여자선수 53명, 고등부 남자선수 495명, 여자선수 88명, 총 892명이 121 교에서 참가하였다.

개회식에서 신임 김명호 대회장은 본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태권도 대회를 통하여 자이스런은 물론 선수 본인이 소속된 학교와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기여도를 생각하고, 승부를 초월하여 정신력 수양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정

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선수들은 배우는 학생들로서 매사를 학원의 연장으로 탐구하는 자세로 행동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격려사에서 김운용 협회장을 대신하여 엄운규 부회장은

중·고연맹은 태권도 중흥의 기틀이요 86, 88양대 경기의 주역들의 집합체임을 강조하고 선전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렇게 많은 선수를 육성하여 성대한 대회를 개최한 중·고연맹 임원을 치하하였다.

개회식에는 대성중학교 태권도시범단의 시범이 있었으며 새로운 회장을 맞이한 임원들의 모습은 생동감이 있었다.

본대회의 단체성적과 개인성적은 다음과 같다,

단체입상성적

〈남고부〉

우 승: 서울체고

준우승: 동대문상고

3 위: 동성고

〈남중부〉

우 승: 경수중

준우승: 동성중

3 위: 한영중

〈여고부〉

우 승: 청산여상전

준우승: 문성여상

3 위: 시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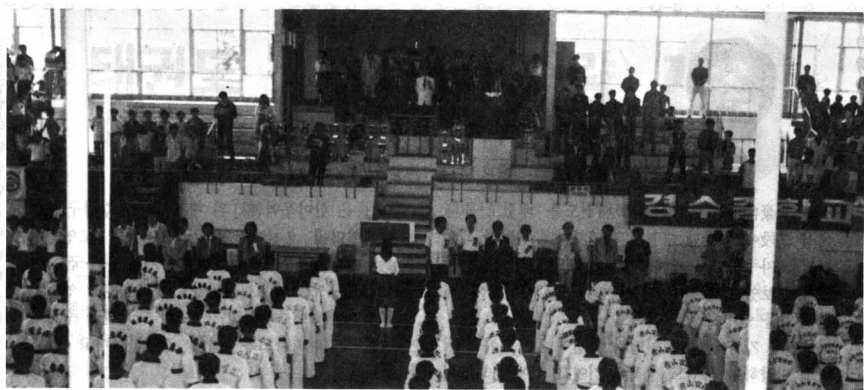
〈여중부〉

우 승: 상인천여중

준우승: 상원여중

3 위: 근명여중





체급별 입상자

(남고부)

등위 이름 체급	1 위		2 위		3 위		3 위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핀	김해만	풍생고	이종선	동대문상고	김인현	진광고교	김상국	한성고
플라이	함준	전북체고	한명수	동대문상고	오상훈	동성고	오세철	거창농고
밴	왕광연	전남체고	홍용섭	동대문상고	이현태	전남체고	오명식	군산중앙고
테	김상곤	삼천포공고	이용일	동대문상고	오태완	전주전설공고	정상민	청주기계공고
라이트	박봉린	동성고	윤건철	성동고	김영철	자인고	장기석	서울체고
웰	양대승	서울체고	박치향	울산남고	유병호	향도실고	이섬주	시온고
L미들	윤순철	서울체고	이화상	문산중고	배병태	성동상전	장봉재	전남체고
미들	이주열	서울체고	강수광	풍생고	이병찬	향도실고	박종일	동대문상고
L헤비	노신	동대문상고	황진철	창신고	조영호	경북체고	김태용	동성고
헤비	안병덕	성동상전	김광섭	동성고	김진만	전남체고	여준기	경주상고

(남중부)

등위 이름 체급	1 위		2 위		3 위		3 위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핀	이육근	경수중	홍영기	동성중	임석원	동성중	박승찬	부평중
플라이	하태경	경수중	송인환	동성중	이경재	배명중	김훈섭	풍생중
밴	이대철	한성중	신대준	한영중	심기훈	동성중	최용석	장안중
테	장창모	한영중	조영남	동성중	최재우	경수중	김남곤	충북대성중
라이트	조규식	경수중	이기호	중동중	박진석	경수중	윤정욱	동성중
웰	김병갑	경수중	심우현	동성중	이재범	풍생중	서관호	체육중
미들	장혁	서울체고	민태남	동성중	황순호	경수중	조준걸	동성중
헤비	이종은	경수중	조광찬	동성중	심상일	한성중	윤창준	동북중



회장 김명호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

金明豪會長은 중학시절에 태권도를 배웠고 軍隊에서 二段에 승단한 태권도 유단자다. 사업상 해외 여행을 자주하면서 세계속에서의 태권도의 역할을 주의 깊게 보았고, 민간사절로서의 태권도 사범들에 대한 진가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우연한 기회에 중·고연맹과 인연이 닿아, 아직 어리고 미약하나 태권도 발전에 기여코 싶어서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고 겸허하게 말씀하시며, 무엇보다 태권도는 무도로서의 정신적인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金會長은 한미무역(株)의 대표이사로서 강남구 논현동 대광빌딩에 2천여만원을 들여서 중·고연맹사무실을 마련, 사무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무국장 여직원을 상근시켜 학교선생님들로 주축이 된 연맹임원의 노고를 덜어주겠다고... 또한 대회만을 주도하는 연맹에서 탈피하도록 최선을 경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고연맹사무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5 대광빌딩 608·609호
전화 : 546-9203, 9204

(여고부)

등위 이름· 체급 소속	1 위		2 위		3 위		3 위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핀 급	정영희	성암여상	유혜숙	문성여상	김현숙	인천체고	김순애	근명여상
플라이급	배은정	청산여상전	이영희	시온고	진혜영	문성여상	이소영	인천체고
밴텀급	박연실	문성여상	박선희	시온고	한재분	문성여상	박선영	청산여상전
페더급	노정미	시온고	김미숙	은광여고	모미라	청산여상전	김현희	문성여상
라이트급	김소영	청산여상전	최원찬	근명여상	김명애	성암여상	이은영	진명여고
웰터급	김지숙	청산여상전	김현정	인천체고	박금순	문성여상	임경희	시온고
미들급	김현희	청산여상전	조혜경	인천체고	이영랑	문성여상	허혜숙	은광여고
헤비급	정완숙	청산여상전	최지숙	문성여상	이미란	배영여상		

(여중부)

등위 이름· 체급 소속	1 위		2 위		3 위		3 위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핀 급	윤희	상인천여중	김홍란	근명여중	김미숙	상인천여중	박정민	근명여중
플라이급	신숙	한강여중	구현영	제물포여중	남선경	상인천여중	박경희	근명여중
밴텀급	김은주	양곡중	박현자	근명여중	은영	상원여중	김은아	낙생중
페더급	곽선미	상원여중	강명호	근명여중	손미경	근명여중	정은경	상인천여중
라이트급	박동선	상인천여중	권난희	상원여중	서선화	상인천여중	최미선	대방여중
웰터급	윤은실	상인천여중	김지영	대방여중	최경미	상원여중	김경숙	근명여중
미들급	문경희	상원여중	김연중	상인천여중	방경애	근명여중	권인선	상인천여중
헤비급	남정동	상원여중	김지연	신경여중	최인숙	상인천여중		

태권도 선수 체급(중량) 개정

개정체급(중량)은 1985년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W.T.F (세계태권도 연맹)에서는 1983년 9월 1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한 제 6차 세계태권도 연맹 총회에서 결의된 W.T.F 규약 및 경기규칙

개정 사항중 본회 회원이 주지하여야 할 남·여선수 체급 개정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니 지도자와 선수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체급(중량)조정개정내용

남자선수

체 급	중 량	개 정 체 급	개 정 중 량	비 고
1) Fin	48kg까지	1) Fin	50kg까지	
2) Fly	48kg초과 52kg까지	2) Fly	50kg초과 54kg까지	
3) Bantam	52 - 56kg	3) Bantam	54 - 58kg	
4) Feather	56 - 60kg	4) Feather	58 - 64kg	
5) Light	60 - 64kg	5) Light	64 - 70kg	
6) Welter	64 - 68kg	6) Welter	70 - 76kg	
7) L. Middle	68 - 73kg	7) Middle	76 - 83kg	
8) Middle	73 - 78kg	8) Heavy	83kg 초과	
9) L. Heavy	78 - 84kg			
10) Heavy	84kg 초과			

여자선수

체 급	중 량	개 정 체 급	개 정 중 량	비 고
1) Fin	40kg까지	1) Fin	43kg까지	
2) Fly	40kg초과 44kg까지	2) Fly	43kg초과 47kg까지	
3) Bantam	44 - 48kg	3) Bantam	47 - 51kg	
4) Feather	48 - 52kg	4) Feather	51 - 55kg	
5) Light	52 - 57kg	5) Light	55 - 60kg	
6) Welter	57 - 62kg	6) Welter	60 - 65kg	
7) Middle	62 - 67kg	7) Middle	65 - 70kg	
8) Heavy	67kg초과	8) Heavy	70kg초과	

제 5 회 체육부 장관기타기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 및 개인선수권대회

한국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에서는 1984년 7월 22일 국기원에서 제 5 회 체육부 장관기 타기 태권도 대회를 거행하였다.

본 대회는 21일 오후 4시~7시까지 307명의 체제를 실시하여 22명이 실격을 하고 285명이 시합에 임하였다.

또한 품세대회에는 1학년 24명 2학년 35명, 3학년 35명, 4학년 41명 5학년 56명, 6학년 59명, 품세 250명으로 총 535명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금번 품세대회심사는 태극7장, 태극8장, 열차기, 제자리뛰어높



송수안
(본연맹 부회장
삼안인쇄 대표)

이차기(고축), 뒤돌려차기(회축) 등을 각 2회씩 실시하여 각 부문에 심사위원 2명씩 배당되어 최

고10점 최하5점으로 채점하여 최고점수 한명과 최하점수를 제외한 중간 4명의 채점으로 합산 채점을 하였다.

동점인 경우에는 호적 초본을 대조하여 나이가 어린 선수에게 유리하게 하는등 엄격히 선별을 하였고 그중 1등한명과 2등 2명을 선발 재심사를 실시하였다. 재심사는 피켓을 5점에서 10점까지 만들어 3명이 나와 품세를 실시한것을 차례로 6명이 같이 채점표를 들어 공개 채점으로 실시하였다. 어린이들의 실력을 채점관이 즉시 평가하여 응심자는 물론 관객이 같이 평가할수 있어 갈채를 받을 수 있음은 태권도 대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품세대회에 이어 10시의 개회식에서 이상빈 대회장은 35개교에서 출전한 여러분들은 이나라의 꽃이요 내일의 기둥으로서 착한 일과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어린이로서 한치의 비굴함도 없이 정정 당당하게 경기에 임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격려사에서 김운용 협회장은 중추국의 태권도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여러 어린이들은 대회를



통하여 질서의식을 익히고 협동심을 기르는 공부의 기회가 되기를 당부하고 머지않은 시기에 태권도가 소년체전 정식종목으로써 채택되어 여러분은 학교와 고향의 명예를 더욱 막중히 걸어질 선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었다.

이어 본연맹 시범단인 미동 어린이의 시범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과 지방의 실력이 평준화되어서 우열을 가리기에 어려울 정도로 백중세였다. 태권도왕 대회의 우승교인 대림국민학교팀, 준우승팀인 충남 금오국민학교 신에 청주 서원국민학교등과 관록을 자랑하는 서울광희국민학교, 남산국민학교 면목국민학교 등에 도전하는 신석국민학교의 도전도 만만치 않았다.

인기상을 받은 플라이급 김인경(성남제2)과 결승전에서 대전한 이욱(청주서원)의 대전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케 하는 재미있는 게임이었으나 김인경선수의 투지에 밀려 준우승을 하였다.

본 대회이후부터 본연맹의 대회에는 국교어린이의 기본기 발전을 위하여 품세대회의 성적도 종합점수에 합산 겨루기와 대등한 위치로 조정할 계획이다.

겨루기 부분의 실력향상은 물론, 품세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의 평가는 처음 실시할때의 품세대회와는 판이하게 품세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며, 각 동작의 원칙이 지도자마다 다른 경향이 있고 품세책까지도 이견(異見)이 있어 애매한 때가 있다고 한다.

본대회의 단체성적과, 겨루기 부분 각체급 우승자, 품세부분 학년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체급별입상자명단

체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학 년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학 년
핀 급	1 위	김 건 일	서울광희국교	6	라 이 트 급	1 위	신 성 수	서울대림국교	6
	2 위	김 봉 찬	서울대림국교	5		2 위	정 현 철	성 주 국 교	6
	3 위	박 만 석	서울광희국교	6		3 위	권 영 호	서울남산국교	5
	3 위	장 형 일	서울신석국교	5		3 위	이 기 영	성남제2국교	6
플 라 이 급	1 위	김 인 경	성남제2국교	6	웨 터 급	1 위	권 순 정	서울광희국교	5
	2 위	이 욱	청주서원국교	6		2 위	송 동 호	서울마천국교	6
	3 위	조 영 국	용 인 국 교	6		3 위	장 두 인	서 룡 국 교	6
	3 위	이 호	서울개원국교	6		3 위	한 승 규	용 인 국 교	5
벤 텀 급	1 위	허 석	서울대림국교	6	미 들 급	1 위	이 윤 기	서울광희국교	6
	2 위	서 덕 수	서울면목국교	6		2 위	김 영 호	서울남산국교	6
	3 위	오 상 환	서울보광국교	5		3 위	민 동 현	서울마천국교	6
	3 위	김 상 진	서울대결국교	6		3 위	강 정 규	서울개포국교	6
페 더 급	1 위	오 경 환	서울면목국교	6	해 비 급	1 위	김 혁 원	서울신석국교	6
	2 위	곽 석 근	청주서원국교	6		2 위	김 호	서울화계국교	6
	3 위	황 인 신	서울창경국교	5		3 위	강 병 삼	서울신석국교	6
	3 위	진 동 환	서울광희국교	6		3 위	도 재 호	서울개포국교	6

품세대회 입상자 명단

학 년	금 상	은 상	동 상
1	김재준(남산)	이재용(선곡)	김 진(신석)
		유준희(대림)	김우현(용인)
2	최만용(쌍문)	신갑덕(송중)	오현명(개포)
		박진서(한강)	김계현(송중)
3	김동현(미동)	김경서(쌍문)	정수현(선곡)
		이국일(쌍문)	유호진(한강)
4	황교찬(신석)	김명곤(신석)	김중윤(남산)
		박광훈(선곡)	김일구(개포)
5	김민상(미동)	조남호(미동)	김승탁(미동)
		김성곤(남산)	홍성호(선곡)
6	김성일(미동)	신규식(신석)	김성현(금옥)
		유명수(미동)	양문수(미동)
		고영규(금오)	박재호(남산)
		한수경(개원)	임현정(한강)
		권영호(남산)	정둘리(경계성취)

단체성적표

구 분	순 위	학 교	명
겨 루 기	1 위	서 울 광 희 국 민 학 교	
	2 위	서 울 대 립 국 민 학 교	
	3 위	서 울 면 목 국 민 학 교	
	장 려	서 울 신 석 국 민 학 교	
	"	성 남 제 2 국 민 학 교	
	"	청 주 서 원 국 민 학 교	
품 세	가 투 상	서 울 마 천 국 민 학 교	
	"	서 울 남 산 국 민 학 교	
	1 위	서 울 미 동 국 민 학 교	
	2 위	서 울 남 산 국 민 학 교	
	3 위	서 울 신 석 국 민 학 교	
	장 려	서 울 선 곡 국 민 학 교	
	"	서 울 쌍 문 국 민 학 교	



축하 합니다

이 승 국 교수
(국제분과 위원장)

이교수는 80년 9월 1일 한국체육대학 강사로 출발, 태권도를 맡아 노심초사의 결실로 대통령기 5연패, 대학연맹기 4연패를 차지하였고 국가대표 선수 양기모 정국현 이세봉, 박천재, 하용성, 고정호, 문종국, 권기문, 박상식, 최광근등 10명을 배출하였고 제 6 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코치로 참가하여 6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또한 태권도에 관한 논문도 4 편을 발간하는등 태권도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84년 10월 1 일부로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真理의 샘」

세상에 악(惡)이 무성하는 것은
우리가 「노우」(no)라고 말하는 용기를
못 갖기 때문이다 <스마일스>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있다.

시(是)와 비(非)가 있고 의(義)와 불의(不義)가 있다.

긍정(肯定)해야 할 일이 있고 부정(否定)해야 할 것이 있다.

찬성(贊成)해야 할 일이 있고 반대(反對)해야 할 일이 있다.

의인(義人)이란 어떤 인물이나?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예스」(yes)와 「노우」(no)를 분명하게 대답하는 사람이다.

「예」라고 해야 할 때에 「아니오」라고 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에 「예」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노우」라고 단언해야 할 때에 「노우」라고 단언하지 못하는데서부터 사회의 악(惡)이 생긴다.

집권자가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할 때에 그 밑의 장관들은 「노우」라고 단호하게 대답해야 한다.

사장이 밀수(密輸)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부하는 「노우」라고 분명하게 반대를 표시해야 한다.

남편이 부정(不正)을 범하려고 할 때에 아내는 「안되요」라고 반대를 해야 한다.

친구가 「컨닝」(cunning)을 하자고 할 때에 그 동료는 「노우」라는 부정의 말을 용감하게 던져야 한다.

「노우」라고 해야 할 때에 「노우」라고 단언할 양심(良心)과 용기(勇氣)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악(惡)이 발생한다.

영국의 저술가요, 사회개혁자(社會改革者)였던 「스마일스」의 이 평범한 말은 인생의 진리를 들어낸 말이다.

세상에는 「예스맨」(yes man)과 「노우맨」(no man)이 있다.

「예스맨」만 있고 「노우맨」이 없을 때 그 집단 그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한다.

우리 사회에는 상관에게 아첨하는 「예스맨」이 너무 많고, 충언(忠言)을 하는 「노우맨」이 적기 때문에 부정과 불행이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악(惡)을 부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너 잘했다.



고 우영



1



철이가 온다.



2



재는 태권도 하는 애야.

잘 해.



3



흥! 태권도면 다야?



4



난, 저 녀석 이길 수 있어.

정말?



5



문제 없어. 볼래?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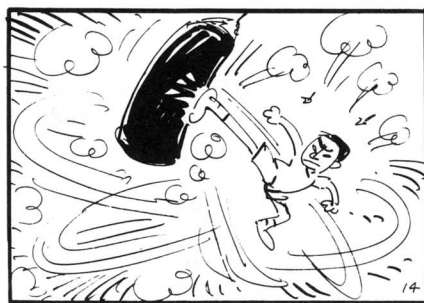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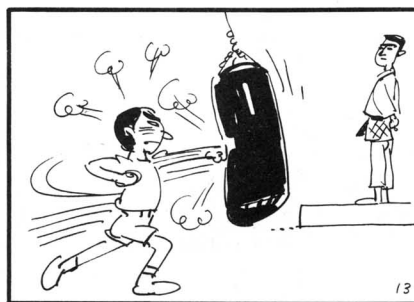
6



야!



7



서울 체육 중 · 고등학교



출전선수들에게 훈 하시는 손교장



박 창 덕 선생
(태권도부감독)

—「調和로운 人間教育을 통한 先進 祖國의 創造」—의 “슬로건”을 목표로

誠實, 勤勉, 協同을 교훈으로 個人이 지닌 素質을 최대한으로 啓發하여 자기적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人間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날 한국 체육의 전

아들이 열심히 면학하고 있다.

71년부터 태권도부를 창단, 연평균 6명의 선수를 배출, 한국체육대학 및 일반대학 체육학과에 100% 입학하였다.

또한 본교출신의 국가대표선수 박오성, 김종기, 김영국, 양기모, 권기문, 박종만, 김지태등을 배출하였으며, 양대승(웰터급, 1학년) 강철우(핀급, 2학년) 이주열(미들급, 3학년) 군 등은 장차 국가대표 재목으로 충분하다고 박창덕선생은 말하고 있다.

校長 孫鍾默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경기의 성적보다는 인간교육의 승리를 중요하게, 기능인보다는 전인교육을 통한 인격수양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박선생은 이야기하며, 그 뜻을 이어받아 학생들 지도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대개의 태권도선수들이 품세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지하고 품세교육을 철저히 시키며 인간교육에 역점을 두어 태권도 지도자로서 사회에 나갈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한국중고연맹 초창기에는 체육중·고등학교가 모든 우승을 독차지하는등, 선두주자로 군림하였었다.

태권도부 담당 지도 박창덕 선생은 중고연맹 전무이사로 72년 영등포 중·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 13년간을 재직하고 '84년 3월 2일자로 서울체고 태권도부 감독으로 전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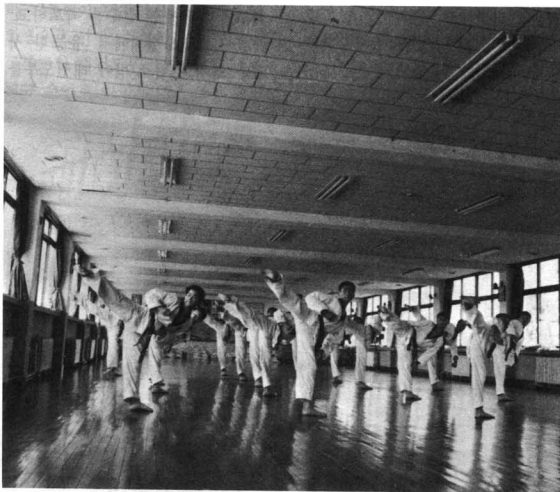
전근 후 전국중별선수권대회 4명을 출전시켜서 금 1개(박현(헤비급, 3학년), 은 1개(장기석(라이트) 3년), 동 1개 (윤준철(라미들), 2년)의 전적을 올렸고 서울시 초·중·고·대학부의 개인 선수권 대회에서는 4명이 출전 금3, 동1로 출전선수 전원 입상을 하였다.



본교태권도 부원 (국기원에서)

「조화로운 인간교육을 통한 선진조국 창조」

수련하는 모습



또한 서울특별시 시장이 및 전국 체전에선전에는 대거 30명이 출전하여 고등부 단체우승을 하였고, 이주열(3년) 강철우(2년) 양대석(1년) 김경환(2년) 등 4명이 서울대 표선수로 선발 되었다.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체력및
체육인으로서의 소양과 전문분야에
서의 일인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집
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체육
고등학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로 아
침 6시 기상하여 아침점호를 실시
한 후 청소, 세면, 아침식사 등을
7시30분까지 완료, 40여분간 각
자의 하루를 설계하고 8시10분 아
침자습, 9시15분 정규수업, 12시
5분 3교시 점심식사후 12시50분
~1시40분까지 4교시를 마친 다
음 2시부터 전문분야별 운동을 시
작한다.

운동시간을 구분해 보면, 준비운동 20분, 전문체력 40분 기술운동 1시간, 기본품세 및 일반운동 1시간으로 2시부터 5시까지 운동을 한다.

5시이후 7시30분까지는 개인공
부 및 저녁식사, 7시30분~9시30
분까지는 자습 및 자유시간으로 개
인 취미생활을 즐기며, 9시30분 저
녁점호, 10시 취침으로 규칙적인 생
활을 하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
터 월요일 아침 8시까지 주 1회의
외출 및박을 실시하여 학교외의 친
구와 친척들과의 생활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여름, 겨울방학은 합숙훈련을 실시하여 각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야영지를 선정 10일간씩 자연과 접하며 체력을 단련하는 등 정서면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체육증흥의 기치아래 한국 내일의 체육을 담당할 새싹들의 활기찬 모습은 체육한국의 내일의 이정표를 보는 듯 하였다.

城東 高等學校



校訓

1	正	義
2	實	力
3	團	結



교장 한우택 선생님

1906년 6월 2일 현재의 Y.M.C.A. 자리에서 皇城 基督教 學館으로 설립.

8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키며 고등학교에만 33회로 졸업생 15,555명을 배출한 명문 고등학교로서

學長 經營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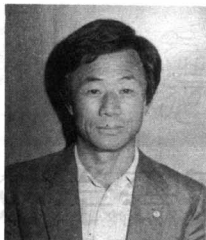
韓國 教育者로서의 使命感을 痛感하고 透徹한 國民精神 위에 民主·福祉·正義의 새 社會建設에 寄與하는 自主이며 創意的인 愛國國民을 育成하는 데 獻身한다.

圓滿한 人間關係를 形成하며 人和團結로 教育 全領域에 걸쳐 學園秩序 正常化와 內實을 圖謀하며 특히 不斷한 自己 研鑽과 自律生活能力 培養으로 教育力의 極大化를 期하고 信賴받는 師道를 確立한다.

이것이 곧 高度産業社會와 國際化 時代에 對應하는 有能하고 調和로운 人間을 育成하는 教育者의 使命임을 自覺하고, 國家發展에 副應하는 科學教育과 國際社會에 適應할 수 있는 會話教育에 注力한다.

韓 祐澤 校長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회체육 과장으로 계시다 1983년 9월에 본교에 부임하여 교훈을 정의 실력 단결로 정하고 평소 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권장하던 차에 - 본교에는 태권도 수련장 시설도 되어 있어, 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인 노상석 교사를 본교로 부임케하여 태권도 명문 중 학교에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고 서울시 태권도협회에서 유능한 사범을 코치로 협조 받아 태권도부를





감독 : 노 상 석

창설하였다.

본교는 태권도의 정신을 전통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전교생 2,500명을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수련을 시킴으로, 우렁찬 태권도의 기합소리와 함께 새로운 전통이 꽃봉오리처럼 크고 있다.

또한 우수한 선수 양성을 위해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중 기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선수는 전면 장학생으로 선발, 육성하고 있다.

본교의 태권도부(선수부) 15명은 정규 수업을 마친후 2시간씩 수련



코치 : 김태균

을 하고 있다. 중학교 재학시 우수한 기능을 보유했던 선수를 「스카웃」한 「멤버」라 84년은 기량을 점검하고 85년도 부터는 본격적인 고교태권도의 우승의 고지를 향해 줄달음치리라는 기대다.

본기자가 여름방학 기간중에 학교를 방문하였다.

코치 김태균 사범은 「훌륭한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고등학생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 실력은 선수들 장래의 인생에 중요한 양식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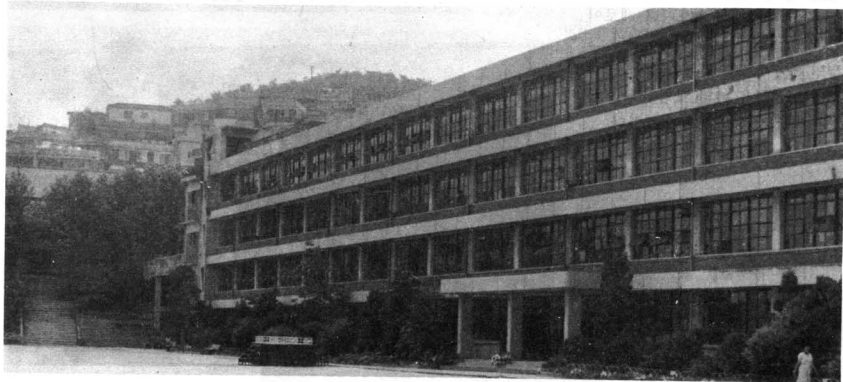
코치 : 이재훈

로 앞으로도 실력향상도 같은 비경으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시설이 완벽되어 있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여 주는데 못할것이 없지 않겠느냐」고 의욕에 차 있으며 감독, 코치, 선수가 일체가 되어 땀흘리고 있다.

태권도 수련시간에 「카셀」에다 영어 회화 「테이프」를 틀어놓고 수련하는 모습이 이색적일까?

땀흘린 땀가가 85년에는 선을 보일테니 태권도를 수련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더욱 분발 하시길. (한)





仁德

工業高等学校

道峰區 月溪洞에 자리잡고 있는 仁德工業을 찾았다.

뒤 울동장 너머의 넓직한 동산과 푸르른 산 속에 파묻혀 혼자만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듯 아늑해 보이는 이곳은 마치朴 仁德先生의 품안처럼 포근해 보였다. 仁德先生의 정신과 校訓아래 오늘도 열심히 수련하며 땀흘리는 그곳 태권도부의 현장을 잡아 보았다.

처음의 말쑥하고 다루기 어려웠던 이곳의 태권도부는 해체의 위험선까지 그도를 몰고 갔지만 6년전부터 허 윤학생의 지도아래 새로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 몇년 후,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게 되었고 지금은 他의 모범이 되는部署로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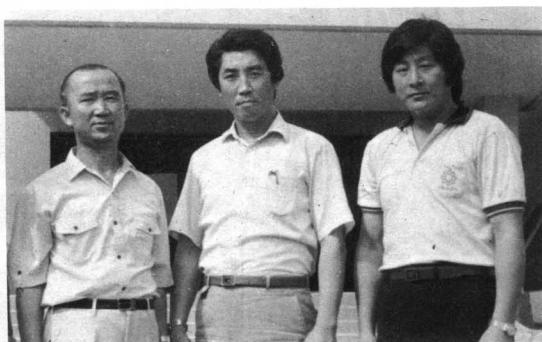
그러나, 역사 13년에 120여명(세대 지망생인 선수부 40명을 포함한 나머지 무도부원들)의 결코 적지 않은 부원들로 구성된 이 태권도부는 아직 수련할 만한 장소가 없었다.

이 태권부로 인해 다른 씨클들도 영향을 받아 자체내의 醇化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으며, 다른 학생들 뿐 아니라 선생님들께도 신임을 받아 착실하고 무엇 보다도 인간 됨됨이를 갖춘 학생들이라고 김 대식교장 선생님께서는 칭찬하시며 태권도부원들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한듯 했다.

美大 공예과 출신이며 10여년 운동 경력의 태권도 유단자인 이환익 감독의 따사로운 세심한 배려 속에서, 오늘도 아침 공기를 뒤흔

들며 세계를 품안에 넣으려는 야망에 찬 젊은이들, 허 윤학생의 뒤를 이은 후배들이 自律에 의하여 그들의 후배를 지도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저 특활반으로서만 활동할 뿐 여러 미비점으로 인해 더 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태권도부가 발전하려면 학부모들의 새로운 인식과 학교의 적극적인 배려와 자격을 갖춘 지도자의 삼위일체적 협조가 필요하며, 현재 과도기로서의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나 모범 씨클로서 인식되어 있어 전망





이 과히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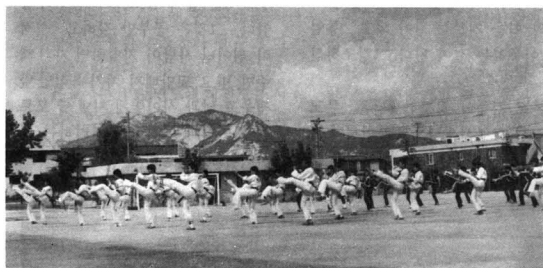
그들에게는 지금 급박한 체육관이 필요하며, 더욱 커나갈 수 있는 방안 및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압”하는 기압 소리는 갓 피어난 싱싱하고 푸르른 새싹을 연상케 했고 힘차게 뻗는 팔과 다리에서 “용기 와 패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새로이 건물이 완성되는 즉시 어떻게 해서든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몇번이고 말씀하신 김 대식교장선생님의 따사로운 배려와 재정 및 기타 뒷받침이 없어 매우 유감이라시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는 임빈화교감선생님을 기억하자.

仁德 跆拳道人이어.

오늘도 착실하고 근면한 마음 자세로 학업과 수련에 임하여 교장·교감선생님 및 기타 다른 선생님들과 학우들에 계속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그들의 눈빛을 기억하고 한 줄기 찬란한 빛을 선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자.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전인교육을 교육이념으로 하고 眞, 善, 美, 聖, 健, 富의 6개 덕목의 구현을 목표로 創造하고 開拓하는 誠實한 技能人을 育成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仁德工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라 (God first, Others second, Myself last)’는 仁德 精神과 校訓으로 삼고 있는 ‘손과 머리로 無에서 有로 (With hand and head,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아래 1955년 9월 미국 워싱턴 (Washington D.C.)에서 육성사업을 목적으로 Berea in Korea Foundation 부려 재단설립에서부터 仁德工高의 역사는 시작된다.



- 1963. 12. 인덕실업고등학교 인가를 문교부로부터 받음.
- 1964. 3. 제 1회 입학(농과 30명으로 개교)
- 1967. 2. 제 1회 졸업식 거행
- 1976. 11. 교명을 인덕공업고등학교로 변경
- 1980. 4. 본 학원 설립자 겸 초대 이사장 박 인덕 여사 서거.
- 1984. 2. 제18대 졸업식 거행.





(설립자 김예환박사)



예일 국민학교 태권도부

서울 은평구 구산동 8 번지

유치원·국민학교·중·고등학교
설립자 김 예환박사의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첫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
자.

질서를 지키는 일, 외제 물품을
쓰지 않는 일, 저축을 잘 하는 일,
물건을 아껴쓰는 일 등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둘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
자.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사
람, 숙제 한가지, 심부름 하나를 할
때도 정성스럽게 책임을 다 하는 어
린으로 성장을 하여야 되며

셋째, 꿈을 가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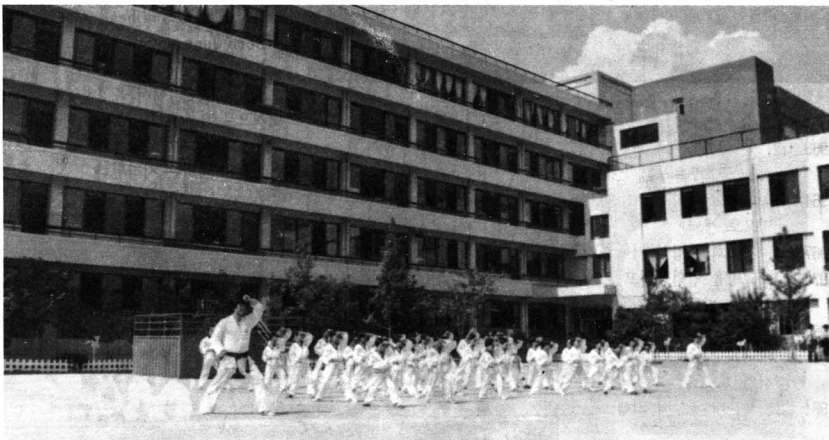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
은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며 살아
가는 것이다.

꾸준하게 쉬지않고 산꼭대기를 처
다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꾸준
히 꿈을 향하여 전진하여 정상을 정
복하는 의지한 꿈을 품고 착실하게
생활하자. 내 힘을 기르는 것이 나
라의 힘을 기르는 길이 되고 통일
을 이룩하는 길이 된다고 강조하신
다.

본교 김종인 교장선생님은 본교
설립시 교감선생님으로 부임하여 71
년에 교장선생님으로 취임, 본교

에서만 20년을 근무하신 분으로
「마음의 제 1인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말씀하셨다.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뽑은 일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
재들이 많이 몰려와 시험을 치루었
다. 그 회사의 사장은 1등부터 10
등까지는 뽑지 않고 그다음부터 뽑
았다. 그것은 공부만 잘하고 성적이
뛰어난 사람이 자칫하면 자기 재
주만 믿고 교만해져 자기 욕심만 앞
세우고 남과 사이좋게 지낼 줄 모르
는 자만심과 이기심을 염려하는 처
사였다고 말씀하시며





교장 김 종 인

-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 직업은 무엇이든 좋다.
제 일인자가 되자.
-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라는 예일 학원



좌로부터 교감 이복림, 교장 김종인, 강주갑 사범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도시사람은 시골사람을 아끼고 도울 줄 알아야 이 다음에 온 겨레를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신다.

본교에는 1968년도에 태권도를 시작하였으며 이렇다 할 성과는 보지 못하였으나, 84년부터 4.5.6학년만 실시하던 태권도를 저학년(1.2.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최근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골학교를 방문, 시골어린이와 비교를 해 보니 체격등위는 본교 어린이가 훨씬 컸으나, 20~30분 교정에서 세워놓고 행사를 해 보니 쓰러지는 아이들이 속출 하였는데, 심각한 어린이들의 체위향상은 물론 정신무장으로 극기훈련에 태권도 수련이 가장 적합하여 적극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목림 교감 선생님과 학부형들이 태권도에 관해 이해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며, 태권도를 하는 어린이의 부형들의 반응이 좋아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용진(4학년 5반) 어린이는 아버지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 7개월이 되었다. 태권도 수련 후, 본인 스스로 달라진 점을 묻자 부모님께 존대말을 쓰게 되었고, 형제간에 사이가 좋게 되었다고 대답하며, 방청소, 자리정돈 등 스스로 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노효진(3학년 4반) 어린이는 본인 스스로 태권도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작을 하였으며, 태권도를 시작후 해가 질 때까지 동네에서 놀던 것을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신집중력이 생겨서 학업성적도 올라갔고 친구들과의 다툼도 적어졌다고 말하며「태권도 수련을 왜 하느냐」는 물음에 건강을 위하고, 정신무장을 위하여 시작했다고 어른스럽게 대답했다. 강주갑 사범이 늘「예절바르고 착하고, 성실한 어린이가 되어야 진짜 태권도 어린이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는 두 어린이가 대견스러웠다.

새로 짓는 새교사에는 체육관을 만들어 태권도부 어린이가 열심히 태권도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태권 어린이의 합성이 전교생에게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문을 나섰다.

좌▶이용진 우▶노효진 어린이





부산 태종대 국민학교

백 덕 옥 선생
(태종국민학교 체육주임)

부산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본교는 1983년 3월 1일 개교한 신설학교로서 18학급에 967명의 어린이가 공부하는 작은 학교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상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라 하겠다.

남해의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고

갈매기떼가 날아드는 오륙도와 국력을 상징하는 온갖 수종선이 드나들며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관광명소 태종대 공원을 옆에 둔, 자연환경이 아름다운곳에 위치한 본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이찬열 선생님은 40여년간을 교

육자로 일생을 바치신 분으로 특히 부산시의 교육 연구 분야에 기여하신 분이 크신 분이다.

83년 3월초 교장선생께서는 직원들과 협의하여 교육목표를 「튼튼한 몸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활발한 기상을 기른다」로 정하였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일 중간체조 시간에 태권도와 육상을 실시하며 튼튼한 어린이로 육성시키기 위해 온 교사가 합심하고 있다.

특히 84년 3월에는 태권도를 교기로 선정하여 체력단련을 물론 정신교육도 병행하여 태권도의 정신을 계도하고 있다.

이 찬열 교장선생님은 태권도를 교기로 삼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튼튼하고 활발한 기상을 실천하는데 태권도 종목이 가장 적합하며,

둘째, 질서있는 생활, 예절바른 어린이로 실천교육을 시키는데 태권도는 어떤종목의 운동보다도 기본체계가 잘되어 있어, 인사성을 빠르게 지도하는데 적합하고,

셋째, 생활환경이 낙후된 어촌 마

울의 어린이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기에 적합한 운동이며;

넷째, 신설학교로서 제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경비와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섯째, 각기 개인운동이면서도 단체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어 협동심을 키울 수 있고 우천시를 제외하곤 운동장에서 여러명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교는 하리 맹호체육관에서 수련한 태권도 어린이를 주축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개인 입상, 준우승 등 좋은 성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으며,

지난 6월 제4회 부산시 어린이 태권왕 선발대회에서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아 본교에서 어린이 태권왕(정진태 6학년)이 탄생하였고 7

월 29일 제9회 부산시 교육감기행탈 단체전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로 단체 우승을 하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직원과 태권도를 하는 어린이들의 사기는 물론, 전교생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350만의 인구를 보유한 부산에서 개교1년 만에 당당히 단체우승을 함으로써 명실공한 태권도 명문으로 발돋움 하였다.

이에 힘입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이 영예를 계속시켜 나가겠다는 체육주임 배덕옥 선생과 한영현 지도사범의 결의가 충천해 있다고 할까?

소년체전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보다 활성화되어 국기도로서의 가치를 높일 날을 기대하며 오늘날 땀흘려 뛰고 있는 모든 사범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경기도 김포군

마 송 국 민 학 교

교 기 태 권 도



교장 이 은 승



교감 조 창 희



감독 이 범 돈

다듬으며 실천하는 생활교육을 목표로!

첫째, 나라를 사랑하고 효도하며, 예절이 바른 애국하는 어린이.

둘째, 학년 수준의 기본 학력을 갖춘 지적 수준이 있는 어린이.

셋째, 부지런히 공부하며 서로 돕는 협동심이 있는 어린이.

넷째, 깊이 생각하고 기능을 익히는 창조적인 어린이.

다섯째, 굳센 정신과 강한 체력을 갖춘 용감하고 건강한 어린이로 보호육성하여 선진조국 창조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함을 목표로 이은승(李殷昇) 교장선생님을 위시한 전 교직원과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달성에 정진을 하고 있다.





지도사범 이 동 한

경기도의 곡창지대인 김포군 통진면 김포평야에 자리한 마송국민학교에 83년 3월 1일자로 부임한 이교장선생님은 43년간의 교직생활에 15년의 교장경력을 지닌 교육자로 인천 서흥국민교 교감시절부터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태권도 수련을 국교에 보급하였으며, 김포 석정국민학교, 파주 교화국민학교 재직시에도 태권도를 교기로 하여 수련시켰으며, 금번 마송교에서는 전교생에게 태권도 수련을 시키기로 계획을 세우고 우선 4, 5, 6학년 전체에게 도복을 입혀 태권도 수련을 시키고 있다. 태권도를 수련한지 1년여간의 변화는 질서의식이 함양되었으며, 조직적인 행동, 행동의 절도와 예의가 타 학교 학생들과 차이를 느낄수 있다는, 국기도(國技道)의 중요성도 있지만 정신교육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이어서 좋으며, 또한 한국의 열(魂)을 심어주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도 손색이 없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고 교장선생님은 말씀하신다.

이외에도 충효사상 및 반공정신 강화를 위하여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홍복어린이동상을 건립하였고, 교내의 환경개선으로 급수난 해결을 위해 지하수 개발, 반공소년 소녀대운동, 축구부 운영, 운동장의 사열대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사비(私費) 50여만원을

태권도 수련은 예절을 바르게하고, 행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하였고, 정의감이 생겨서 옳은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학교에 회사하여 현관과 교장실한 경을 정돈하는등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조창희(趙昌熙) 교감선생님은 말씀하신다.

태권도 교육의 효과를 묻는 기자의 말에 조교감선생님은 타국민학교 어린이들 보다 인내력이있고, 행동의 민활함이 현저하게 보이며 기백이 넘친다고 태권도 칭찬을 하신다. 태권도를 담당한 이범돈(李範敦) 새마을담당선생님은 처음에 학생들은 지루하다고 다소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은 관심을 갖고 학부형들의 호응도가 높아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흐뭇해 하신다. 6학년 2반 임성란양은 태권도 수련 후 건강이 좋아져 행동이 활발해졌고 부모님께 반말(응석으로)을 했으나 운동후에는 경어로 고쳤으며, 인내심이 생겨서 일을 시작하

면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강석운(5학년3반)군은 4학년 때는 가끔 친구들과 싸움을 했으나 태권도를 배운후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고, 밥도 잘먹게 되어진강이 좋아져 부모님들이 좋아 하신다고 말했다.

김진호(5학년2반)군은 태권도수련후 겁이 없어졌고, 말이 거칠었는데 언행이 고아졌다고 자신을 애기하며 사범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게되어 성적으로 상위권에 속하게 되었고 정의감이 생겨서 옳은일에 앞장설수 있게 되었다고어른스럽게 말을 하였다. 넓은 운동장에 도복을 입은 꿈나무들의기합소리는 태권도 내일의 밝은 이정표는 물론, 씩씩하고 튼튼하게 성장함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바람으로 태권도가 마송국교의 발전에 주춧돌이 되리라.



청무체육관



강 영 복
(서울시 태권도 협회
경기분과위원장)

마음도 젊어져서 불의를
보면 나서서 몸으로 부딪힐
용기가 생겼다고...

60세가 넘은 성인들이 태권도 수련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천호동 청무체육관으로 달려가니 6시였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노익장을 과시라도 하듯 흰 도복을 입고 준비운동을 하고 있었다.

본 기자는 운동에 방해 되지 않도록 사무실에서 운동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운동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30여분은 주로 유연성운동으로, 누워서 엎드려서 등의 허리와 복근, 척추와 경추운동등으로 다양하게 짜여져 있었다. 준비운동후 5분여간의 휴식을 취하고 시작한 태권도의 우렁찬 기합소리는 천호동로타리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흰머리에 땀 뻘방울과 매 동작마다 바람을 가르는 듯한 소리는 옛 무도인의 모습이 재현되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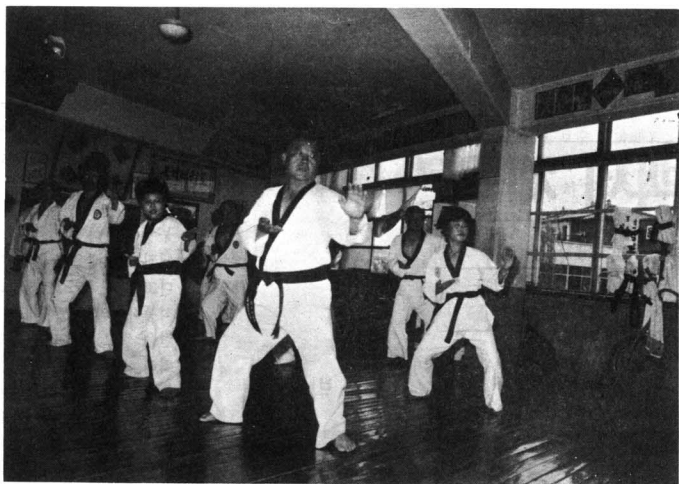
본래의 6시부터 7시30분까지의 (1시간30분간) 수련시간을 본기자의 방문으로 30분당겨 7시에 마치고 대담에 응하여 주었다.

金仁泰(68세 3단, 변호사) 韓熙錫(67세 3단, 연수당한의원장) 李晦植(65세 3단, 연수당한의원부원장) 盧興三(60세 3단, 체육인) 李日煥(59세 2단, 직물업) 李鍾殷(59세 3단, 사업) 沈遠汶(57세 3단, 해성양복점) 金文鐸(57세 3단 공무원) 沈達植(53세 2단, 사업) 李德裕(52세 3단, 사업) 등 10여명이 7~8년수련경력으로 50세이상의 연령이고, 金貞玉여사(40, 초단 무용교사) 鄭修亭여사(38세 2단, 주부) 등 여자 유단자 2명을포함한 30여명이 태권도 수련을 하고있다고 崔起所(38세 3단, 사업)총무는 말한다.

金仁泰氏は 태권도를 한후 잔병이 없어졌고 걸음세가 달라졌다고 말하며, 이젠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어져 매일해야 한다며 신경계통이 발달하여 사리판단이 바르게 되었고 결단력이 생겼으며 부지런해 졌다고 말씀하신다.

韓熙錫氏は 8년전에 몸무게가 84kg을 넘어서 구두끈도 잘 매지 못했고, 조금만 언덕을 올라도 숨이 찰서 쉴때였으나, 지금은 70kg으로 몸이 가벼워진것은 물론, 마음도 젊어져서 불의를 보면 나서서 몸으로도 부딪힐 용기가 생겼다고-





李日煥氏는 당뇨증상이 있는데 운동후 많이 좋아졌고 매사에 자신과 자부심이 생겼으며 젊음이 못지 않게 주먹을 쥐어 보인다.

金貞玉여사는 83년 5월 초단에 승단을 하였다. 도장에서 유치부를 지도하다가 배우게 되었는데 배워보니 힘의 강약조절을 쉽게 할 수 있어 몸이 유연하여져 에어로빅, 리듬체조를 지도하는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예의 범절이 허물어져가는 사회의人間회복에도 도움이 되어 여성헬스클럽에서도 특별지도로 태권도를 지도한다고 말한다.

새벽부를 자원하여 지도하는 金淳會(천호상교사) 사범(5단은매일아침 어른들과 운동을 하니 보람도 있고 또 수련하는 자세가 진지하여 하루도 빠질 수가 없으며, 태권도가 성인운동으로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며 범국민적인 체육으

로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수련생들은 늙어서 굳은 육신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되도록 태권도 지도를 하여준 강영복관장의 꾸준한 정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늙은 젊은이가 있겠느냐? 고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강관장께 감사의 말씀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김일환친목회회장을 중심으로 50세이상의 30여명이 청무체육관 친목회를 결성, 회원간의 친목은 물론 年2회 가족동반 야유회를 개최하여 회원간의 애경사에 적극참여하여 세정의 각박함을 없앤다 한다.

강관장은 성동구 신당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다 70년도에 본체육관을 개관 15년간 이곳에서 태권도 보급에 심혈을 쏟고 있다

입관숫자는 5,300여명 이며, 유품자 1,000여명을 배출하였다.

강관장은 근면함 속에서 태권도를 계속하면 성실하고 보다 선량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신념으로 생활하며 대개의 경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체육관에 나와서 태권도 수련후 건강이 회복될때 체육인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천호동에서 태권도장을 제일먼저 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청무체육관” 하면 인정을 받는 곳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매사에 모범이 되도록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60여개의 강동지구 체육관의 사범모임을 발족시켜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체육관운영협의등 정보교환도 하며 태권도인의 결속을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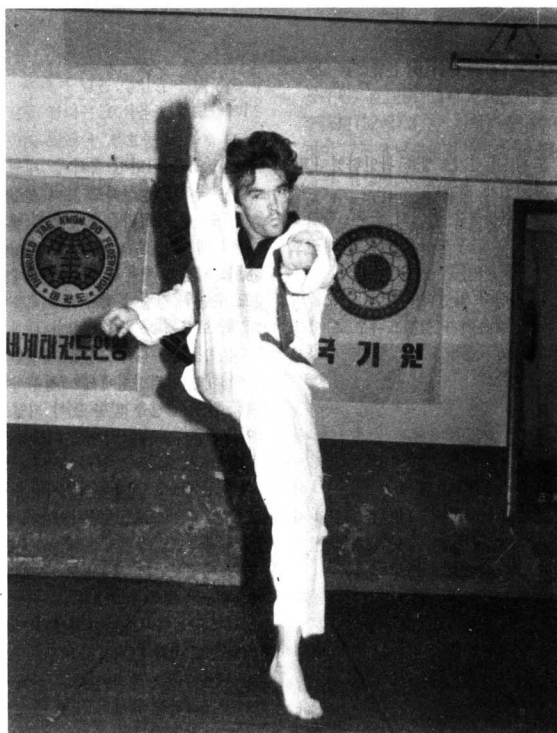
강사범은 지역사회 단체에서는 동부라이온스 이사, 서울시 태권도협회 심사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경기이사(경기분과 위원장)로 참여하고 있다.

심판원은 경기규칙, 심판실기에 능하여야 하며 공정정대하게

백제 체육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5
전화 : 543-2323

관장 박현섭



흘뻐리는 빗속을 헤치고 영동에 자리잡고 있는 백제체육관을 찾아 갔다. 30여명의 체육관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Mr. Ronnie (Ronnie McMillan · 27세) 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땀을 식히면서 몇마디 나누어 보았다. 회계학을 전공한 그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김석봉사범의 지도아래 9달간의 수련을 쌓고 본격적인 태권도 수련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그는 방공의 목적을 밝혔다. 그곳에서의 수련과 이곳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그곳은 많은 수련생들이 있어 개인지도식의 면밀한 지도를 받기 어려웠으나 한국에 와서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개인지도식 훈련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실력이나 기술면에서 급성장하고 있음이 스스로도 느껴진다.”며 처음에는 기술상(technic)의 혼돈이 조금 있었으나 성의있는 지도아래 천천히 매워지고 있다고 만족해 한다. 태권도를 배우게 된 동기를 묻자, 육체적 건강은 물론 근육의 조화적 발달, 정신적 강인함 등을 들으며, 교육적으로도 매우 효과있는 운동이라 말한다. 6주 후(9월 하순경)에 있을 시합연습을 위해 기본품세를 완전히 익히고 뒤돌려차기등 미흡한 부분을 연습한 뒤 9월 초단심사에 입할 계획이라며, 그 동안은 술은 입에도 대지않을 것이라는 등의 철저한 마음자세를 보여 주었다. 또한 사진 찍는 것이 취미여서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기록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으며, 태권도를 관람하는 것도 자신의 태권도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웃는다. 현재는 태권도 배

판정하며 국제시대를 대비하여 언어 습득에 힘써야 한다고...



우는 것 외에도 외국어대학교 영어 강사로 출강중이다. 그를 지도하고 있는 박 현섭관장과 김 동수사범의 자상하고도 관대한 지도에 항상 감사한다며 "They are kind men"라고 연거푸 되뇌인다. 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에게서 수련자의 진실한 모습과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태생인 박 현섭관장은 1960년부터 지금까지 약25년간 태권도 수련을 쌓아왔으며(지금의 충남협회 부회장인 한 문복사범에게 지도받았음)

1970년,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태권도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시 협회 창설 멤버이

자 이사이며, 국제분과위원장 및 '75년부터 국제심판원으로서 자유중국, 에쿠아도르, 덴마크, 싱가포르, 홍콩 등지의 세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국·내외 각종 대회 심판으로 활동하였고, 서울시 협회에 재력있고 역량있는 인사들을 많이 迎入해 태권도 발전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왔다. 충청도 특유의 과묵한 태도는 보기에도 성실하며 근면한 자세로 매사에 임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듯하였다.

체육관 외에도 자신의 사업을 갖고 있는 그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實力을 갖추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기도 했으며, 국제심판의 진실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몇년전부터 어학공부에 열중이란다.

아시아연맹 국제심판 모임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각종 대회 및 심판 보수 교육에도 참여하는등 심판자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듯 했다.

언어, 심판의 규칙, 그리고 심판의 실기의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그는 항상 수련생들에게도 맡은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관훈으로 삼고 있다고 했으며, 정확한 판결을 위해 개인적 인격수련 및 책자를 통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옆에서 김사범은 귀뜸을 준다.

태권도 경기에서 간혹 誤判이 생길 수 있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제도적 장치가 생겨 득점판계 및 판정에 있어 정확함을 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경기시 득점판계에 개선(얼굴공격, 점프등 공중요기공격, 일반공격에의 점수 구분등)이 있다면 경기자들의 훌륭하고 적절한 묘기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더불어 관객의 호응아래 멋진 경기가 펼쳐질 수 있을텐데...크게 아쉬워 했다.

서교동의 서교체육관(1971)과 지금의 백제체육관을 통해 많은 수련생을 배출시킨 그는 아침에 하루 일과를 위한 계획을 설계하며, 사업 및 효율적인 체육관 운영을 위해 장부를 검토하고 체력 및 심신의 단력을 위해 운동하는 것 그리고 회화 공부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라고 덧붙인다.

그의 소망대로 심판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정되기를 바라며 그와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계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체육관을 나갔다.

“원자력 도장”

경남 양산군
고리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의 에너지인 원자력 개발에 박차를 가한지 벌써 십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였던 외국인들도 상당한 인원이 된다.

경남 양산군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많은 외국인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기술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자력 기술개발에 온 정열을 불태우며 한편으로 근무후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며 심신을 단련하는 태권도 수련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김청사범은 1968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외국인 기술자들에게 국기 태권도를 지도해 온 사범이다.

대륙성 기질의 미국인들과 카나다인들을 지도해 보면 그 가운데 프로복싱 유럽선수권을 4년씩이나 지켜왔던 선수도 있고 또, 가라데 도장을 미국에서 경영한 경험이 있는 가라데 유단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근무 당시 수련했다는 검도 유단자들, 미국의 이준구 사범계 태권도를 수련했다는 태권도 유단자

등...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경험하며 이들에게 우리의 태권도를 지도하며 온갖 회·노·애·락을 혼자서 묵묵히 삼켜 이날까지 지켜 왔다.

이들은 사범으로서 마음을 너무 열면 깔보고, 너무 강한 수련을 시키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어 항의를 한다.

120평의 넓은 실내 체육관에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수련을 하고 있다.

1968년 원자력 체육관 초창기 때는 사범과 학생들의 언어 장애는 정말 가슴을 치도록 답답한 일이었다. 그러나 영어 공부를 하루 6시간씩 강행하면서 1년이 지난후 길에서 외국인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생활 영어도 유창하게 터져나올 정도가 되었다. 이제 언어 장애는 극복하였지만 더 큰 과제는 외국인들의 사고 방식과 의식에서 오는 차이가 문제다.

우리가 놀랄 정도의 일은 그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놀랄 일이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언어 소통이 안되고 생활양식이 달라서 적응이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닥쳐더라도 이걸 잘 극복해 나가는 길이 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친절한 행위와 상냥한 표정이다.

그리고는 이말을 항상 사용하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그들을 이해 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시범을 통하여 순간적인 몸을 잘타고 무드에 쉽게 잡히는 그들의 기질을 보다 지속적인 발전과 인내심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두들겨 부시고 공중에 날리는 행동시범의 차원에서부터 올바른 태권도 수련목표를 선정하여 주고 체육학적인 원리와 역사성을 분명히 지도하여야 했다. 체육 지도자는 항상 엄하면서도 상냥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는 엄한 수련으로 시작해서 엄한 표정으로 끝을 내었고 항상 눈빛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으며 위엄으로 끝냈다.

롯데 높은 이들이 이 조그만 사



지도사범 김 청

법에 완전 사로잡혀 비지땀을 흘리면서 수련하는데는 도대체 무슨 마력이 있을까? 본인은 항상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한국에 원자력 과학기술을 전수하고 또한 그에 따른 상당한 보수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일생 일대의 가장 값진 대한민국의 민족 유산인 태권도를 배워서 본국으로 돌아가니 한국에 온 것을 최대의 행운으로 생각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가장 훌륭한 사범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정열속에 훌륭한 사범은 존재한다고 일러준다

사범과 학생의 벽을 허물고 같이 수련하면서 여러분이 곧 나의 사범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같이 땀을 흘렸다. 지금까지 수련한 관원수는 400여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초단(1품) 유단자 83명, 여성 유단자 8명, 2단 6명을 배출시켰다. 다소 인내력이 약한 외국 사람으로서 3년간 수련해 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수련생은 한국에서 3개월 가량 근무하다 보니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향 생각에 빠져 일의 근무 성적이 나빠졌는데 태권도 수련을 한 이후로는 일의 근무성적이 상당히 향상되었고 외국인 간부직 가운데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 30여명이 켜는듯한 무더위 가운데서

도 열심히 수련하고 있다. Hot Summer! Hot Training! 구호를 외치면서.

또 한가지 수련생 가운데 Hutton씨 가족은 아버지와 3아들이 모두 2단씩 보유하며 가족 중합 8단이 되었고, Wood씨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두말이 모두 1단씩 보유하여 태권도 유단자 가족으로서 유명한 집이 되었다.

미국인 자녀들은 넘치는 물질문명과 자유 분명한 가운데서 오는 정신적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게 오늘날 선진국 청소년들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태권도 수련의 결과 극기심을 키워주고 정신 조절과 집중력이 향상되어 말쑥꾸러기 청소년들이 하루 하루 정의파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으니 외국인 학부모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 지고 있다.

원자력 도장에서 2달에 한번씩 급급심사를 실시하고 1년 6개월된 자에 한해서 유단자 예비심사 자격을 주고있다. 예비심사는 자체적으로 보지만 아주 엄하게 실시하고 있다.

유단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산시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인심사에 응시하기 2주 전에 예비심사를 실시하는데 심사내용을 보면 실기 심사외에 필기심사도 실시하고 있다. 실기심사에서 격파 3종류 태극품세 4.5.6.7.8장을 그리고 겨루기에는 한번겨루기, 세번겨루기 뒤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는 뒤돌아겨루기, 자유겨루기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당부하고 싶은 본인의 소견은

각 시도 지부에서 실시하는 공인심사는 너무 쉽고 보는 이로 하여금 무슨 심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하다. 품세

1분 정도 겨루기 1분 정도로 어떻게 응시자의 모든 기능과 정신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

또 한편 어떤 외국인은 본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태권도는 어린이들만 하는 스포츠이냐? 혹시 이거 우리가 잘못 시작한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본인은 대담에 공색스러움을 느낀다.

공인심사의 80~90%가 어린이 수련생임은 사실이므로...그 대답을 본인은 성인들은 직장에서 군부대에서 대학교에서 수련하고 있다고...변명을 하곤 한다. 본 도장에서는 심사 때 반드시 학교장, 담임선생님 추천서와 각 직장장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항상 반대파를 만들어서 중상모략하는 수련생도 있고 사범에게 정면 도전해 오는 제자들도 있다. 훌륭한 사범은 불평 불만 중상모략에서도 결코 침착성을 잃지않고 주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외부로 들어오는 끊임없는 불쾌한 소식과 도전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무기는 바로 “성실”이다. 내가 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호신술인가?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강한 호신술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지금껏 이들에게 무엇을 지도하였는가? 이러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이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걸 알아야 한다. 오늘도 조용히 침묵을 깨고 하얀 도복 하나로 세계를 향한 사범의 눈빛은 번뜩이면서, 수련에 수련을 거듭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피하는 것도 좋지만, 태권도 수련으로서 더위와 맞싸워 보는 것도 훌륭한 피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맹호 체육관

한영현 사범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720-1)



부산 영도의 동남쪽 동삼동에서 바다로 길게 뻗은 태종대(太宗臺)는 부산의 명승지이다.

울창한 수림과 기암절벽, 남단 백길 벼랑위에 서 있는 등대는 해금강을 연상시키는 절승의 감을 준다.

태종대란 이름은 신라 태종의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한 후 회심의 휴식을 취한곳이 바로 이곳이고 또그의 유적이 있다는데서 유래되어 일명 신선대(神仙臺)라고도 일컫는다.]

이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멀리 는 오륙도 가까이는 아침섬(朝島)이 보이고 날씨가 맑으면 현해탄 물결 너머로 신기루처럼 부각되는 대마도까지도 볼 수 있다.

부근에 있는 주전자 섬은 순 바위섬으로 바다 낚시터로 유명하며 일광욕 하기에 안성마춤의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광의 명소 입구에 자리한 맹호체육관은 태종대 국민학교생을 주축으로 운영하는 관원 100여명의 체육관이다.

관장 한영현사범은 충남 대천의 美8軍에서 7년여 (68~74년까지) 외국인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였고, 뒤(한덕현사범)님이 운영하는 동삼체육관에서 6년여 체육관 운영을 익히고 이곳 맹호체육관을 개설한지 3년여.

한관장은 근검, 절약을 생활신조로 오늘도 열심히 땀흘리고 있다.

외관으로는 관광명소에 자리한 체육관이나 지역의 주민은 극소수를 제외한 사람외에는 어업을 주종으로 생활하고 있어, 양친이 새벽에 별 보고 집을 나갔다가 별보고 집에는 어린생활이다. 체육관에서 생활의 모든면까지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는 부모역할까지 담당하여

야 하므로 정신적인 측면의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신설된 태종대 국민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84년 여름방학이 끝나면 태권도부를 창설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이찬열 교장선생님과 배덕옥체육주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4회 부산시 태권도 어린이 선발 대회에서 정진태(태종대 6학년) 어린이가 우승은 물론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였고, 이광수(태종대 6년)군은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생활부장을 맡아 학생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태권도 어린이들이 모두가 모범생으로 칭송이 대만하다고 자랑을 한다

86 시안 게임의 확정으로 소년체전에 국민학교 태권도가 정식종목 채택 당면함으로써 내일의 태권도의 전망은 밝다 하겠다.

강성 종합체육관 개관

연예인 **조 춘**

영화에서 주로 악당역으로 명성이 높았던 영화배우 曹春氏가 화곡동에 종합체육관을 개관 후배 육성에 힘쓰고 있다.

운동을 즐겨하는 그는 Y.M.C.A.에서 태권도를 시작, 아마레슬링, 유도등 각종운동에 일가견을 가지고 시범을 보일 정도—

1958년 영화계 투신 81년까지 영화계에 있다가 81년 10월 MBC T.V에 전속되어 주로 악한역 할을 하다가 83년부터 뜻한바 있어 어린이프로인「뽀뽀」 「모여라 꿈동산」등에서 어린이들과 가까이 살고 있다.

3월 15일 체육관 개관식에는 동리 노인 어른 150여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열었다. 그의 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큰 규모의 체육관을 만들어 체육진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



그는 6월 11일 국기원에서 거행한 서울시 태권도 대회에 태권도부 관원을 출전시켰다.

어린이들을 태권도의 정신적인면을 중히하여 육성 하겠다면서,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기초행동 교육을 중시하는 조춘 연예인에게 우리모두 격려를 보내자.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병역

의무특례

(면제혜택)

본회에서는 1983년 1월 21일부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의 입상자(1.2.3위)들에 대한 「병력의무 면제」 혜택을 대한체육회 훈련과에 제출하여 84년 1월 27일까지 12명의 선수가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84년 8월 27일 8명의 선수를 추가 상신함으로 20명의 태권

도선수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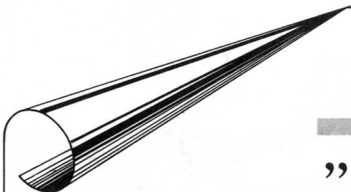
병역 특혜자 명단

박천재, 윤준철, 하용성, 정찬, 여성기, 장명삼, 이동준, 정국현, 양기모, 오일남, 광동수

84년 1월 특혜자 이재봉

84년 특혜대상 신정차

전용환, 한재규, 최광근, 한홍식, 최천, 문종국, 권기문, 고정호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 규 인
(본회 홍보실장)

옛부터 「人生은 한 조각의 뜬 구름과 같다」고 하였다. 조물주의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승을 하직하기 마련이다. 人生은 永生不死하는 것도 아니며 固定不變하는 實體를 가진 것도 아니다. 이러한 人生事에는 미움도 많고, 미움에 얽힌 원한 또한 많다. 어디 이뿐이라.

주위를 한번 돌아보자.

공연히 남의 단점을 힐 뜯는가 하면, 비웃고, 입을 모아 바보로 만들기 일쑤이며, 본인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도마위에 올려 놓은 생선을 만들기가 일쑤다.

이러한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yes man이 되어 비위를 맞추는 아첨꾼이 되고 돌아서서는 콩이니 팥이니 하는 식의 도토리 키재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아닌가고, 가까운 우리 武道人 주위를 돌아 보자. 故 이 병로관장, 배영기관장 두 분은 태권도계의 정상 의 위치에서 태권도 발전에 혼신을 다하신, 태권도로 일생을 마친 분들이었으나...

이승을 하직할때는 얼마나 허무하게 떠나셨는가?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이으나, 정승 죽은 집에는 문상객이 없다”는 속담에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선사범들의 미래를 '84년 이억만리 프랑스에서 고인이 된 30대의 이 만우사범은 태권도 지도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 하였다. 이렇듯 이승을 하직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측을 불허하는 일이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이승을 하직하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이야기가 실감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남을 힐 뜯고 약한 자를 짓 누르고 편당만 짓고 싸움만 하며 남이야 어떻든 내 편만 한 대로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아니면 칭찬하고 양보하고 협동하는 마음의 자세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입으로만, 태권도는 君子의 무술이니, 君子의 정신이니 등등을 운운하고, 실제의 행동에서 언행일치가 되고 있는가—.

태권도인 여러분!

남의 일에 개의치 말고 스스로의 허물을 찾아 反省하여 봅시다. 우리는 태권도의 주인이며 많은 제자를 육성하는 先鋒者들이다. 이러한 자각과 사명감으로 정진할 때, 우리 태권도는 발전하고 태권도인이 영구히 生存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무도인 사이에 信義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가 된다. 태권도는 이제 國技道로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무도로서, 스포츠로서 자리를 굳혔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태권도인만큼이라도 신의를 지키고 정의를 옹호하기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하겠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어른’들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어른’은 몇 안 된다고 한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떠 생각다」(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된다는 말)는 속담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잃어진 권위를 찾고, 더불어 진실한 무도인되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삶 속에서 보람과 긍지를 찾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다.

競技力 향상연구年金 확정

국민체육진흥재단은 9월 11일 정
기력 향상연구기금 지급대상에 태
권도의 5개 종목의 우수선수를 추
가하였다.

이로써 체육회 가맹 37개 단체중
국제대회가 없는 씨름과 국궁은 제
외한 35개 단체의 소속선수가 대상
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추가된 6
개 종목의 연구 기금은 기존종목과
차등을 두어 지급된다.

올림픽 기존종목의 경우, 세계선
수권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평점이
30점이나 이번의 추가종목은 10점
으로 평점을 매김으로써 최소한 세

계선수권대회를 두번 이상 제패하
여야 동장에 해당하는 연구기금(20
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 태권도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얼굴들은, 김종기
(은장) 허승(동장) 김상천(동장)
최정도(동장) 유영합(동장) 정국현
(동장) 박오성(동장)등 7명이다.

— 체육연금 수혜자 「프로필」 —

1. 성명(생년월일)
2. 출신도
3. 연금대상대회경력
4. 연금액
5. 현직



1. 김종기(1960. 6. 26일생)
2. 충청남도
3. 1977. 9. 17. 제3회 세계태권도대회 밴텀급 우승
1978. 10. 28. 제4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밴텀급 우승
1982. 2. 27. 제5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밴텀급 우승
4. 평점 30점(月 30만원)
5. 경남 태권도협회 코치



1. 김상천(1959. 6. 27일생)
2. 경기도
3. 1979. 10. 28. 제4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미들급 우승
1982. 2. 27. 제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미들급 우승
4. 평점 20점(月 20만원)
5. 성균관대학교 재학



1. 허승(1950. 11. 8일생)
2. 서울
3. 1975. 8. 31.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미들급 우승
1977. 9. 17. 제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미들급 우승
4. 평점 20점(月 20만원)
5. 군인(육군 공병)



1. 최정도(1952. 1. 28일생)
2. 서울
3. 1973. 5. 27.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급 우승
1975. 8. 31.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급 우승
4. 평점 20점(月 20만원)
5. 개인업



1. 유영합(1954. 5. 17일생)
2. 서울
3. 1977. 9. 17. 제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웰터급 우승
1975. 8. 31. 제2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웰터급 우승
4. 평점 20점(月 20만원)



1. 정국현(1962. 3. 15일생)
2. 전라남도
3. 1982. 2. 27. 제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 미들급 우승
1983. 10. 23. 제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 미들급 우승
4. 평점 20점(月 20만원)
5. 84년 한국체대 출



1. 박오성(1958. 12. 4일생)
2. 서울
3. 1979. 10. 28. 제4회 세계태권도대회 라이트급 1위
1982. 2. 27. 제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라이트급 1위
4. 평점 20점(月 20만원)
5. 태권도사범(해외)



◀ 김윤용 회장과 담소하는 멕시코 태권도팀

멕시코 내한

멕시코 태권도팀은 한국 중·고연맹과 82년 자매결연을 맺은후 친선방문을 하였으나, 사전협의가 정하지 못하였고, 또 연맹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회장 유고관계등) 대한태권도협회의 전격지원으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서린호텔에 유숙하고 12일부터 17일까지는 체육부의 지원으로 방한 수련을 모두 마쳤다.

이들은 10일간 체류하며 국립묘지 참배 (7일), 미동국교방문 시범관람 (8일), 대한태권도 협회 국기원 세계연맹방문, 동대문상고 태권도팀과 친선수련, 민속촌 관광등 바쁜일정을 보냈고 (9일), 국회의장 예방, 경희대학교 (수원)방문친선시합 (10일),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방문, 경찰대학방문 (용인) 등으로 11일의 일정을, 7월 12일에는 판문점, 13일에는 체육부장관 오찬, 잠실종합운동장견학, 14일에는 한국체대 태권도부에 친선경기, 태능선수촌 견학, 16~16일에는 김천시경주관광,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포

항 종합 체철을 견학하고 17일 출국하였다.

일행 23명은 한국 방문의 모든 상황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한다 고 이석원 사범은 전하며, 경희대 태권도학과 선수들과의 친선경기와 직접보고 느꼈으며 시합에서는 몇 선수가 K.O

되는 등 태권도의 스포츠로서의 진면모를 체험하였다 한다.

또한 이들은 무도 태권도와 스포츠 태권도의 연관 관계에서 이어진 무도정신에의 예의 범절등, 정신적인 측면을 배웠다고 이사범은 평가하였다.

또한 멕시코의 이사범은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범단을 9월중 초청



태권도팀 수련

이 석 원 사범

할 계획이며 10월에는 브라질 국제
경기에 출전하는 국가상비군팀을
멕시코에 초치 5 개주를 순회 시범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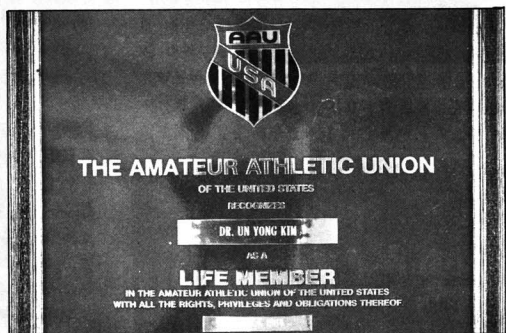
또한 런던에서 개최될 85년 세계
대회를 대비하여 한국에 선수들 파
견하여 수련할 계획등으로 부풀어
있다.

급작스러운 방한으로 어려운 여
건속에서 멕시코 선수단을 돌보아
준 한국협회와 체육부에 감사함을
안고 귀국하였음을 지면을 빌어 인
사드린다. 본회에서는 멕시코 태권
도 발전에 기여한 이사범에게 김운
용 회장을 대신하여 황훈성 전무이
사가 공로패를 수여하여 공을 치하
하였다.

황훈성 전무이사가 공로패를 ▶
수여했다.

미국 체육회 평생 정회원 추대

본회 회장이며 세계태권도연맹총
재인 김운용 박사(法学) 1984년 6
월 4일 미국 체육회로부터 평생
정회원으로 추대되었다.



미국 L.A. 충 효태권도학교



정 중 오 사범

'84년 부활절 주일 태권도 발표회 -

“충효사상과 신앙정신”을 지도이 으로 1983년 8월 에 문을 연 로스엔젤레스 “충효 태권도 학교”는 '84년 부활절 주일을 맞아 L.A. 한인타운(Korea Town)소재 나성 한인 침례교회(담임목사 김 동명)에서 교회사상 처음으로 교회내 설교강대 위에서 태권도 연무시범 발표회를 가졌다.

교회 한국학교 어린이들의 고전무용, 성경구절 암송, 합창등의 발표에 이어 충효 태권도 학교의 아동부 20명은 정 중오사범의 지도아래 태권도 연무시범을 보임으로써 성가·성극등과 같은 무도시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정 중오사범은 자신이 창작한 태권무용 품세 “정의 힘-십자가”를 품세음악에 맞춰 시범을 보이고 한 본 겨루기와 대단검 방어, 대몽둥이 방어등 각종 호신술 시범과 발차기, 손날, 주먹, 고축, 장애물 격파등을 종합하여 여러곳의 격파물을 순식간에 격파하는 8 방 연속격파등을 시범보여 대갈채를 받았으며, 20명의 아동부원의 기본동작과 8 패품세 시범, 약속 겨루기등 비좁은 설교강단에서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한 시범을보여 이날 모인 400여 교인들로부터 대호평을 받았다.

태권도의 올바른 보급을 위해 정사범은 코리안 스트리트 저널(The Korean Street Journal)誌의를 독자 소개란을 통해서 “태권도 정신과 자녀교육” 그리고 “国技 태권도의 올바른 理解”등을 투고하기도 하였다.

●충효 태권도 학교의 연역

1983. 8. 1. 미국 로스엔젤레스 한인 레크레이션 센터에 개관.
4. 16. 벤츄러 카운티(county)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태권도 격파시범 보임.
1984. 4. 22. 부활절 주일 특별 태권도 발표회(L.A. 한인 침례교회, 교회사상 처음으로 교회내 설교강단에서 연무시범)
6. 8. Y.W.C.A. 너서리 스쿨(nursely school 유치원) 한국의 날에 태권도 격파 시범.

현재 정사범은

1983. 재미 한인 지압협회 사무총장.

현재 South Baylor University 한의학과 대학에서 O.M.D. (한의사) 과정중.

주소 : Jong oh chung

1222. S. Berndo ST.

L. A. CA90006.

U. S.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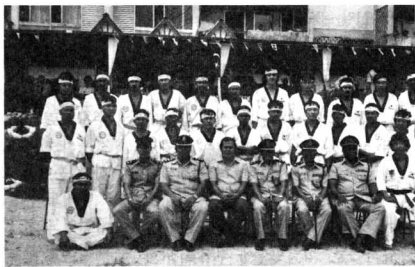
말레이시아 왕실 및 경찰국 지도사범 박 호 원



박호원 사범은 '82. 2. 14. 말레이시아 정부 기술 훈련소의 태권도 교관으로 파견되어 약 1년 6개월간 ('83. 8. 31)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83. 9. 1부터 현재 말레이시아 국왕인 Johor 주왕의 경호대원 및 경찰국 정보와 간부요원을 지도하고 있다.

(수련생 왕실 경호대원 150명, 경찰국요원 40명이며, 말레이시아 14개 주 중 8개주만이 왕이 있음, 그들은 각기 5년간의 임무로 직무를 맡고 있다.) 조호르주왕이 국왕 직무를 맡은후 제 1왕자가 조호르국왕 직무를 대행하면서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박사법을 정식 태권도 교관으로 위촉하고, 왕실의 모든 경호대원들이 검은띠의 실력을 갖출 때까지 지도하여 달라는 당부와 함께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서 태권도 현황과 이모 저모를 보고 싶다고 한다. 8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가차 귀국하여 세계연맹을 방문,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왕실 및 경찰국 태권도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김 운용총재로부터 조호르 주 왕자와 경찰서장의 명예 회원증을 받아 7월 17일 출국하였다. 경찰국 태권도

클럽 발족 당시 적극 추진하여 지원하던 전 조호바루 시 경찰서의 하산서장이 말레이시아 연방 경찰국 총기 동 대장으로 승진하여 가고 후임으로 온 함필서장 역시 태권도에 관심이 지대하여 현재 배우고 있는 경찰 요원들이 유단자가 되면 모든 경찰서 직원들을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케하여 기초과정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겠다고 하며 유단자 과정은 박사법



에게 지도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그간 경찰 체육의 날과 경찰의 날, 두차례에 걸쳐 그동안 경찰들이 배운 태권도 시범을 보여 많은 인기를 얻었다. 시범 때마다 사회자가 Republic of Korea라고 소개할 때는 쿷등이 시큰해지면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더욱 굳어져 모든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날까지 개인의 영리를 떠나서 조국의 명예와 태권도 보급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있다.



주소 : JOHOR MILITARY FORCES,
JOHOR BAHRU,
JOHOR, MALAYSIA.

자택전화 : 073-33-3377

사우디 국가 대표팀



이 의 빈 사범
(대림산업리아드지점장)



지도사범
임 종 선

사우디 협회에서는 태권도 국가 대표팀 15명을 우리나라에 파견, 8월 11일~31일까지 3주간 체류하며 훈련을 하였다. 오전에는 유도대학 태권도부와 평생고교, 인천체전, 한국체대, 동성고교, 성동상업학교 등 태권도의 명문교를 고루 순회하며 실전을 쌓고, 오후에는 태권도의 「메카」(mecca)인 국기원에서 기본기와 체력훈련을 실시하며, 오전 실전에서의 미비점을 간추려 연습하는등, 실력향상에 전력을 다하였다.

ABDULLAH. JARALLAH (사우디 체육부 국장급)를 단장으로, 지도사범 임종선, 사우디 트레이너 TARIK EAWAWI(사우디 태권도협회사무장)등 임원 3명과 HATIMJ.M(선수, 약대 3년생)을 주장으로 15명의 선수가 사우디 체육부의 지원으로 롯데호텔에 기숙하며 훈련을 하였다.

태권도의 불모지에 태권도를 보급하였고 U.P.M.석유 광물대학에 태권도를 보급한 李 義彬(대림산업 리아드 지점장) 사범의 초청으

로 현 사우디 대표팀을 맡게 되었다.

또한 李義彬 사범은 U.P.M. 대학장의 도움으로 가라테와 유도만 속해 있는 협회에 태권도 협회가 구성되도록 주선한 장본인 이기도 하다.

(지면을 빌어 이사범께 감사를 드린다.)

임사범은 현재 사우디협회 기술위원장으로서 품세교육, 경기지도, 심판교육, 협회 연간계획 등을 수립하며 국가 대표팀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단장 ABDULLAH. J는 사우디 정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협회 임원이며, 태권도에 관심이 대단하다.

그는 태권도 보급발전을 위해 몰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가라테보다 2년 늦게 보급된 태권도를 발전시켜서,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앞질러 갈 수 있게 되도록 힘써준 분이라고 임사범은 말했다.

트레이너 TARIK. E는 사우디협회 사무국장으로, 국제심판등 태권





도 실무자로 활약하며, 태권도를 각급 중·고등학교 대학등에 보급하여 가라테를 능가함은 물론 20만명 정도의 인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장 HATIM. J. M 선수는 태권도 경력 4년여로 83년 세계대회에 출전 8강에 진입했었고 84년 대표로 다시 선발되었다.

「한국의 인상에 대해 묻자」

모든 사람이 친절해서 체류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 한번 와 본 사람이면 다시 찾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중주국에서 태권도 수련의 느낌」을 묻자 중주국 사람들답게 모두 태권도를 잘 한다.

세계대회에 출전한 선수들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모두가 훌륭한 선수들 이라고 표현하며 세계대회 우승 팀의 나라답다고 답하며, 지도자 교육등의 현장을 보니 더욱 중주국인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와서 운동을 하게된 것을 매우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지훈련에서 어려웠던 점」은 ?

겨루기 연습시 한국선수의 머리 회전 (판단력 및 임기응변)이 빨라서 다루기가 어렵고 빠른 연속 동작을 배우기가 어려웠고 정확한 동작을 완전하게 하느냐고 고생을 했

다고 토로했다.

「한국의 태권도를 보고 지적하여 개선해야 될 곳이 있다면」……

사우디의 태권도 역사가 짧고 또 본인인 태권도 경력 4년에 감히 무얼 어떻게 얘기하겠느냐…?고 겸허하게 답하며 본기자가 사진을 찍고 인사를 하자 「사우디 태권도 발전을 위해 수고해 준 여러 사범님과 체류기간에 친절히 도와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를 하였다.

임사범은 제 7회 세계대회에서는 중주국에서 수련한 보람을 찾을 것이며, 사우디에 체제하는 사범들의 노고를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리며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보다 정확하게 보급하여 현지인의 덕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하고 승단임사가 단일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며, 개인적인 차원을 승화하여 대義의인 사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지 훈련단 명단

*HEAD OF TEAM

ABDULLAH JARALLAH (사우디 체육부장급)

*INS; LIM-JONG SUM (한국사범)

*ASS; TARIK EAWAWI (사우디 협회 사무장)

*PLAYER;

1. HATIM J. MUKHTAR (주장 약대 3년)
 2. MOHAMMED A ALMUBARAK (고등학교 재학중)
 3. NABIL HVSAIN ASHRI (외교관 교육중)
 4. AMER A ISMAIL (석유광물대 3년)
 5. ASHRAF J ASHI (체대 2년)
 6. AMR H AYYAF (건축과 3년)
 7. RAFAT A EDREES (체대 2년)
 8. SALEH K ALHARBY (석유 광물대 3년)
 9. FAHAD S ALDOSARI (경찰)
 10. MESAED S ALDOSARI (경찰)
 11. HBNI K NAJM (외대 졸업반)
 12. ABDVLMOHSIN M ALKE-RESHI (경찰)
 13. ZOHAIIR J ALMARHOON (고등학교 재학중)
 14. SHAFI M ALBISHI (군인)
 15. SHAIL M ALSVBIEE (군인)
- SASHIR; MOHAMMED ALQVEAIM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共同利益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일선의 영달과 안 일을 위해 공과 사를 구분하여 업무수행하여야 발전을 할수 있음을 명심하여 고생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홍보실)



허영사범

페르샤灣

카타르 왕국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페르샤灣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카타르(QATAR)는 西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南쪽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U. A. E.)와 접하고 있는 석유 산유국으로서 1971년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왕권 군주국이다. 세계 석유 공급의 60%를 담당하는 페르샤灣의 연안국인 이란, 이라크의 전쟁의 확산조짐에 당사국은 물론, 전세계의 우려와 관심사가 되고있다. 전쟁과 열대의 무더위 속에 태권도가 카타르에 상륙한지 2년여, 착실히 보급 발전하고 있다.

년중 낮 기온이 45~50℃로 사막의 열풍과 황사현상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생활한 허사범에게겐 악조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민소득은 12,740\$로 세계의 2위의 富國으로 천연가스(gas) 매장량은 세계 1위로 85년부터 생산계획이라니 가향 하늘의 은총을 받은 나라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의 수도 도하(Doha)는 인구 50만(원주민 25만 3국인 25만정도)이 거주하고 있으며, 스포츠 클럽은 민간주도의 12개소에 농구, 배구, 탁구등 24명의 한국인 코치가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 교환경기 및 국제경기 등으로 체육분야에 관심이 지대하며 아시아, 오세아니아洲 Olympic에 축구가 출전 A조에서 우승하는 등 스포츠에 열심이다.

태권도는 현재 군부대만이 수련하고 있으나 '앞으로 민간 스포츠 클럽과 경찰에 태권도 보급이 인가가 되면 최소한 10여명 이상의 한국사범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군 참모총장(QATAR, Olympic president)과 군스�포츠 사무총장(현병 총사령관)은 태권도에 관한 열의가 대단하여 허사범은 몇 개월간의 개인지도로 태권도의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어 인접국가의 경우를 보아 민간인 보급이 곧 이루어 지리라는 기대하에 열심히땀 흘리고 있다.

문교성에서도 한국사범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곳은 오후 1시에 모든 활동을 중지함으로(더위 피하기 위해) 활동시간이 짧고, 종교, 지역마다 풍습 등이 다른 물론, 타인과의 사고도 全無하여 외롭기가 그지없다.

그러나 태권도보급, 국위선양이라는 명제아래, 외화 획득이라는 경제성까지 감안하여 참고 견디고 있다.



해외 계약파견된 사범들의 공통된 화제로서, 다소 문제는 있으나, 언젠가는 교체를 하여야 함에 임무교대를 위해 파견을 희망하는 국내 사범들의 준비의 필요성을 든다면, 충분히 태권도의 技倆을 연마함은 물론 영어 및 주재국 언어의 습득, 취업국의 풍습등을 숙지하는 등으로 취업기회가 있을 때 즉각 응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HARRISBURG PENNSYLVANIA

김 일 회 사 범



김사범은 73년 한국에서 개최한 세계 제 1회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미국동부(east) 코치로 선수들을 데리고 참가, 그외에 입상하였고, 75년도에는 로우돌핀(LOWER DAUPHIN) 고등학교의 2 - 3 학년 체육 정규과목으로 태권도를 채택케 하였으며 임시고사자격증을 받아 태권도를 지도하여 한국민족의 능력 및 우수성을 고취시켰다.

PA(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당선 축하연에 태권도 시범으로 국기태권도를 널리 선전하였고 매년 실시하는 세계민속 축제에 김사범이 지도하는 체육관원들이 시가 행진을 하며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데 주행사에 적극참여하여 더 던 버그(DICK THAUN BERG) 주지사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하였다.

1971년 태권도 사범으로 Harrisburg Pennsylvania (하리스버그 펜실베이니아)에 도미하여 14년간 태권도 보급에 심혈을 쏟고 있는 김사범이 일시 귀국하였다.

김사범은 1977년 시민권을 받았다.

14년간 태권도 지도를 한 관원이 4,000여명에 달하며 유단자 배출이 50여명(이곳에서 3년수련후에 초단에 응시함)에 달하며 현재 100여명의 자가 체육관에서 200여명이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김일회 사범의 생활신조는

원칙과 정직을 최우선으로, 할수 있는 능력껏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겸손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승급, 승단심사시 늘 제자들에게 이러한 신조를 고취하여 개인주의가 만연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색있는 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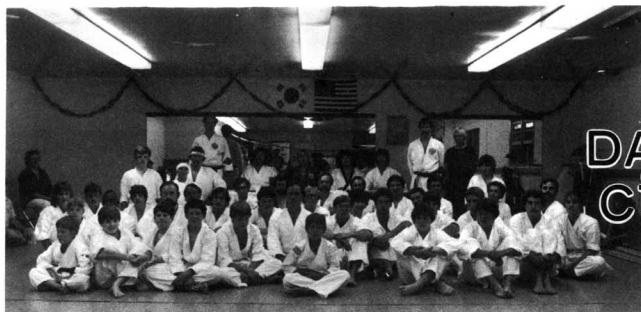
운영 및 관원관리로 10년이상 운동을 계속하는 유단자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체육관 운영방식에 있어서 일체의 증명서를 종주국인 세계연맹을 통해 국기원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외에는 일체 발급하지 않고 원칙을 준수하며 따르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 특히 미주지역에 파견된 태권도 사범은 어떤형태의 사범이든 지역내의 유지로써 열심히 살고 있으며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하였다.



Kim Studio Tae Kwon Do 1984



DANBURY CT. U.S.A

송영길 사범

「유단자 선서」

1. 나라에 충성한다.
2.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이든 사람을 존경한다.
3.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보호한다.
4. 친구간에 신의를 지킨다.
5. 정의를 위해 살며 불의를 없애기 위해 투쟁한다.
6. 도장 규율과 협회의 「물」을 잘지키고 따른다.
7. 스승을 존경하고 지도에 순응한다.
8. 후배 양성을 위해 적극 참여한다.
9. 도장과 협회를 위해 일한다.
10. 본인이 수련한 무도정신으로 사회에 봉사한다.

1974년 가족 이민으로 도미한 송 사범은 「Ohio 주」에서 태권도를 보급 5년여—

80년도에 현재의 「DANBURY 주」에 체육관을 개설 태권도 보급에 심혈을 쏟고 있다.

송사범은 「眞實과 誠實」로 모든 것에 임하면 조금은 늦더라도 보람을 찾는다. 는 생활신조로 「스포츠」보다는 무도 태권도에 주력을 하는 사범이다.

태권도(무도) 수련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어떤 것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만큼의 상응한 예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 무도수련은 하여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아니다. 누구나 건

강한 생활을 원한다. 무도 수련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고한 중심을 만들어 주어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준다.

무도를 한사람들은 40~50세가 되어도 30~40대로 볼 정도로 10년정도 젊게 보인다. 40대 태권도 사범들이 20대의 청년들과 맞먹는 건강과 정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령, 10년 젊어진다고 하면, 이 10년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설혹 젊어진 않더라도 같은 나이로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만으로도 수련에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송사범의 체육관에서는 유단자가 되면 「유단자선서」를 한다.

「나는 위의 선서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배하였을 시는 유단자의 자격을 박탈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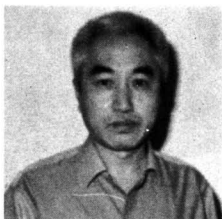
이렇게 유단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록 지도를 하고 있다.

스포츠로서 I. O. C. 승인까지 받은 태권도가 무도와 스포츠의 병존으로 세계속에 뿌리내려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잘 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바람직하게 발전하기를— 아니 발전하도록 연구를 거듭하여야 하겠다.

. 주소 : YONG KIL SONG 28 NORTH STREET DANBURY, CT 06810
U S A.



의사가 본 태권도



세계 각국에서 태권도 보급을 위해 피나는 각고를 견디어 내는 사범들의 노고를 중주국에서는 더 깊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서서 보아야...

조 장 원 선생
(세계태권도연맹 의료위원회 부위원장)

1965년 취업 이민으로 스웨덴에 정착한 조장원선생, 조선생은 195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군 의관(軍醫官)으로 5년간 근무하고 일반의과 의사로 근무중 스웨덴으로 취업한 경우이다.

그는 큰 아들 조용호(4단, 스웨덴 태권도협회 임원)의 관계로 태권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금은 세계 태권도 연맹 의료 위원회 부회장(회장, 안대선(미국인))직을 맡아 각종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10월 말경에 구라과 대회에 참석하여서 의료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다.

유럽 쪽에는 가라데가 정착한 지 50여년이 되었고, 태권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15년여가 되어서 아직도「KOREA KARADE」의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5년여 전부터 「태권도」의 발음을 입으로 옮길 수 있는 정도로 보급 발전되고 있다. 일본의 가라데, 유도과 태권도가 대치한 상태로 보면 무관 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이제 Boxing, 유도, 가라데등에 권태증이 생길때가 되었고 이 기회에 태권도가 알차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도, 가라데, 복싱에 비해 태권도는 다양성과 스피드가 있고, 전신을 이용한 발차기 기술과 무도로서의 위력(격파)은 동양체육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훌륭한 매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는 세계대회, 구라과 대회 등 각종대회의 참가로 외국여행을 할 기회가 주어짐 또한매력의 하나라고 보겠다.

각기 나라의 특성있는 상태가 있어서(나라의 규모 정치적인 견해등)이렇다할 종합적인 평가는 어려우나, 국제태권도연맹이 선정한 구라과쪽에 차츰 세계태권도연맹이 자리함은 우리 사범들의 피나는 각고의 결과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가라데와 태권도의 비율이 5 : 1 정도로 태권도가 열세이나 사범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 두곳씩 자리를 잡고 있

며, 보다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국가원이나 세계 연맹에서의 기술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세계 각국에서 태권도 보급을 위해 피나는 각고를 견디어 내는 사범들의 노고를 중주국에서는 더 깊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서서 보아야... 하겠다고 말하는 그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태권도 경기는 부상이 적지 않은 체육으로,대소 시합을 막론하고 의료진 입회가 필요하며,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 예방, 감독, 치료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처럼 태권도 보험이 국내에도 양성화 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태권도에 관한 의료 서적도 발간되어 태권도인 누구나가 이용하는 예방 치료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태권도 의료서적출간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속에서 성장하는 태권도의 취약점을 보완 더욱 견고히 자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객관적 입장의 조선생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어 보았다.
(홍보실)

제 1 회

전 일본 선수권



千 葉 拳二郎

(일본태권도협회理事)

일본 태권도협회에서는 1984년 8월 12일 仙台市에서 국민학생, 중학생의 태권도 경기를 가졌다.

본대회에는 安井謙(일본태권도협회회장, 참의원 의원, 자유민주당 최고 고문)을 대회장으로 선수 483명이 참가 하였다.

본대회 위원장인 千 葉 拳二郎은 본 대회시 세계연맹 김충재의 축전을 받고, 답례겸 종주국의 태권도를 보다 깊이 이해코저 내한하였으며, 또한 일본 소년 소녀 태권도 팀과 한국의 국민학교 태권도 팀과의 자

매결연으로 친선경기를 갖고져 함이란다.

현재 일본에는 태권도가 계속 보급 확대되고 있으며,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가입되어 경기를 치룰수 있다면 더욱 발전하리라고 말한다.

일본내에는 88개의 각종 스포츠 단체가 있는데 모두가 민간 차원에서 스포츠 독지가의 도움을 받고 육성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속에서 가라테와 태권도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즈음 일본속에서의 태권도 발전을 기대해 본다

第一回全日本少年跆拳道選手権大会



소년태권도 대회

세계속의 태권도는
이제 일본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 소년들의 겨루기 장면



◀일본의 새싹들에게 꿈이
나날이 발전하는 태권도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올림픽의 상처, 서울에서 치유될 것”

노 위원장, LA서 기자 회견

올림픽 조직위 노 태우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시내 빌트모어 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의 편의 및 신변 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올림픽의 기본 방향, 경기 일정 등에 대해 IOC총회의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진 직후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스크바와 LA에서 입은 올림픽의 상처가 서울에서 치유될 것”이라



고 강조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올림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한 올림픽의 성패는 언론의 관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하면서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인의 열망과 정성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줄 것을

이날 회견에 참석한 60여명의 각국 기자들은 주로 서울 올림픽에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 전망과 남북 회담의 진전에 관해 관심있게 질문했다. 노 위원장은 기자들의 이같은 질문에 “IOC의 모든 회원국은 한국과

될 것이며 참가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강조하고 “인내와 성의로써 남북 체육 회담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본 조직위는 31일 밤 LA빌트모어 호텔에서 리셉션을 가졌는데 IOC 관계자, 국제 스포츠계 인사, 교포 등 7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빌트모어 호텔의 IOC 총회에 서울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열세 원탁중의 한쪽 자리에 앉은 인사들. 좌로부터 鄭周永 대한체육회장, 李承燾 체육부장관, 盧泰愚 서울올림픽대조직위원회(SLOOC)위원장, 朴鍾圭 신임 IOC 위원, 曹相鎭 SLOOC 사무총장, 金靈電 세계태권도 연맹총재.

박종규 씨 새 IOC 위원에

IOC총회에서 다른 3 명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다섯번째



라 공주, 스와질랜드의 데이비드 시
쿠루미 시반제 씨, 터키의 투르구트
아타롤 씨 등 4명. 이로써 IOC 위
원은 모두 92명이 되었다.

박종규 IOC위원 약력

- 1930. 경남 창원 출생
- 1962. 건국대 정치과 졸업
- 1965. 대한 사격 연맹 회장(현)
아시아 사격 연맹 명예 종신
회장
- 1971. 대한 올림픽 위원회 위원
- 1973. 골프 협회 회장, 국제 사격
연맹 이사
- 1974. 연세 대학교 행정 대학원 졸
업(행정학 석사)
- 1976. 국제 사격 연맹 부회장(현),
자유중국 문화 대학원 명예
철학박사
- 1978. 10대 국회 의원
- 1979. 대한 체육회장 겸 대한 올림
픽 위원회 위원장
- 1982.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 조
직위 위원(현) 아시아 경기 단체
총연맹 회장(현)
- 1983. 서울 올림픽 조직위 위원(현)
대한 올림픽 위원회 상임
고문(현)

86-88 양 대회 조직위 위원인 아
시아 경기 단체 총 연맹(GAASF)
박 종규 회장이 IOC 88차 총회 이
틀째인 26일 새로운 IOC 위원으로
선출됐다.

박 종규 회장의 IOC 위원 피선은
이 기봉, 이 상백, 장 기영 위원 및
지난 해에 타개한 김 택수 위원에
이어 다섯번째이다.

박 종규 위원은 이날 기자 회견에
서 "IOC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개
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
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를 위해 온 정열을 다 쏟겠다"고 다
짐했다.

이날 새로 IOC 위원에 뽑힌 사람
은 박 위원 외에 리히텐슈타인의 노

세계의 눈

86-88 대회를 앞둔 서울, 외국 언론은 이렇게 바라본다

세계 언론의 88 서울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7월에도 파키스탄의 「Readers」
지는 6월 25일~7월 1일 치에, 덴마크의 「Jyllands Posten」지는 7월 1일 치, 일본의 「西日本」지는
7월 5일 치, 미국의 「TA Times」지와 핀란드의 「Aamulehti」지는 7월 10일 치, LA 발 「로이터」는
7월 17일에 각각 서울 올림픽을 다루었다.

다음은 이들 기사 중 「西日本」지, 「LA Times」지, 「Aamulehti」지의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지금 이웃 한국에서는 4년 뒤에 있을 88서울올
림픽 대회를 향한 올림픽 열기가 거국적으로 높아
가고 있다. 한국은 근래에 이룬 눈부신 경제 발전
을 에너지 원으로 하여 준비 작업을 급속도로 진
행시키고 있으며 올림픽을 성공시킴으로써 선진조
대열에 뛰어들게한다는 의지에 차 있다.

86아시아 경기 대회 뒤에 88올림픽, 반드시 성

공 하지요. 한국은 1등국이 될 것입니다. 올해가
84년이니까 2년마다 열리는 것이지요. 이야말로
훌륭한 도약입니다.

관광 버스 운전사에게 올림픽 개최를 어떻게 생
각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힘있게 대답하였다.

한국인에게 올림픽 개최는 '서러운 소망'의 성
취라는 의미도 있다.

.....서일본지에서 /

사상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며 화려하게 펼쳐진 제23회 LA올림픽은 그 규모만큼이나 넉넉한 화제를 낳았다. 외신을 통해 입수된 LA올림픽의 갖가지 주변 화제를 한자리에 모아 본다. (올림픽소식 8 월호에서)

두번 개최 LA로 본 올림픽 50년

LA는 32년 제10회 대회, 84년 제23회 대회 등 올림픽을 두번 여는 영광의 도시. 올림픽을 두번 연 도시는 2회, 8회를 연 파리와 4회, 14회 대회를 연 런던, LA 세 곳뿐이다.

32년 LA 대회는 한국인이 처음으로 올림픽과 인연을 맺은 기념비적인 대회. 고 이상백 IOC위원이 본부 임원으로, 김은배, 권태하, 황을수씨가 선수로 참가했었다.

그때의 참가국은 모두 39개국, 올해의 참가국은 1백40개국으로 3.7배로 늘었고 참가 인원은 1천4백명에서 7천8백명으로 5.5배로 늘었다.

입장료는 최저 60퍼센트에서 최고 3달러이던 것이 최저 3달러에서 최고 2백 달러가 되었다.

보안 요원은 7백명이던 것이 1만4천명으로 20배가 되었고, 경기 종목도 14개에서 23개로, 경비는 1백70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팽창한 반면 32년에는 참가국의 경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던 것들을 지금은 대회 자체를 흑자로 이끌고 있다.

관중 자신도 감탄한

LA 올림픽 개막의 관중 카드 색선

LA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는 여러가지 놀라운 일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 벌어져 관중을 즐겁게 했는데 무엇보다도 10만 관중 자신들이 감탄한 일은 관중들 스스로 벌인 카드 색선.

관중들은 사전 연습 없이 자신의 자리에 놓인 비닐백을 카운트 다운에 맞추어 번쩍 들었는데, 이것이 형형색색의 올림픽 참가국의 국기 모양을 나타내 장관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LA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 관중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카드 색선 요원이 된 셈이다.

베일 속의 성화 최종 주자는 레이퍼 존슨

세계인의 호기심 속에서 베일을 헤치고 나타난 LA 올림픽 성화 최종 주자는 60년 로마 올림픽의 10종경기 금메달리스트인 레이퍼·존슨. 그는 성화가 뉴욕에서 출발할 때 첫 봉송 주자로 뛰었던 사람으로 관중들은 LA 조직위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다시 한번

감탄.

LA 조직위는 그동안 성화 최종 주자에 대해 전혀 언급을 안해 세계인의 궁금증을 더해 주었는데, 루마니아의 체조 선수인 코마네치, 몬트리올 올림픽 10종경기 우승자인 부르스 제너가 최종 주자일 것이라는 소문이 항간에 떠돌기도 했다.

존슨 자신도 대회 개막 10일 전해야 자신이 최종 주자라는 사실을 조직위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조직위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리허설도 대타 주자를 내보내는 등 만전을 기했다.

존슨 바로 전에 성화를 운반한 주자는 지나 험필양, 그녀는 36년 베를린 올림픽의 4관왕인 제시 오웬스의 손녀이다.

성화대 점화 비밀 풀러

LA 개막식에서 또하나의 관심 거리는 성화 점화 방식. 성화대가 메모리얼 콜리세움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 불을 붙이느냐에 모든 이의 시선이 쏠렸었다.

리허설 때 처음으로 밝혀진 점화의 비밀은 성화대 밑으로 연결된 스파이프로 만든 오륜. 기름이 묻혀진 이 스파이프에 불을 붙이면 불은 오륜 표식을 뿜들다가 곧 성화대로 옮겨져 활활 타도록고안되었다고.

LA 시민들 올림픽 기간 동안 강제 휴가

LA의 2개의 대형 공장은 올림픽 기간 동안 공장문을 닫고 종업원들에게 강제 휴가를 줄기도록 했다. LA시 안에 있는 이혼 법원들도 이 기간 동안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혼 소송 업무를 가을까지 연기했다.

한편 헐리웃의 영화 제작 회사들도 올림픽 기간 동안 관광객 방문으로 일대 혼잡이 벌어질 것에 대비, 전 영화를 야외에서 촬영하기로 했다고.

손 기정 웅 LA서 성화 들고 뛰어

34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손기정 웅(72세)이 7월28일 LA 코리아 타운을 가로지르는 1킬로미터의 성화 봉송 코스를 완주했다. 10만여 교민들의 환호와 태극기의 물결을 뚫고 48년 전 베를린의

신화를 재현하려는 듯 곳곳이 달린 손기정 옹의 모자에는 통한의 일장기 대신 태극 마크가 선명히 박혀 더욱 인상적.

“48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을 풀 것 같다.” 손기정 옹의 감격의 한 마디.

손기정 옹과 함께 성화를 들고 LA 코리아 타운을 달린 한국인은 세미 리(재미 교포, 런던, 헬싱키 올림픽 우승자)씨, 김 은(미주 동아 전무)씨, 김 원희(LA교민)씨 등.

으로 표기돼 있다.

LA에서 공개된
손기정씨 서명

Marathon
K. Son
KOREAN
1936
74-8

88 올림픽 홍보물 LA서 큰 인기

본 조직위의 88 올림픽 홍보 책자, 배지, 포스터 등이 LA에서 큰 인기.

본 조직위는 LA 올림픽 프레스 센터 안내소에 국보 책자와 포스터, 배지 등을 배치했는데 외국 기자들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아우성, 1백여개씩 비파된 것이 10분 만에 동이 나자 이 소식을 듣고 뛰어들어 다른 기자들은 자기들 방에 붙여 놓겠다며 한장만 더 얻자고 안내원에게 매달리기도.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배지의 인기도 대단. 수백 종류의 기념 배지가 유통되고 있는 경기장 주변에서 한국 기자들조차 구경 못할 정도이다. 이 호돌이 배지는 배지 수집가들 사이에서 다른 배지 4~개와 바꿀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LA조직위 취재 기자단에게 한국제가방 선

LA 조직위가 세계 각국에서 물려온 3천여명의 취재 기자들에게 물로 준 가방에 “Made in Korea”가 선명히 찍혀 있다.

LA 조직위가 기자들에게 취재 노트, 스코아 북, 프로그램 유인물 등의 취재 자료를 넣어 선물한 이 가방 안에는 전자 계산기와 그밖의 취재 용품도 다수 들어 있다.

선수촌 식당서 김치 인기

한국 선수들에겐 좀처럼 차려 안 와

선수촌 식당에 김치가 모자라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은 김치 맛보기도 힘들 정도. 이번 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김치를 메뉴에 포함시켜 끼니 때마다 식당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김치가 놓이자마자 호기심어린 외국 선수들이 몽땅 접시에 담아 버리기 때문이다.

선수촌 메뉴에는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고단위의 에너지 식품”이라고 소개돼 있어 더욱 관심을 끈 듯.

한국 교포 2세 세미 리씨

초대형 벽화 인물로 등장

한국 교포 2세인 세미 리씨가 노스 헐리웃에 설치된 초대형 벽화 인물로 등장했다. 세미 리 씨는 런던, 헬싱키 올림픽의 남자 다이빙 부문 금메달리스트.

「LA의 위대한 벽」이라 이름지어진 이 벽화는 길이가 1킬로미터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규모로, 현대로부터 과거로 미국 역사를 회상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LA 올림픽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 처음으로 그림으로 그려진 4명의 올림픽인 중 한명으로 세미 리 씨가 선정된 것.

이 벽화는 사회 공공 예술 자원 센터(SPRC)가 7년 동안 제작해 완성시킨 것으로 18명의 역사가. 40명의 화가 이외에도 각 민족을 대표한 2백여명의 청소년들이 제작에 참여했다.

LA서 48년 전 손기정 서명 등장

베를린 대회 마라톤 우승 후

한 독일인에게 써 준것

베를린 올림픽 때 마라톤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손기정 선수가 그때 독일의 한 관중에게 해 주었던 자필 서명이 48년 만에 처음 발견돼 LA에서 공개됐다.

손 선수의 해묵은 서명은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LA 올림픽 조직위가 올림픽 관련 행사 가운데 하나로 개최한 세계 올림픽 기념 우편 전시회에 출품된 수많은 올림픽 선수들의 자필 서명 중 하나.

손 선수의 서명은 오토라는 한 독일인에게 해 준 것으로 그림엽서 뒷면에 쓰여 있는데 ‘marathon’과 ‘K.Son’이라고 서명이 돼 있고 그 밑에 ‘Korean’과 1936.148’이란 날짜가 뚜렷하게 쓰여져 있다.

손 선수의 이 서명에는 분명히 ‘Korean’으로 적혀 있는데도 전시회장의 서명 설명에는 손 선수의 국적이 일본으로 되어 있고 이름도 일본식(KITEI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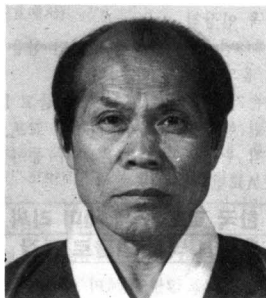
辛

丞

先生

범 기 철

(국기원 연구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인간은 한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움과 체험, 개인의 특성 등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전문화된 입장에서 사회와 국가에 헌신, 봉사하면서 자신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사회의 구조와 기능이 복잡 다양해진 현대생활 속에서 한목표에 자신의 생을 다 바친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삶을 영위해 가면서 외길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에 큰 빛이 되어주시는 先人들의 큰삶을 우러러 보는 것이다.

특히 민족의 전통문예를 계승, 보존하고 후손을 위해 그것을 체계화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닐것이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의 가치관을 대부분 황금만능주의에 비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위와같은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더욱 어려우리라. 20여년의 세월을 「택견」의 발굴과 보급을 위해서 외길 인생을 살아온 신승선생은 돈과 명예나 부귀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술한 고통을 감내하고 선생께서 스스로 좋아서 택한길에 전인생을 다 바쳐 오늘에 이르렀다.

최악의 경제난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곧 시들고 만다”는 사실없는 선생의 무예철학을 막지는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택견」은 외유내강의기를 보이면서 그 유래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저서인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 택견에 대한 유래가 잘 나타나있어 그 문헌을보면 「택견」은 고구려 시대의 신두수라는 제전행사때 다른민속 놀이와 더불어 행하여지기 시작했다고 하며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각 저층의 벽화와 삼실층의 벽화가 전해지고 있어 택견의 몸짓을 잘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조말엽 1846년경 유숙(劉淑: 1827~1873) 선생의 작품인 대쾌도(大快圖)에 씨름과 택견을 하는 회화(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가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민족의 풍속을 읊은 구한말시인 매하 최영년 선생의 시집 해동죽기(海東竹枝)에도 택견의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 무예인 「택견」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씨름과 더불어 민중속에서 행해진

민속경기였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

그이후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일본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모두 말살시키려고 택견인만보면 잡아가 이때부터 민중이 행하던 택견은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 산과들에서 몇몇 택견인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게 되었다.

임오생인 임호선생과 그 제자인 송덕기옹(1883년생) 그리고 오늘의 택견을 재현시킨 신승선생으로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것이다.

현재 고령자로서 「택견」을 하신분 가운데 생존해 계신분은 1983년 6월 1일자로 기능보유자가 되신 송덕기옹과 김홍식옹, 이정천옹 세분만이 택견의 실현자로서 생존해 계시며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택견」의 고증에 산 증인이 되고 있다.

위와같이 면면한 역사적 배경속에 전해진 「택견」을 복원시킨 산과역을 한 신승선생은 1928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본적을 충주로 이전한 재 충주에 살고 있으며 13~14세때 무학산(현재 왕십리 뒷산) 까치산방죽 등에서 증조부(신재영)를 따라 「택견」을 배웠으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잠시 중단하고 근대체육을 하였고, 중학교 졸업을 전

후한 일제말기(1944~1945) 전쟁시 서울의 소개(疏開)로 인해 연천으로 내려가 증조부와 같이 있던 택견인으로 부터 재차 택견을 익혀오던 중 해방을 맞아 1949년 서울 신홍대학(현 경희대의 전신)에서 근대 올림픽 종목의 체육을 하였고 1961년부터는 그동안 익혀온 「택견」의 원형을 정리 하였으며 1970년에는 현재 기능보유자인 송덕기옹에게서 택견을 사사 전수받았고 그밖에 김홍식옹(1893년생 현재생존)과 이경천옹(1906년생 현재생존)으로부터 택견에 대한 문례(問禮)를 받으므로써 우리의 생활속에서 잊혀져가던 택견의 원형을 되찾게 되었으며 1973년 10월 3일부터는 충주시에 「택견」 전수도장을 개설, 지금까지 택견만을 전수하고 있다.

1977년 4월 9일 제 1회 택견발표를 서울중앙 YMCA 체육관에서, 1977년 9월 29 일에는 제 2회 「택견」 발표를 서울 고려대학교 강당

에서, 동년 10월 29 일에는 제 3회 한국전통 택견 발표를 충주 탄금대 야외 음악당에서, 1981년 5월 31일국풍 81에서 국풍 「택견」발표(서울여의도 한강변), 동년 10월 18일 제 1회 대한민국 전통문예제(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82년 11월 21일 제 2회 대한민국 전통문예제(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택견시연을 하였으며 그리고 83년 5월 28일 홍익대학교 축제때 택견 시연을 함으로써 7 차례에 걸쳐 택견 발표를 하였으며, 오로지 20여년동안 택견의 원형을 정리, 그 업적을 관계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아서 1983년 6월 1일자로 중요무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장학전수생 1명과 함께 택견의 보급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아오면서 오늘날의 택견이 있기까지는 한평생 택견을 복원하고 그것을 체계화 시킨 신승선생의 「참」을 추구하는 무예

철학과 집념, 그리고 노력의 소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필자가 신승선생을 처음 만나게 된 인연은 81년도 제 1회 대한민국 전통무예제를 개최하면서 태권도의 시범과 함께 전통무예인 택견이 태권도의 뿌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송덕기 선생을 통해 신승선생께 전통무예제에서의 시연을 의뢰하였을 때 부터이다.

선생께서는 필자의 개최 취지가 「무예정신을 오늘의 시점에서 계승 발전시켜 분단조국의 극복과 민족역량의 획기적 확장을 위해서 힘과 슬기의 현대화를 위한 뜻깊은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려는 데 있다」는데 공감하시고 쾌히 참여해 주셨었다.

그뒤 82년 제 2회 행사때도 참여하시면서 더욱 가깝게 선생의 「택견」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투철한 무예정신, 소박한 인품, 겸손한 생활 과 선생의 따뜻한 인간미는 필자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다.



감사패증정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베풀어 준 장의원의 노고에 보답하는 감사패를 김운용 회장이 전달하였다.

장의원은 민정당 부산시 지부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으로 집권정당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민정당부산지부위원장)
張 聖 萬 議員

그동안 김운용 총재님을 비롯한 원로님들의 각고 면려의 노력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우뚝을 계속하고 있다.

국외에는 태극기를 걸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범들이 있으며, 국내에는 오늘날 태권도를 천적으로 알고 수많은 사범이 젊음과 정열 다 바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의 내일은 밝기만 하다.

한편 종주국으로서의 영원한 반석은 태권도의 역사성과 불변하는 태권도 철학을 정립하여 완성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무예사의 고전과 원로 선생님들의 견해, 필자가 보아온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태권이 태권도의 뿌리인 것을 인식하고 더욱 진지하게 태권과 태권도와의 관계를 이론과 실재를 통해 연구 개발해 나가야 함을 절실하게 느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선생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한국의 뿌리를 밝히고 계승하는 것은 태

권도이다”라고 태권도에 확고한 긍지와 비전 (vision)을 갖고 계신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한 인간의 외길인생의 전과정이 진실로 가치를 있을때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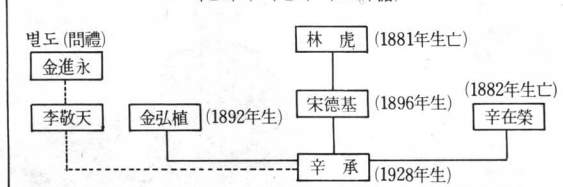
신승선생은 「태권」을 좋아했기에 「태권」을 위해 젊음을 다 바쳤고 후회없는 인생을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며 무예인인 인간문화재 신승 선생!

선생의 그 험난했던 지난 20여년의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고 문화재관리 당국으로부터 인정되어 참가치를 받게 되었음은 얼 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선생은 지금도 태권의 보급과 후배양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필자는 태권도와 태권과의 접목을 통해 뿌리와 맥을 확인하여 후세의 후학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완성시킨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이 생동 (生動)하는 산역사가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신승 선생의 집념과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선생의 무운 (武運)을 기원 (祈願) 드린다.

問禮 : 직접 사사받지 않고, 스승으로 받들지 않으면서 존장으로 받들어 문답으로 지도 받는 것.

최근사의 태권의 계보 (系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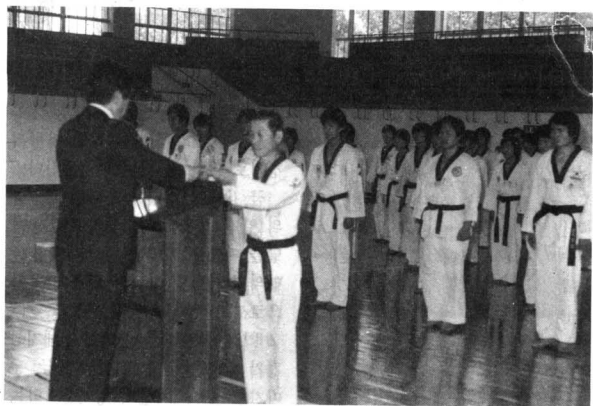
제42기

지도자교육을 마치고



해병제2527부대본부
상사 김 장호

(경기도 강화읍 관청리615)



새시대 새로운 태권도는 군 기본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우리군에서는 꽃이 피어 가는것 같다. 고된 훈련속에서도 총검과 태권도는 백병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술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국기원 전립이라 태권도의 요양인 국기원에서 지도자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심판강습회 및 자격시험에 뒤이어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군의 특수교육으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왔지만 정년을 눈앞에 두고 늙은감이 있어 몇번이나 망설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천리길 멀다않고 상경한 전국의 많은 수강자들의 참여속에 입교식이 끝나고 학생장이란 과분한 직책을 맡고보니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었다.

연수원의 제반규칙에 숙선수범하

고 모범을보이며 앞으로의 모든일에 책임을 지고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차츰 질서도 잡혀가고 지방에서 올라와 기간중 하숙비를 걱정하는 동료에게 선듯 자기집 방을 주겠다는 동료가 있어 우리들의 귀감이 되었고 전라도 출신의 구수한 사투리에 웃음꽃을 피우며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힘껏 뛰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짧은 기간중 교육계획에 의해 과목선택 및 시간계획의 어려움을 모르는것은 아니지만 실기는 기본동작과 품세만 배웠다.

그러나 기량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면 지도력을 중점으로 각자의 장단점 파악과 기량을 연마함은 물론 과학적으로 이론 또는 실기를 통해서 뭔가 배웠으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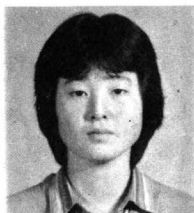
는 마음 간절하다.

교육을 받는동안 군이나 일선 체육관에서 수련하고 준사범으로서 지도했던 모든 기량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총정리하면서 자기개발에 노력하고 좀더 차원높고 폭넓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보급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 물론 이젠 사범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군이나 일선 체육관에서 태권도 발전의 주역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도해주신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 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지도자 제42기 동기생은 태권도의 정신과 예의·인격형성의 기본과 전통 무도 정신을 계승하고 갈고 닦는 기량을 슬기롭게 마음껏 발휘하리라 믿는다.

심판 판정에 대한 소고



임신자 (3 단)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2년 재
82년 11월, 여자국가대표 선발 1 위
83년 5월, 제10회 대학연맹전 1 위
84년 5월, 여자국가대표 선발 1 위
- 태권도 수련경력 10년 -



하나의 메달을
얻기위하여
그들이 흘린땀은
얼마이며 숨어서
흘린 눈물은
얼마겠는가



요즈음 매스컴에는 온통 올림픽
경기로 나라 안 밖이 떠들썩하다.

금, 은, 동메달등 우리의 선수들
의 열띤 경쟁으로 소중하고 값진 메
달을 따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
민의 한사람뿐 아니라 같은 체육인
으로서도 감개가 무량하다.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지는
경기 내용은 손에 땀을 쥐게끔 흥
미진진하고 내자신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가슴에 달아오는 그 무엇인
가를 느끼게도 한다.

하나의 메달을 얻기 위해 그들이
흘린 땀은 얼마이며 숨어서 흘린 눈
물은 얼마나 많겠는가?

오직 이기겠다는 신념하나로 모
든 정열을 불태우는 자.

이것이 진정한 체육인인 것이다.

TV화면에서 유도 경기를 보았다.
태권도와 같은 투기 종목이기에
경기 내용이며 판정 관계를 주의깊
게 살펴보니 우리 태권도의 심판 방
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득점과 실점이 발생할 때마다 비
밀 아닌 공개로써 앞의 전광판을 통
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동작과 기술이 이루어 질때마다
즉시 판정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그
만큼 사실없이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판정은 어떠한가?
태권도는 우리만의 무도가 아닌

세계인의 스포츠로 많은 각광을 받
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
실이다.

각종 국내의 경기를 제외 하고라
도, 세계대회를 6회, 아시안 게임
을 5회, 월드컵 게임 등등, 이제 경기
로서는 자리를 굳힐때가 넘었다.

86년 아시아 대회에 태권도가 정
식종목으로 채택되는등 크고 작은
대회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우리는 지금의 경기방식과 제반 승
패에 따른 문제들을 임의로만 개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겠는가?

승패를 가름하는 판정에 대해서
는 과연 얼마만큼 공정하고 완벽한
것인가에 전태권도인은 다시한번 생
각하여 중지를 모아 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태권도 경기는 다른 종목과는 달
리 순간순간 발휘되는 빠른 동작으
로 연결되는 적극적이고 동적인 운
동에 속한다.

따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판정하
다는 것은 세심한 주의력과 판단력
이 필요하며 아무리 공정성을 기한
다 하여도 심판개인이 판단하는 안
목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기에 판정
자체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한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한계성을 최소한으
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점을 제기한다.

첫째, 판정은 공정성을 가져야 한

너, 나 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의식 속에 조금이나마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다. 점수 용지에 심판들 자신들만 알 수 있게 소극적으로 체크한다는 것은 만인들이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득점이 이루어 질때마다 순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경기인과 코치·관객이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신호는 짧은 시간에 표시될 수 있도록 신속성이 있어야 하며 득점된 점수는 만인이 알 수 있게 정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공정하고 예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심판원의 바른 양식과 높은 능력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심판원들이 판정하는 게임수를 조정해야 한다.

게임수가 많아짐에 따라 심판원은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피곤하면 자연히 판정에 소홀해지므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회를 주최측에서 각별히 배려되어야 할 일이다.

이상의 조건이 이루어진 후 판정이 내려진다면 공정하게 게임을 이끌 수 있으며 게임을 주도하고 판정을 하는 심판위원들이나 경기에 임하는 선수나 코치석이나 관중이 불신없이 믿음 속에서 태권도의 경기에 임하며, 경기를 관전하며 아울러 태권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작은 소견이나 많은 게임을

위웠고 지켜보며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해 보았다.

모든 것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듯이 서로가 판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모순된 점이라도 찾아 한가지 한가지씩 보충한다면 태권도 경기의 판정은 공명정대해지고 활기찬 경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

을 위해 힘쓰는 것이 태권도의 정신이며 자세라 우리들은 사범님과 선배들에 배웠다.

잘못된 일들을 헐뜯고 비판만 하기보다는 지적하고 평가하여 수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더욱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自然을 닮고 배우자



홍 여 석

(CINETEL,
SEOUL A.D)

人間은 생각하며 살아 움직이는萬物의 영장이지만 때로는 傷한 갈대처럼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다. 우선 肉体的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다. 조그만 과로하면 피곤하고, 나이를 먹으면 금방 노쇠해 지고 마는 허약한 존재이다. 精神的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사소한 일에도 염려하게 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웃과의 관계에도 사랑하는 일보다 미움과 증오, 갈등의 일이 더 많다. 이렇듯 우리 人間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으로 얽여어 살아가는 存在라 하겠다.

요즘의 사회에서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는 인사가 實感나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不確實性社會에 살고 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위고」는 사람은 一生을 두고 세가지 싸움,

즉, 첫째는 自然과의 싸움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싸움이며, 세째는 자신과 싸움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였다.

人類가 自然을 정복하고 개발하여 20세기의 文明을 이룩하였음을 첫째 싸움이자 승리이다.

그리고 人類는 兇한 戰爭을 겪어왔다. 크게는 民族과 民族, 작게는 개인과 개인의 生存의 競爭이다. 인류는 이 싸움속에서도 대개는 서로의 國권을 지키고 國家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家庭을 이루어 存立함으



로써, 두번째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싸우면 싸울수록 비참하게 패배하는 싸움이 세번째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그 싸움의 원인은 「어떻게하면 잘 사느냐?」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너무 잘 살려는데 집착하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비굴해 지며, 이기적인 수단과 방법에 얼마이게 된다.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을 상실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불안하고 평안한 날이 없을 것이다.

바르게 사는데에는 方法이 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며, 창조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다.

영국 속담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즐겨야 건강한 하루다」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動과 靜의 균형은 인간의 生存현상의 중요한 이치이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생활 조건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도 영국의 속담을 닮으려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근대화의 물결속에서 긴장, 초조, 불안, 우울, 울분, 갈등과 고독등으로 상실되어가는 自我를 지키며 다스리기 위하여 여가를 유용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하겠다.

처절한 생존경쟁에서 두들겨쳐림 일한 뒤, 메마르고 지치고 찌들고 고달퍼진 심신을 식혀보자는 인간의 슬기의 실현을 여가라고 한다면, 어떤 곳에서 여가를 값있게 보내야 할 것인가?

나는 대자연속의 산을 권한다.

산!

산은 만물을 포섭하여 생장시키며 영겁의 침묵을 머금고 태연부동하며, 천재지변에도 동하지 않고, 한결같이 만물을 키우며 사랑을 베푼다. 산은 오히려 사람에게도 선량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강자에게도 약자에게도 아무 차별없이 공평하게 사랑으로 감싸준다. 산에는 울창한 숲이 있고, 맑은 계곡물이 있고, 푸르른 젊음이 있고, 태고의 신비가 있으며, 대자연의 위대한 질서가 있다.

겸허함과 사랑과 평등과 유유자적함과 영원한 침묵등, 그 모든 위대함을 배우고자 우리는 산을 찾는 것이다.

신라시대의 화랑들도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名山大川을 두루돌아다니며 道義를 닦고 무술을 익혔다하지 않는가. 이는 자연속에 인간의 삶의 모든 질서와 정서를 길러주는 참의 修鍊場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민족의 거의 모든 맥박은 자연속에 보존되어 있다.

우리는 조상의 찬란한 문화와 반짝이는 지혜 그리고 슬기로운에 숙연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같은 휴식을 취하는 곳이 반드시 이름난 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燈下不明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가까이있는 가치에 눈이 어둡고, 산너머 먼 곳을 찾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가까운 들길을 걸으며 풀벌레의 울음 소리에서 정서를 배울 수도 있으며, 석양노을 깔린 들녘에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농부들의 진실한 모습에서 소박한 삶의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시골마을 낮은 돌담너머로 보이는 저너 밭상 앞의 단란한 모습도 우리의 고달픈 마음을 푸근히 달래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바르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한 思慕의 실현의욕이 없다면 어떤 아름다운 자연속에서라도 휴식은 얻기 힘들 것이다.

哀憐에 물들지 않고 喜怒에 움지이지 않으며 沉默을 지키는 산!

자연을 배우고 자연을 닮는 여가를 만들어 생활의 승리자이며 만물의 승리자되어 삶의 윤택함을 위해 길은 푸르름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제22회 전국교도관무도대회

법무부에서는 1984년 6월 22일 문화체육관에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는 태권도·검도·유도를 단체전으로 “토나멘트”경기로 진행되었다.

본 대회에는 태권도 선수 15개팀 94명이 출전하였다.



개회식전에서 배명인 법무부 장관은 김운용 대한태권도 협회장께 평소 교정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교도관의 무술진흥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심으로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기리기 위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跆拳道 師範의 医療保險制度 導入에 對하여



師範 李 鳳

1. 序

면면히 이어내려온 우리 민족의 전통 무예가 「태권도」라고 명명된 지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태권도 사범은 단순히 개인적 욕구에서 출발한 무도 전문가로써 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의 기능을 가진 자유직업인으로써, 또한 사회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생활인으로 변화해 오면서 국민체육향상, 국방력강화는 물론 세계적으로 국위선양에도 많은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사회적지위나 생활안정,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발달이나 국민경제수준향상에 못 미쳐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사회체육정책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도 하겠지 만 스스로 돕는 자조·자립의 자세에서도 기인된 바가 크다고도 하겠다.

특히, 태권도의 발전과표 설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단견(短見)과 무사안일주의, 현상유지적 자세 뿐만 아니라 이를 좌시하고 무인해운 수 많은 태권도인들에게도 마땅

히 시정해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행착오나 공과를 논하기 보다는 태권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하여 과연 우리 태권도계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를 반성하고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냉철히 분석하여 해결가능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할 때라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일선 사범들이 상부상조하는 제도적 장치인 의료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

2.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의료보험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한 분야로써 국민의 보건·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의료혜택을 골고루 주려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태권도사범의 후생복지를 거론할 때 생활보장과 노후보장도 중요하지만 우선 해결해야할 것은 의료보

험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또 1985년에 전국민의 40%이상에 달할 의료보험 수혜자 속에 우리 태권도 사범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범 본인이나 그 가족의 질병감염시 병원 한번 못가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생활을 결핍한 절름말이 지도자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조에 빠지기 십상이다. 특히 매일 접촉하는 많은 수련생들 앞에 지도자가 건강한 심신(心身)을 상실한 상태로 나설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사범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때에는 대량 전염의 우려까지도 있기 때문이다.

2. 導入方案

現行 의료보험은 1종과 2종이 있다. 1종은 상시(常時) 근로자(정기적으로 봉급을 받는 인원)가 기준수 이상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쉽게 말하면 봉급생활자를 위한 당연 가입조건)

2종은 자유직업인, 상인등을 대상으로 동일 지역내에서 동일 조합을 결성하게 되는 지역 2종과 동일 직

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는 직종 2종의 두 가지가 있다.

태권도 사범들이 의료보험조합을 결성한다면 직종 2종 의료보험의 대상이 된다.

현재 직종 2종 의료보험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단체로는 미국 상조합, 이미용사조합, 생명보험모집인조합, 예술인조합등이 있다. 의료보험조합은 보건사회부 사회보험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태권도 사범의 의료보험조합성은 바로 보사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는 태권도인들이 내부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이며 그 해결방법은 후생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3. 태권도인 의료보험조합 결성 방안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정식 가맹단체로 중앙협회 산하에 시도지부가 결성되어 있다.

사범은 시도협회의 회원입과 동시에 중앙협회의 회원자격을 갖고 있으며 그 숫자는 4단이상이 이미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태권도인 직종 2종 의보조합의 대상자(피보험자)는 현재 1종의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범을 제외한 4단이상의 직업태권도인으로 하고 그 직계가족을 수혜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의보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조합의 정관에서 상세히 정해야 하지만 개략적인 운영 방안을 기술한다면, 가입대상 사범들은 피보험자로 한다.

중앙협회를 의보조합의 보험자로 하고 시도지부는 지역별의 보조합의 기능을 수행하며 전국의 등록사범은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단위조합을 결성한다.

중앙의 의보조합은 보험료의 거출, 보험금의 지급, 기금의 운용, 전국의 조합원의 등록관리등 의보제도를 총괄 운영하고 시도단위조합에서는 신규대상자의 등록 및 타 지역으로의 전출입등을 관리한다.

중앙협회는 의보조합운영에 따른 수입업무(收入과 支出등)는 협회재정과는 별도로 운영·처리하며 행정지원과 관리를 담당한다.

의료보험의 재정은 2가지 방식으로 조달한다. 첫째는 수혜 대상 사범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거출하고 둘째는 현행 품·단 심사비에 일정한액을 가산하여(현재 태권도잡지대포함방식) 납부한다.

보험료는 매분기마다 3개월치를 중앙협회에 온-라인이나 우체국대체 납입 방식으로하고 보험카드의 피보험자 자격유지 확인은 송금영수증을 제시하면 시도지부에서 확인필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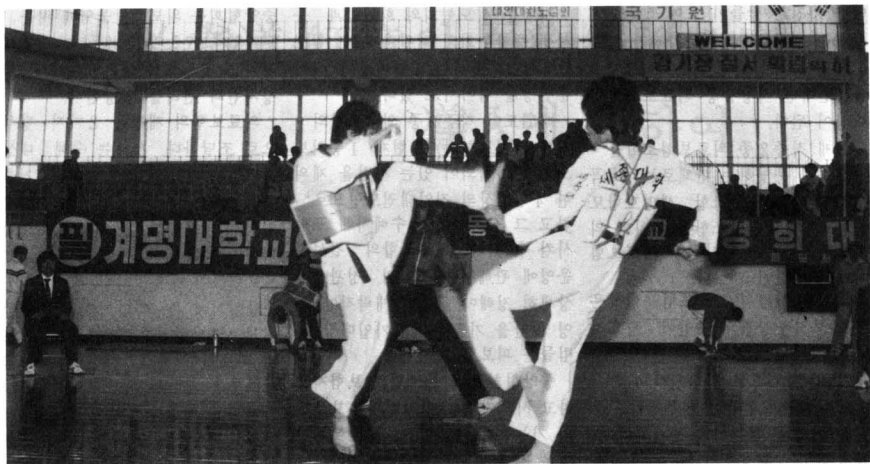
의료보험은 보험료수입과 그 운용에 따른 수익금의 합계와 보험금 및 사범비(행정비·인건비등)의 합계가 일치되도록 운영하되 만일 플러스차액(수익금)이 발생하면 그것은 기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여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사범의 후생복지시설의 건립에 충당하거나 익년도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 지급범위를 확대해나간다.

보험카드의 발급은 중앙의료조합에서 시도조합을 경유하여 피보험사범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자격유무 확인은 먼저 언급한 방식으로 매 3개월마다 시도조합에서 영수증 확인으로 시행한다.

보험금(의료비)지급은 전국의료보험조합중앙회(의보공단)에 가입하여 하는 방식과 지역별로 의원·병원을 지정하여 지정의원·병원의 청구에 중앙조합이 직접 지급하는 2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상적 운영(理想的)으로는 매년 이익금이 발생하여 그 이익금으로 진료비보상 뿐만아니라 출산비보상, 사망보상, 장례비보상, 불구자보상 등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





하며 나아가서는 전용병원설립마지
도 도모해야 하겠다.

만일 재정의 수지가 결손이 발생
될 것이 우려된다면 제도도입후 6
개월 또는 1년간은 고영기금 확보
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목표액만
큼 달성된 후에 보험금지급을 시작
하는 방법도 있다.

또 조합운영의 공정성을 유 지하
기 위해 행정실무자들을 견제·감
독하는 일선 사법을 중심으로한 의
결기구를 설치하여 조합운영상의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겠
다.

4. 의보조합의 실제운동 예(例)

전국에서 5천명의 사법(4 단 이
상자)이월보험료 1 만원을 납입하
면 연간 6 억원의 보험료수입이 있
게되며 년간 승품심자자 약 8 만명
의 심사비 납부시 2 천원 정도 추
가 납부하면 1 억 6 천만원이 거출
된다. 이렇게 7 억 6 천만원의 재정
수입으로 약 1 만 5 천명(사법 5 천
× 가족평균 3 명) 이상이 의료보험혜
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이 직접

납부하는 月간 보험료는 재정흑자
시에는 인하도 가능하다.

물론 재정적자시의 대처방안도 강
구해야겠지만 그럴 경우는 조합원
의 의결을 거쳐 조치할 수 있도록
조합의 정관에 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특히 행정비나 사업비의 절약은
기존의 협회인원의 인력활용으로
기할 수 있으며, 이미 십수년의 시
도협회 운영 경험은 의보조합운영
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5. 結 語

이상으로 태권도사법의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건의하는 측면에서 간
단한 의견을 제시해 보았으나 行政
節次나 法的인 문제, 他職種 組合
의 運營例와 적정한 保險料의 책정
등 상세한 의견은 부족한대로 個人
的으로 자료수집이 되어 있으므로
必要하다면 집행부 실무진에게 제
출토록 하겠다.

아 물론 筆者의 짧은 의견으로는
사법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은 우리
태권도계의 당면 현안中 최우선하

여 처리해야할 과제라고 確信한다.

이렇게 사법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具體的인 노력을 기우려 實質的인
봉사체제를 정립해 나아가지 않는
限, 우리의 進路가 밝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법들의 유
기적인 협조와 상부상조의 호혜정
신은 공동의 후생복지제도로 인하
여 크게 고무될 것이며 중앙협회를
위시해서 각종 태권도 행정기구에
처한 신뢰는 크게 고양될 것으로 믿
민는다. 더우기 사회적 인식 역시
크게 호전될 것이며 각종 체육단체
를 선도하는 훌륭한 선례가 될 것
이며 다.

사법 의료보험제도는 세계화와
양적성장등에 못지 않게 시금석(試
金石)이 되어 태권도 발전과정에
큰 과감효과를 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 일선사법들의 복리증진에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줄고를 제출한다.

서부전선 한미야전사

제1회 태권도 대회



△ 김운용 회장을 대신하여 황춘성 전무이사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상천(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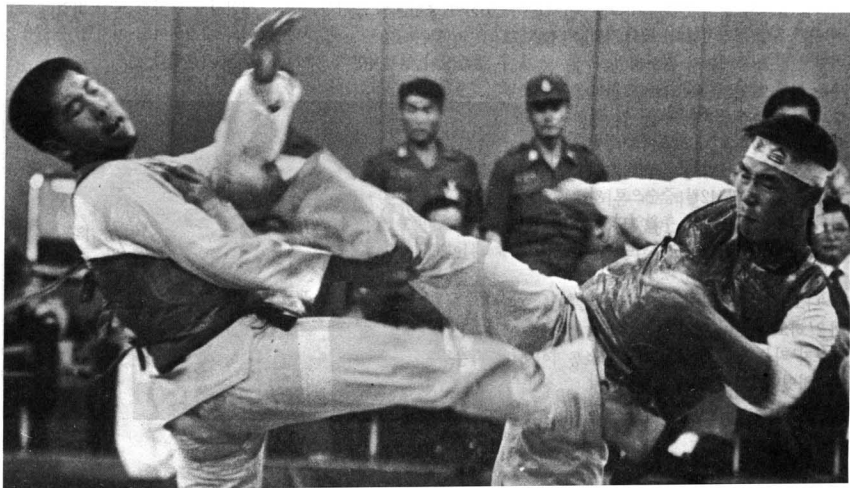
한미연합야전군 사령부에서는 1984년 7월 9일부터 21일(3일간)까지 친선경기를 실시하였다.

부대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태권도 수련과 경기로서 체력을 단련하며 아울러 강한 전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미야전사 한국군 주임상사와 미군 주임상사가 주관하여 각 군단, 사단의 주임상사와 세계태권도 연맹의 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경연 대회를 실시하였다.

미 2사단 태권도팀을 비롯, 국군 각 사단팀이 출전하여 열전을 벌였다.

단체 결승전 직전, 한국국가대표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서울 미동국민학교의 시범경연은 참관자를 매료시켜 아낌 없는 감채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김운용(세계연맹 총재 대한태권도협회장) 박사를 대신하여 황춘성(본회) 전무 이사가 메네트리 사령관(L.T. G. Louis C. Menrey)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본 대회는 6 사단이 우승을 하였다.





韓熙錫

(연수당 한의원 원장
정무체육관 3단)

국가 태권도는 일반적으로 국민 학생이나 청소년, 군인, 경찰등 젊은 층의 운동이라 생각되는 수가 많으나 나이가 많아서 활동량이 부족한 50~60대의 나이에 더욱 필요한 운동이라 생각한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그때 내가 58세였다. —키는 작은 편인데 배가 나와 허리둘레가 가슴둘레 보다 더 컸고, 호흡은 어색로 하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험쩔거렸다. 주위 사람들은 몸이 무거워 힘들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들이었다.

신체적 균형을 말할 나위도 없고 허리를 굽혀서 구두 끈을 스스로 매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특히 저녁이면 신경통 증세까지 겹쳐져서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친구 K씨가 “당신은 운동이 꼭 필요하다”며 현재 태권도 수련 중인 “청무 체육관”의 강관장을 소개하였다. 그 때가 12월 중순으로 영하의 기온은 유난히도 추웠었다. 새벽 6시에 체육관에 나가 보니 모두 청소년들이었다.

‘나도 저렇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이 없었으나 ‘한번 해보자’라는 단단한 각오로 운동을 시작하였다. 영하 19도의 마루바닥은 양말을 두 켤레를 신어도 발

健康과 幸福



이 시려웠고 무거운 몸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 손도 곧장 나가지 않고 발도 올라가지 않았다. 갑작스런 운동으로 몸은 아프지 않는 곳이 없었고, 몸 전신은 꼼짝하기가 싫을 정도로 피곤하였다. ‘그만 둘까’ 하는생각도 여러 차례 하였었으나 참고 견디며 한 달 가량 버티는 동안 강관장이 나와 걸맞는 연령층을 모집하여 약 20여명이 함께 어울려 지루한 줄 모르고 일년간을 하루도 빠짐 없이 운동하여 초단으로 승단할 수 있었다.

그 후 강관장이 열성적인 지도아

래 9년 간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새삼스럽지만 이 기회에 지면을 통하여 노장년을 대표해서 강관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려 한다. 둔하고 나약해진 늙은이들을 지도하시느라 신경도 많이 썼을 것이고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이다. 나는 현재 3단으로 67살이다. 운동하기전 84kg이었던 몸무게가 이제는 70kg으로 가벼워졌으며, 어디한곳 아픈데가 없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정신적인 나약함 또한 없어져 젊은이와 대결하여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다.





공로패 증정

설혹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마음이나마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옛말에 “人命은 在天”이라 하였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 보다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운동을 하며 정신과 육체가 더불어 활동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다. 나는 30여년간 한의원을 경영한 사람으로 여러 장년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老年期에 떨어진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보약의 중요함을 경시할 수는 없으나 「규칙적인 운동」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 “藥補不如肉補 肉補不如食補”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보약보다는 고기를, 고기보다는 식사를 잘하는 것이 건강을 지킨다는 말이 되겠다.

나는 이글에다 食補不如跆拳道를 첨가하고 싶다. 우리 생활주변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들이 많다. 옛말에 山采不如野采 野采不如家采란 말도 있다.

산에서 나는 나물보다는 들에서 나는 채소가 좋고 들에서 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키우는 야채(콩나물, 숙주나물등)가 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다. 요즘처럼 처럼 화학약품을 가공한 인체에 해로운 콩나물이 아닌 주부의 정성이 담긴 공해없는 콩나물류가 그러하다는 얘기이겠다.

건강은 먼곳에 있지 않다. 주변에서 발견하고 규격적으로 실행하는 습관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며 장년기의 어른들에게 태권도 수련을 권한다.



경감 : 孫 好 男

손경감은 61년 경찰에 투신 24년간 각종 특수 사건을 취급한 베테랑급 수사관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함도 대단하다고 장기승 사범은 말하며, 실제로 경찰 태권도 발전에 도움을 주신다고 전한다.

손경감은 중국인들은 공후를 국민보건체조처럼 보급되어 새벽 공원엔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다며, 태권도도 국기로서 범국민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하며, 사회가 발전됨에 의식수준의 급속한 변화, 교육수준의 급상승, 중·고등학생의 두발, 복장 자율화 등으로, 청소년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늘어 특정한 선수들을 제외하고 일반 청소년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기로서 어린시절부터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태권도를 보급 국방체육으로 연결되는 제도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있는 체육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회에서는 태권도 보급발전에 공이 큰 치안본부 수사1대 3반장 손호남 경감에게 김운용 회장을 대신하여 엄운규 부회장이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대회를 보고

홍영해(성남시 상대원동)



어제는 어린이날.

그리고 오늘은 태권왕을 뽑는 태권왕 겨루기 대회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날이다. 난 아직 학부형은 아니지만 조카 덕분에 매년 참관을 해왔다.

조카의 작은 손에 끌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느덧 조카에게 주는 어린이날의 유일한 선물이 되어졌다.

어린이날에는 값이 비싼 장난감이 나 옷같은 것을 사주는 것이 의례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때쯤 공연되는 과히 싸다고만은 할 수 없는 어린이 명작극이나 만화영화를 관람시키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태권왕 겨루기대회와 같은 행사는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며,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들과 함께 자리하는 어린이 대잔치는 이날 하루를 마음껏 즐기며 노래하는 좋은 계기와 생각된다.

조카는 감기기운이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이른 아침부터 들떠서 내

가 늦장을 부릴까봐 아침 6시도 안되어 집에 전화를 걸고 빨리 준비하여 가자고 성화였다. 나는 조카가 좋아하는 약간의 다과와 점심을 준비하여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날씨는 화창하여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양 조카는 이리뛰고 저리뛰며 즐거워 했다.

지하철에 오르니 차안에는 그 또래의 어린이들이 많았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들의 모습은 티없이 밝지만 하였다. 역에 차가 도착하자 꼬마들로 주축이된 인파가 밀려나왔다. 마침 일요일에다 프로야구 경기까지 겹쳐 역근처는 매우 혼잡하였다. 체육관을 향해 가는데 꼬마들이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태권왕 겨루기 대회 장소를 몰라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이었다.

잠실 실내체육관을 향하며 행사 안내 표시를 해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건넌 중 “저기다”하고 가리키는 조카의 손가락 방향으로 웅장한 모습을 한 원형체육관이 한

눈에 들어왔다.

어린이들은 달리기 시험이라도 하듯 체육관을 향하여 줄달음질쳤다. 체육관안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각기 출전한 학교의 프랭카드를 들고 응원에 한창이었다.

오랜시간 차를 타고와 다소 지루하였던 조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조카와 나는 중앙현관 맞은 편에 자리를 잡았다. 경기장에는 선수들의 경기가 열을 뿜었다.

조카는 아는 친구라도 만날새라 둘러보기도하고 경기를 보다가 선수들의 묘기가 훌륭할 때는 박수를 치기도 하며 “고모” 나도 이다음에 태권도 배워서 형들처럼 선수도하구 시험도하구 친구들 응원도 열심히 해 줄거야”라고 하면서 으시맨다. 개회식이 있는 얼마 후 미동, 신도림, 남산국민학교 어린이들로 구성된 시범단의 시범이 펼쳐졌다.

태권도 동작 하나 하나가 끝날때마다 “와”하는 감탄의 소리와 함께 우뢰와 같은 박수가 장내를 터질 듯하게 하였다. 시범단의

재빠른 동작을 따라 눈망울을 굴리며 환호성을 하는 조카의 모습이 마냥 귀엽기만 하다. 나 역시 여러번 태권도 시범을 보았지만 볼 때마다 경탄해 마지 않을 수 없었다. 질서, 절도, 정확, 민첩성은 얼마나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 쌓여진 것일까. 그리고 이 시범단 어린이들은 학교성적도 모두 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하니 전인교육의 생생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앞서 대견스런 마음에 뿌듯함이 더하였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들이야! 태권도 시범단에 가입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 장난꾸러기 조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멋지게 웃는다.

이어서 각 체급의 태권왕을 뽑는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한체급의 태권왕이 결정될 때마다 상장과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부상으로 자전거를 주었다.

상장을 손에 들고 금메달을 목에 건채 다른 한손으로 자전거를 밀고 나가는 늑름한 모습은 어린이들에

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결승전이 끝난 후 어린이 대잔치가 시작되었다.

인기연예인 하청일아저씨의 사회로 어린이들은 한덩어리가 되어 환호와 박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어린이날 만오천여명의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하여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태권도 당국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어린이, 가정의 행·불행, 빈부의 차이 없이 모두 똑같이 즐거운 어린이가 되어 진행자의 물음에 체육관이 떠나갈 듯 함께 대답하며 손뼉을 치며 힘껏 부르는 노래소리는 순수하고 맑은 동심을 마음껏 발산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는가 보다. 행사가 끝나자 아쉬운 듯한 표정으로 체육관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네 어귀에서 조카는 만나는 친구들을 보고는 태권왕 대회의 자량이 대단하다.

조카는 피곤했었나 보다. 저녁을 먹자마자 잠이 들었다. 아마 지금쯤 꿈속에서 태권왕이 되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늑름하게 자전거를 밀면서 나가고 있으리라. 조카와 함께 자주 태권도장에 나들이한 덕택으로 이제는 나도 태권도에 제법 유식(?)해진 기분이다. 태권도의 보급과 저변확대에 힘입어 국민학교연맹, 중·고연맹, 대학연맹뿐 아니라 모든 국군아저씨와 경찰아저씨들도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고 하니 「국기 태권도」로서의 그 진가를 누구나 인정하리라 믿는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생각이라 하지 않는가.

아구나 씨름, 축구처럼 신문·방송에 자주 보도가 되어 진정한 국민체력향상 및 국방 체육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필자가 이해하는 정도까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어린이날 이러한 대회를 마련해 주신 태권도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나의 태권도 수련기

경화 국민학교 6학년 장재현

저는 경남 진해시 경화동에 살고 있는 국민학교 6학년 장재현입니다. 제가 태권도를 배우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지도하시는 경화 체육관에 나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허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하여 아버지가 태권도를 배우라고 하여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체육관에는 동급생이나 후배들이 유급자나 유단자가 되어 하얀 도복을 입고 품띠와 빨간띠 등을 허리에 두르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얀 띠를 매고 아버지 아닌 체육관 사범님의 가르침에 따라 한 번, 두 번 동작을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굳은 마음 자세로 학교 공부가 끝나면 즉시 체육관으로 달려 갔습니다. 어떤 때는 코피도 났고 현기증도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날은 학교 후배지만 품띠 두른 아이들과 겨루기를 하여 혼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시간만 있으면 혼자서 발차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 무척 피곤하였고 학교 공부시간에도 꾸벅꾸벅 졸아서 선생님께 꾸지람도 가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끈긋한 자세로 체육관 관훈인 충효, 성실, 인내, 대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 이제 는 나의 허약하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는것 같습니다. 태권도를



배운지 2개월 후에 승품심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첫 심사라 그런지 좀 부끄럽고 동작도 연습때 보다 잘 안되는것 같았습니다. 며칠후, 노란 띠를 허리에 맨수 있게 되었습니다. 9급이 된것입니다. 나는 더 노력하여 태권도를 널리 보급시켜 빨리 우리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1년쯤 지나 (약 14개월후) 승품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승품심사를 보기전에 사범님께서는 예비심사에 합격해야만승

품심사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다리던 승품심사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과 사범님의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서 동작 하나 하나에 정신을 쏟으면서 승품심사를 보았습니다. 승품심사후 주위 사람들로부터 잘했다는 칭찬도 받았었습니다.

3개월쯤 뒤에 사범님께서 “재현이 승품심사에 합격하여 품증이 나왔으니 다음 승급심사 때에 품증을 수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으로 품띠를 두르게 되면 더욱 노력하여 이다음에 한국

대표선수로 활약하여 국위선양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기자 기습이 선풍이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받은 우리의 선수들이 떠올라 마지나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나 2품심사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몸도 아주 튼튼해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학급에서는 금장, 학교에서는 최장도 맡았으며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태권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태권도 배우기를 권하여 체육관에 나와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다보니 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고, 하면 된다는 자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생겼고 신념이 어떤것인지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983년 진해시 태권도 협회장기대회 개인전 및 단체전에 친구들과(체육관 수련생들) 함께 참가하여 각 체급에서 우승하였고, 진해 경화국민학교에서는 단체전에 참가하여 두번째 우승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날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3 품심사에 합격하였고, 여러 태권도 초등부 시험에 참가하여 우승도 몇 차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1984년 진해 태권도 협회기장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에서는 물론, 3년제 단체전에서도 우승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체육관 수련생 모두는 운동 뿐 아니라 공부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모든 친구들이 나와 같이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건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자라서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수련기를 씁니다.

태권도를 지도하시는 사범님들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총효 성실 인내

1984년도 선수등록현황

본회에서는 84년 5월 30일까지 84년도 선수등록을 마감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13개 시도지회의 선수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84년도 선수능력 현황

구분 도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 반	계
서울	420	386	582	160	121	1,669
부산		40	117	20	121	298
대구	8	42	76	23	53	202
인천	5	92	164	79	13	353
경기	66	257	494	76	24	9,917
강원		28	27	20	13	88
충북		13	27	40	16	96
충남	1	50	264	24	52	391
전북		26	114	19	22	181
전남	1	54	271	43	77	446
경북	51	113	391	15	228	798
경남	17	63	423	34	95	632
제주	26	26	45	12	28	137
계	595	1,190	2,965	565	863	6,208

해수욕장을 다녀와서

7월 27일 (맑음)

날씨가 매우 무덥고 따가웠다. 우리집 식구들은 옷가지와 텐트 버너 등을 준비하고 아빠는 큰 배낭과 텐트든 가방을 들고 나는 옷가지를 넣은 작은 배낭을, 동생은 비상약품과 건전지 수영복이 들은 더 작은 가방을 들고 동해안 해수욕장을 향해 떠났다. 엄마는 학교엘 나가시므로 못가시고 아빠하고 셋이 큰 고모네 차와 작은 고모네 차를 타고 출발을 했다. 둘째 고모네도 고모는 석사 논문 준비로 바쁘시고 고모부와 돼지 오빠와 고향이 언니만 갔다. 네 가족 12명 (어른 6명 아이 6명)이 두대의 차를 타니 좀 비좁았으나 그런대로 괜찮았다. 서해의 만리포는 가 보았어도 동해안은 처음이라 궁금하고 그저 신만났다.

가는 도중에 경치가 무척 좋아 내려서 사진을 찍었다. 서울에도 이런 산과 들, 나무와 풀, 꽃등이 많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은 공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바캉스」라는 걸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고 생각해 보았다. 사진을 찍은 후 다시 출발을 하였다. 가다 보니 개울마다 사람이 많이 있었다. 우리도 사람이 좀 적은 곳에 다 차를 세우고 준비해 온 점심을 점심때가 훨씬 지난 시간이라서 허겁지겁 먹었다. 산에서 먹는 밥은 훨씬 맛있었다.

다시 출발을 하였다. 배가 고맙다가 밥을 먹으니 졸음이 왔다. 눈을 떠 보니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다. 높은 고개였다. 산을 깎아 만

한 수 연 (3품)
(서울 신도국민학교 6학년)



든 꼬불꼬불하고 해변 900m나 되는 길이였다. 귀가 먹먹했다. 고개 이름이 「한계령」이라고 아빠가 말씀해 주었다.

고개를 넘어 한참 가니 바다가 보였다. 찜통같은 차안에서 뛰어나가 파란 바다 속으로 풍덩 빠지고 싶었다. 드디어 바닷바람을 쏘이니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다.

해수욕장이 아닌 어촌마을이었는데 사람도 적고 인심도 좋다고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다. 바닷가 모래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집에는 민박을 정하고 아빠와 난 그집 옥상에다 텐트를 쳤다. 아빠가 시키

는 대로 시중을 들으며 한 10분 「조수」노릇을 하니가 신기하게도 훌륭한 집이 되었다. 또 바람을 불어넣어 만든 요(에어 매트레스)는 아주 좋았다. 저녁을 먹고 난생 처음으로 텐트에 누워 생각을 했다. 비가 오면...바람이 세게 불면... 텐트가 괜찮을까-? 등산도 많이 하였고, 무엇이든지 척척하시는 든든한 아빠가 계시니까.....빨리 내일이 와서 바닷물에서 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7월 28일 (맑음)

어젯밤에는 잠을 잘 못 잤다. 파도 소리와 군인 아저씨들이 쏘는 총소리 때문이었다. 아빠한테 왜 총을

쏘느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휴전선이 생기고, 북한의 간첩선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을 새며 근무하는 국군 아저씨들이 쏘는 공포탄이라고 말씀하시며 빨리 통일이 되어야 저녁에도 마음 놓고 바닷가를 거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막내 고모도 총소리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서 잠을 못자다고 얘기했다.

아침 밥을 서둘러서 먹고 지난밤의 침대였던 '에어메트리스'를 아빠가 주셔서 고무배가 된 튜브를 타고 신나게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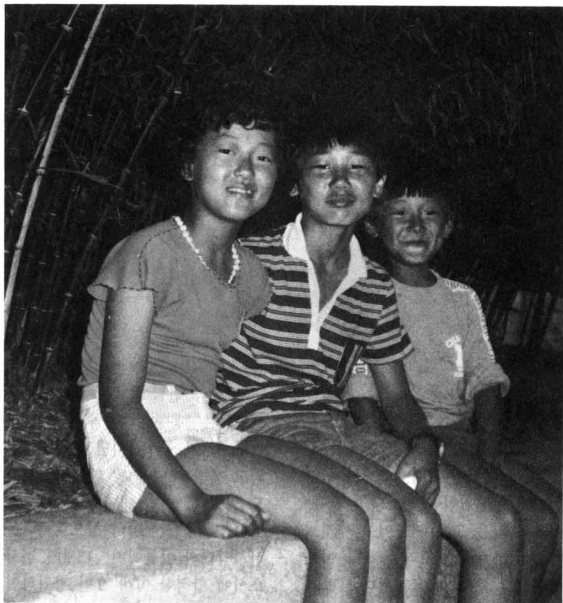
언니, 오빠, 나, 동생 넷이 같이 타도 끄떡없이 물에 떠있다. 고무배를 타고 깊은 곳도 가고 재미 있게 노는데 아빠가 앞서 갑작스럽게 고무배를 뒤집었다. 우린 모두 물을 잔뜩 먹었다. 잔물을 먹어서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팠다. 동생은 진짜로 많이 토했다.

겁없이 깊은 곳으로 고무배를 타고 들어가니가 몇번 말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보다 한번 혼을 냈다. 정말 아파도 없고 우리끼리 깊은데서 놀다가 배에 바람이 빠지거나 놓치면 큰일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바닷물 속에서 놀다보니 추웠다. 아빠가 모래찜질을 해 보라고 해서 모래찜질을 했다. 아빠와 동생이 모래를 몸에 덮어 주었다. 나중에 모래가 몸 위로 높이 쌓이니까 꼼짝도 못하겠고 숨쉬기도 어려워져서 무척 갑갑했다. 땀이 흠뻑 났다. 추웠던게 싹 없어졌다.

큰 고모는 모래찜질이 뭐 몸에 좋으냐고 하시고 아빠는 몸에 좋다고 하시고 도대체 어떤 말이 진짜인지 갈피를 못잡겠다. 난 아빠의 말을 믿기로 했다. 우리 아빠니까.

바다의 저녁 수평선은 볼만했다. 빨갛게 물든 하늘과 바다는 너무 아름다웠다. 내가 화가라면 한장의



그림으로 그려서 내방에다 갖다 걸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스러운 풍경이었다.

내일은 더 신나게 놀아야 겠다고

생각하며 바다에서 나왔다.

아빠와 작은 고모부 둘째 고모부가 멍게와 횡감을 사다 놓으시고 소주를 잡수셨다. 우리 꼬마들도 매워서 식식거리면서 초고추장에 회





를 먹었다. 배가 고파서인지 맛있었다.

7월 29일(맑음)

아침 일찍 고깃배가 들어오는 곳을 아빠와 같이 갔다. 조개가 한양동이에 삼천원이라고 싸다고 한다. 아빠와 작은 고모부는 어부 아저씨들과 친하다. 큰 고기를 하나 어부 아저씨가 주셔서 갖고 왔다. 「뽕어」라는 고기인데 길이가 내 키 반 만큼 되는 것 같다. 텔레비전에서나 큰 고기를 보았지, 살아서 꿈틀거리는 진짜 큰 고기는 처음 보았다. 어부 아저씨가 집까지 와서 칼로 고기를 썰어서 회를 만들었다. 피흘리고 죽는 고기를 봐서 처음엔 먹을 수가 없었으나 어른들이 맛있게 잡수셔서 우리들도 먹었다. 고기가 연하고 맛있었다.

오늘은 예정대로 2박3일을 보내고 집으로 가는 날이었으나, 아빠하고 작은 이모부만 가자고 하고 전부 하루 더 묵고 가자고 하여 아침 식사 때 회의를 해서 아빠편이 졌다.

우리 모두, 야! 하고 소리를 쳤다.

오늘은 관광을 하면서 작은 고모부 표고버섯농장에 가서 하루 더 쉬기로 결정한 날이다. 쌍용시멘트 공장이 있는 곳을 거쳐 무릉계곡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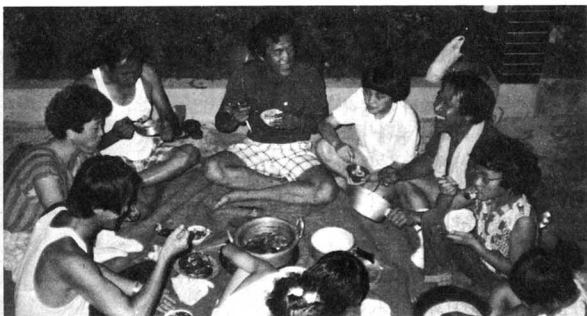
는 곳엘 갔다. 사람이 무척 많았다. 또 이울곡 선생이 태어나신 오죽헌엘 갔다. 「몽룡실」(울곡 선생이 태어난 방)과 공부하시던 방등을 구경하고 까만 대나무 밭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까만 대나무는 처음 보았다. 훌륭한 어머니 상으로 배운 신사임당의 아들이며, 13세때 진사 초시에 합격한 이래 9번 장원하여 이름을 천하에 떨치고, 대재학(문과 출신 관원의 최고 벼슬)을 지냈고, 백성의 편에 서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충신 학자라고 고모부가 설명을 해주었다.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비가 오고 안개가 끼어서 자동차는 전부 거북이처럼 기어갔다. 대관령 휴게소에서 쉬었다가 안개가 걷히면 가자고 한참을 쉬었는데도 비와 안개는 걷히질 않았다. 차

들이 전부 기어갔다. 걷는게 시원하고 빠를 것 같았다.

차 안에서 심심해서 노래를 부르기로 해서 「뚝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를 불렀다.

작은 고모와 아빠는 곡조는 아는데 가사를 몰라서 노래가사를 아는 내가 가사를 가르쳐 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한참을 손뼉치면서 노래를 부른 후 아빠가 이젠 다 배웠다고, 혼자서 부르셨다. 들어 보았더니 2절에서 엉뚱한 가사가 나와서 웃음보가 터졌었다. 동경132, 북위37이 숫자라 까다로웠고, 「연어알 물새알」 「해너 대합실」은 자꾸 「새들의 고향」이라고 불러서 한참을 웃었다. 노래를 다 배우시고 나니 역사 공부, 지리공부 잘했다고 하셨다. 대관령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산 밑에는 비가 안왔으니 이상하였다.

드디어 막내 고모부 표고 농장엘 도착했다. 그때가 밤 9시쯤 되어서 동생은 잠을 잤고 나도 졸렸다. 10시쯤 저녁을 라면으로 먹고 잠자리를 정돈해 놓고 게임을 하였다. 「묵.찌.빠」 「업.다운」 「땅.예뻐.어흥」 게임들을 아빠의 사회로 재미있게 하였다. 게임에서 걸려서 우리들은 한사탐씩 노래를 불렀다. 「업.다운」 게임에서 막내 고모부가 걸렸는데 노래를 못 부른다고 도망



공로패 증정

을 가졌다. 어른들도 우리를 처럼 게임을 하고 즐겨워 하시니까 좋았다. 게임이 끝나니 새벽 2시였다. 오늘은 내가 최고로 늦게 잠을 자는 날이 될 것이다.

7월 30일(말음)

오늘은 집으로 가는 날이다. 우리는 끝 날이니 실컷 놀아보자고 하여 아침부터 산골물에서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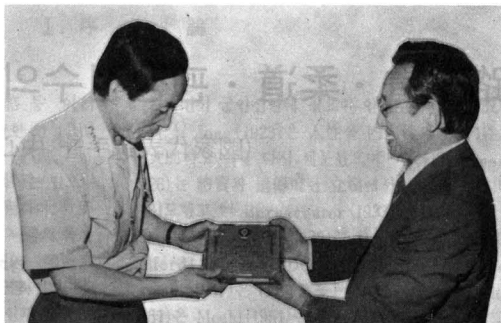
선녀탕에는 돼지 오빠와 둘이서만 갔다. 놀다가 추워서 바위에 올라앉아 쉬고 있는데 오빠가 뱀이 있다고 해서 혈레벌떡 도망을 왔다. 그런데 와서 생각을 해 보니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온게 좀 약이 올랐다.

지훈이 오빠는 장난을 잘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번째는 너무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돌아와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어른들은 오빠의 장난기를 잘 알고 있으므로 믿지를 않으니 오빠는 무척 답답해하는 표정이었다. 아빠는 정말 뱀이 있을지 모르니 수풀 속에는 가지말라고 하니 어휴! 하고 오빠는 발을 구르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아침을 먹고 아빠, 큰오빠, 돼지 오빠, 동생과 고기를 잡았다. 한 시간 가량 잡았는데 두마리밖에 못 잡았다. 동생은 잡은 고기를 가지고 가자고 하는 것을 병숙에 들은 고기가 불쌍해서 놓아 주었다.

꼬리를 흔들며 바위 밑으로 숨은 고기를 보니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개울물을 돌로 막고 돌맹이를 들어내는 작업을 한시간쯤 하니 훌륭한 수영장이 되었다. 큰오빠와 아빠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큰돌을 쭉쭉 뽑아 내는데 신기했다.

점심을 먹고 떠날 때가 됐다. 섭식한 감도 있었지만 좋았다.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가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니 좋았다. 역시 엄마가 있는 집이 제일이다.



치안본부 교육담당관

曹 聖 彬 총경

내무행정을 문관 무관으로 나눈다면 경찰의 업무를 무관부서로서,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행동으로 표현되는 업무라고 말하는 曹 총경.

曹 총경은 군에서 태권도 初段에 승단하였고, 68년 경찰간부 후보생으로 투신 17년째 근무하는 경찰교육의 베테랑, 평소 경찰 무도발전의 교육업무로서의 의무감 보다는 평소 무도에 관심이 많은 무도인으로 (현 3단) 무도의 수련은 정신을 맑게하여 주고 건강한 체력을 만드는 물론 인내심을 길러준다고 무도수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찰 무도 교육 현황은 4년제 경찰대학과 재직경찰관의 기능별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경찰 종합학교와 신입교육을 담당하는 분교가 있으며 교육과정은 신입교육과 필수교육, 전문화교육의 과정으로 매년 3만여명이 모든교육 과정에서 무도를 필수 항목으로 실시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의 기능을 고취하고 있다.

특히 전 경찰 무도 유단자의 제희에 따라 武道를 생활화하며 소질과 기호에 따라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중 한종목 이상을 선택하여 초단 이상을 획득할 때까지 수련하고 있다.

또한 경찰 체력 검정 기준을 새로이 만들어 체력을 향상시키므로 전진한 정신을 함양하여 믿음직스럽고 밝은 경찰像 정립에 힘쓰고 있다.

각급 경찰교육 과정에 武道 逮神術 교육을 20~30시간 이상 배당하여 범인 검거및 자기방어에 활용토록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전국 경찰서 무도사범 요원에 대하여 年 1회 경찰종합 학교에서 무도인으로서의 정신교육과 지도실기 교육 1週間씩 635명을 실시하였다.

무도(태권도) 발전은 물론 국민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출선수범하신 그 공을 기려 본회에서는 김운홍 회장을 대신하여 엄운규 부회장이 1984년 6월 曹 총경께 공로패를 전달하여 그 업적을 기렸다.

路拳道・柔道・펜싱선수의 性格診斷 研究

(國家代表選手를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교 수 김 진 호
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 김 정 래

目 次

I. 序 論

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 및 人員
2. 調査期間
3. 研究方法

III. 研究成績

1. 男子 距拳道・柔道・펜싱선수의 性格檢査成績
2. 女子 距拳道・柔道・펜싱선수의 性格檢査成績

IV. 結果解釋 및 比較

1. 男子 距拳道・柔道・펜싱선수의 性格特性 및 比較
2. 女子 距拳道・柔道・펜싱선수의 性格特性 및 比較
3. 運動選手와 一般學生과의 性格特性 比較

V. 結 論

參 考 文 獻
英 文 抄 錄

I. 序

論

人性은 흔히 性品, 氣質, 個性, 人格 등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며 사람은 저마다 獨特한 人性특성을 가지고 있다.¹⁾

인성의 定義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Allport, G. W. 의 人性정의와 大同小異하다. 즉 “인성이란 한 個人이 環境에 대하여 그 나름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適應하려는 心理 및 生理의 體系로서 個體의 力動的인 體系이다”라고 역설하였다.²⁾

一般的으로 性格形成은 先天的인 요인과 後天的인 요인이 상호 作用하여 이루어 진다고 보고 있다. 선천적인 것은 生物學的 條件과 氣質의 遺傳性이며 후천적인 것은 物理的, 社會的, 文化的 環境에서 오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生育過程에서의 적응이 곧 性格이나 人品을 만든다고 보고 있다. 性格이란 원래 환경에 대한 個體의 全般의 反應의 傾向을 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우기 人間의 행동은 目的的인 것임으로 方向과 指向은 目的의 遂行을 가지고 환경에 適應하며, 課題解決이란 努力으로써 환경에 접하여 行動하니 이는 곧 삶을 위한 개체의 反應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찍이 많은 學者들은 인간의 性格을 밝히고자 여러가지 시도를 거듭하고 이를 다시 整理하여 그 방법을 모색했다. Hippocrates와 Galen은 일찍이 Sanguine (다혈질), phlegmatic (점액질), Choleric (쓸개즙질), Melancholic (우울질)의 4기질로 나누어 人성을 파악했고,³⁾ Woodworth (1920)는 일

차대전시 군인선발에 필요한 人성검사지를 作成했으며,⁴⁾ Jung (1923)은 人性을 內向性과 外向性으로 大別하고 이를 다시 세분했으며⁵⁾ Kretschmer (1926)는 體質과 遺傳이란 立場에서 人성을 밝히려고 시도했고,⁶⁾ Bernereuter (1933)는 BPI를,⁷⁾ Humm-Wadsworth (1935)는 H-W Scale을⁸⁾ Guilford (1940)는 STDCR를,⁹⁾ Guilford와 Zimmerman (1947)은 GZTS를¹⁰⁾ Hathawa와 Meehl (1951)은 Meehl (1951)은 MMPI의¹¹⁾ 조사법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그 나라의 사람들에 맞게 이를 개작하여 이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진숙 (1953)이 Guilford의 STDCR를 改作하여 성격검사를 냈고¹²⁾ 정병모 (1965)도 STDCR를 전적으로 改作, 再標準化하여 人性檢査를¹³⁾ 낸 것이 실례이다.

近來에는 우리 體育分野에서도 Sports 집단이라는 特殊한 環境에서 生活하는 운동선수들의 성격에 관한 研究가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는데 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그들의 人性的인 特性을 이해하고, 그 특징에 따라 訓練 및 指導方法을 모색하여 적용한다면 그 効果는 대단히 커질 것으로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인경기종목인 跆拳道·柔道·펜싱 선수들의 성격 특성을 把握, 理解함과 아울러 Sports의 科學化를 위한 資料提供을 그 基本 目的으로 하였다.

1) 정병모, 人性檢査方法要綱 (서울: 코리아 테스트 센터, 1965), p. 4.
2) Allport, G. W., personality: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enry Holt Co., 1937)
3) 문교부, 체육심리 (체육교육자료총서, 3권, 서울: 서울신문사 출판국, 1973), pp. 234ff.
4) Woodworth, R. S., Handbook of mental examination method (New York: Macmillan, 1920)
5) Jung, C. G., psychological types (New York: Harcourt, & Brace, 1923)
6) Kretschmer, E., physique and character (New York: Bernereuter, R. G., "Validity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personal J., 11 (1933), pp. 383-386
8) Humm, D. G. and Wadsworth, G. W., "The Humm wadsworth

Temperament scale," Amer. psychics J., 92 (1935), pp. 163-200.

9) Guilford, J. p., "An Inventory of Factors STDCR," Beverly Hills (California: Sheridan supply Co., 1940)
10) Guilford, J. p. and Zimmerman, W. S., "The Guilford-Zimmerman aptitude Survey," Beverly Hills (California: sheridan supply Co., 1947)
11) Hathaway, S. R. and Meehl, P. E.,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In military clinical psychology (Washington: GPO, 1951)
12) 이진숙, 人성검사 (서울: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심리연구소, 1953)
13) 정병모, 人성검사 (서울: 코리아 테스트 센터, 1965)

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 및 人員

國家代表級選手 147명을 대상으로 調査를 實施하였는데 種目別, 性別 人員數는 표 1과 같다.

표 1. 調査人員分佈

종 목	인 원		
	남	자 여	자 전 체
태 권 도	28	27	55
유 도	29	27	56
펜 싱	16	20	36
합 계	73	74	147

2. 調査期間

1979. 9. 26 - 1980. 8. 26.

3. 研究方法

人性檢査에는 行動觀察法, 評定에 의한 方法, 體型和 體質에 의한 方法 그리고 心理學的 檢査에 의한 方法 등이 있다. 그 중 心理學的 方法에는 質問紙法, 自己診斷法, 作業法, 투사법 등 여러가지 검사방법이 있다.

본 연구자는 證법모의 人성검사지를 使用하여 調査하였다. 검사지의 問項은 240개로 각 性格要因을 알아 보는 問項이 각각 30개씩으로 되어 있으며 성격요인 및 그 特性은 다음과 같다.¹⁴⁾

가. 活動性(General Activity) : 日常生活에서 精力的이고, 生産的이고, 능률적이고, 민첩하며, 일을 좋아하는 人性特性으로서 무기력하고, 느리고 일 없이 놀고 쉬기를 좋아하는 非活動性과 대조된다.

나. 支配性(Dominance) : 指導性, 主動力, 責任感, 創案力 등 집단에서 指導的이고 支配的인 위치와 역할을 차지함에 알맞는 特性으로서 추종, 복종, 허락을 일삼는 추종성과 대조된다.

다. 安定性(Emotional Stability) : 정의적 안정

성으로서 회노애락의 感情에서 極端에 흐르지 않고 生活一般에서 든든한 自信과 樂觀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시에도 比較的 平온할 수 있는 人성특성이며, 반대로 항상 잔격적, 큰근심, 백일몽, 고독, 불안, 두려움, 죄악감에 잠기고 회노애락의 진폭이 큰 정의적 불안 정성과 대조된다.

라. 衝動性(Impulsiveness) : 단순하고 感情的이며 속박, 제약을 싫어하고 흥분을 즐기며 自制性이 적고 “내키는대로”하고 싶은대로”가 심한 特性으로서 반대로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심하게 죽이고 즐거운 상태도 즐길 줄 모르는 自制性과 대조된다.

마. 男向性(Masculinity) : 男性的인 性格으로서 精力, 運動, 勞動力이 필요한 일을 즐기며 섬세한 감상에 젖지 않고 事物에 쉽게 비위가 상하지 않는 성격이며 반대로 로맨틱한 감상이 많고 섬세하고 비위가 잘 거슬려지고 겁을 잘 먹는 女性的인 성격 또는 女向性과 대조된다.

바. 客觀性(Objectivity) :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하는 법대로 理致대로 約束대로의 行動을 강조하며 人情, 事情이나 감상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지 않으며 때로는 “철면피”라고 할 수 있고 事物, 事態를 그대로 보려는 特性으로서, 반대로 自我中心의이고 정이나 감상에 과민하여 때로는 동떨어진 의심까지도 자주 품는 主觀性 또는 파라노이드적 특성과 대조된다.

사. 思慮性(Reflectiveness) : 事態나 行動決定에서 실행보다는 사려에 많은 時間을 보내며 理論的, 사색적, 내성적이고, 신중하고, 나아가서는 망설임이 심한 特性으로서 반대로 實踐的이고 實驗的이고 구체적 사태를 즐기며, 과단성이 있는 대신 나아가서는 輕妄이 심한 輕行性과 대조된다.

아. 社會性(Sociability) : 社會活動, 集團生活를 즐기며 동무가 많고 協同的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衝突이 적은 特性으로서, 반대로 社會社交상태를 기피하고, 수줍어 하고 고독을 일삼는 非社會性과 대조된다.

Ⅲ. 研究 成績

1. 남자 태권도·유도·펜싱 선수의 性格檢査成績

남자 태권도·유도·펜싱 선수의 性格檢査成績을 표 2에 종합하여 기재하였다.

가. 태권도 선수의 성격검사성적의 平均과 標準偏差를 요인별로 보면 활동성이 13.64 ± 5.36 , 지배성이 13.54 ± 5.02 , 안정성이 11.71 ± 5.01 , 충동성이 13.79 ± 5.18 , 남향성이 12.96 ± 5.32 , 객관성이 11.57 ± 4.59 , 사려성이 12.64 ± 5.89 , 사회성이 12.00 ± 5.29 였다.

나. 유도 선수의 성격검사성적은 활동성이 14.34 ± 3.94 , 지배성이 14.28 ± 4.25 , 안정성이 15.41 ± 7.25 , 충동성이 15.66 ± 5.52 , 남향성이 $13.66 \pm$

4.77 , 객관성이 14.17 ± 5.32 , 사려성이 13.10 ± 4.69 , 사회성이 15.83 ± 6.04 였다.

다. 펜싱 선수의 성격검사성적을 활동성이 14.25 ± 3.61 , 지배성이 13.63 ± 4.92 , 안정성이 11.44 ± 4.96 , 충동성이 12.81 ± 4.32 , 남향성이 13.25 ± 2.84 , 객관성이 12.81 ± 3.47 , 사려성이 15.94 ± 5.24 , 사회성이 12.63 ± 4.34 였다.

라. 태권도·유도·펜싱 선수의 성격검사 종합 성적은 활동성이 14.05 ± 4.49 , 지배성이 13.85 ± 4.72 , 안정성이 13.12 ± 6.27 , 충동성이 14.32 ± 5.28 , 남향성이 13.30 ± 4.66 , 객관성이 12.87 ± 4.83 , 사려성이 13.55 ± 5.45 , 사회성이 13.66 ± 5.70 였다.

표 2. 남자 태권도·유도·Fencing 선수의 성격검사 성적

종목	인원	요인 구분	A	D	I	M	O	R	S	S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남향성	객관성	사려성	사회성
태권도	28	M	13.64	13.54	11.51	13.79	12.96	11.57	12.64	12.00
		P	48	50	40	43	23	42	39	36
		S D	5.36	5.02	5.01	5.18	5.32	4.59	5.89	5.29
유도	29	M	14.34	14.28	15.41	15.66	13.66	14.17	13.10	15.83
		P	53	56	59	56	28	62	43	63
		S D	3.94	4.25	7.25	5.52	4.77	5.32	4.69	6.04
펜싱	16	M	14.25	13.63	11.44	12.81	13.25	12.81	15.94	12.63
		P	53	51	40	37	26	50	60	41
		S D	3.61	4.92	4.96	4.32	2.84	3.47	5.24	4.34
종합	73	M	14.05	13.85	13.12	14.32	13.30	12.87	13.55	13.66
		P	52	52	46	48	26	50	46	50
		S D	4.49	4.72	6.27	5.28	4.66	4.83	5.45	5.70

2. 여자 태권도·유도·펜싱 선수의 性格檢査成績

여자 태권도·유도·펜싱 선수의 성격검사 성적을 표 3에 종합하여 기재하였다.

가. 태권도 선수의 성격검사성적을 要因別로 보면 활동성이 15.22 ± 4.92 , 지배성이 14.56 ± 6.20 , 안정성이 11.04 ± 6.02 , 충동성이 17.26 ± 6.75 , 남향

성이 14.48 ± 5.04 , 객관성이 12.11 ± 4.47 , 사려성이 16.33 ± 4.54 , 사회성이 15.04 ± 6.17 이었다.

나. 유도 선수의 성격검사성적은 활동성이 13.22 ± 4.27 , 지배성이 11.63 ± 5.06 , 안정성이 14.07 ± 6.66 , 충동성이 10.52 ± 4.47 , 남향성이 9.74 ± 4.45 , 객관성이 15.30 ± 6.28 , 사려성이 14.26 ± 5.71 , 사회

성이 14.74±5.83이었다.

다. 펜싱 선수의 성격검사 성적은 활동성이 15.10±4.96, 지배성이 14.25±6.68, 안정성이 12.50±6.52, 충동성이 15.05±7.64, 남향성이 13.15±5.60, 객관성이 13.85±3.89, 사려성이 16.55±6.84, 사회성이 15.85±4.57이었다.

라. 태권도·유도·펜싱 선수의 성격검사 綜合成績을 要因別로 보면 활동성이 14.47±4.78, 지배성이 13.39±6.09, 안정성이 12.54±6.52, 충동성이 14.22±6.97, 남향성이 12.39±5.41, 객관성이 13.74±5.26, 사려성이 15.64±5.76, 사회성이 15.15±5.67이었다.

표 3 여자. 태권도·유도·Fencing 선수의 성격검사 성적

종목	인원	요인 구분	A	D	E	I	M	O	R	S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남향성	객관성	사려성	사회성
태권도	27	M	15.22	14.56	11.04	17.26	14.48	12.11	16.33	15.04
		P	62	70	45	74	89	49	53	61
		S D	4.92	6.20	6.02	6.75	5.04	4.47	4.54	6.17
유도	27	M	13.22	11.63	14.07	10.52	9.74	15.30	14.26	14.74
		P	46	51	65	30	54	72	40	58
		S D	4.27	5.06	6.66	4.47	4.45	6.28	5.71	5.83
펜싱	20	M	15.10	14.25	12.50	15.05	13.15	13.85	16.55	15.85
		P	61	69	56	60	83	62	54	65
		S D	4.96	6.68	6.52	7.64	5.60	3.89	6.84	4.57
종합	74	M	14.47	13.39	12.54	14.22	12.39	13.74	15.64	15.15
		P	54	63	56	54	76	61	48	62
		S D	4.78	6.09	6.52	6.97	5.41	5.26	5.76	5.67

IV. 結果解釋 및 比較

1. 남자 태권도·유도·펜싱 선수의 性格特性 및 比較

남자 태권도·유도·펜싱 선수의 性格特性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성격검사 성적과 의의도검증 결과를 표 4에 기재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권도 선수는 모든 성격요인이 50%이하로 全般의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男性性은 23%로 極下의 문제성격으로 常반적인 감상이 많고 敏感한 影響性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跆拳道選手를 지도하는 교사나 Coach 는 이를 참작하고 訓練 및 指導方法을 모색하여 指導해야 할 것으로 思料되며 선수들의 문제성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성격교정에도 努力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柔道選手는 全 性格要因이 28%~63%로 問題의 性格은 없었지만 男性性만 28%로 매우 낮고 客觀성과 社會性이 약간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태권도 선수와 Fencing 선수보다 生活一般에서 든든한 自信과 樂觀을 가지고 正서적으로 安定되어 있고, 協同적이고 社會活動을 즐기는 社會性이 높았으며, 바람직한 성격특성으로 나타났다.

Fencing 선수는 남향성을 제외한 모든 性格要因이 37%~60%로 매우 바람직한 성격으로 여겨지지만 男性性은 26%로 매우 낮아 女性的인 성격으로 나타났으며, 태권도선수나 유도선수보다 沉着하고 寡言적, 내성적이어서 Fencing 선수의 독특한 성격특성을 알 수 있다.

以上과 같이 태권도·유도·Fencing 선수의 共通

의인 性格特性은 매우 女向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一般의으로 추론하는 것과는 正반대의 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팔목할만 하며, 태권도· 유도· 펜싱 선수의 성격차의 신뢰도검증에서 태권도선수는 유도선수와 안정성에서 $t = -2.42 (p < 0.02)$, 사

회성에서 $t = -26 (p < 0.02)$ 로, Fencing 선수와는 사려성에서 $t = -2.09 (p < 0.05)$ 로 의의있다. 그리고 유도선수와 펜싱선수는 안정성에서 $t = 2.44 (p < 0.027)$, 사회성에서 $t = 2.13 (0.05)$ 로 의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자 태권도· 유도· Fencing 선수의 성격비교

종목	인원	요인	A	D	E	I	M	O	R	S
		구분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남향성	객관성	사려성	사회성
태권도	28	M	13.64	13.54	11.71	13.79	12.96	11.57	12.64	12.00
		P	48	50	40	43	23	42	39	36
		S D	5.36	5.02	5.01	5.18	5.32	4.59	5.89	5.29
유도	29	M	14.34	14.28	15.41	15.66	13.66	14.17	13.10	15.83
		P	53	56	59	56	56	28	43	63
		S D	3.94	4.25	7.25	5.52	4.77	5.32	4.69	6.04
t			-0.53	-0.56	-2.42	-1.31	-0.50	-1.89	-0.32	-2.61

태권도	28	M	13.64	13.54	11.71	13.79	12.96	11.57	12.64	12.00
		P	48	50	40	43	23	42	39	36
		S D	5.36	5.02	5.01	5.18	5.32	4.59	5.89	5.29
펜싱	16	M	14.25	13.63	11.44	12.81	13.25	12.81	15.94	12.63
		P	53	51	40	37	26	50	60	41
		S D	3.61	4.92	4.96	4.32	2.84	3.47	5.24	4.34
t			-0.44	-0.06	0.18	0.67	-0.22	-0.93	-2.94	-0.43

유도		M	14.34	14.28	15.41	15.66	13.66	14.17	13.10	15.83
	29	P	53	56	59	56	28	62	43	63
펜싱		S D	3.94	4.25	7.25	5.52	4.77	5.32	4.69	6.04
	16	M	14.25	13.63	11.44	12.81	13.25	12.81	15.94	12.63
		P	53	51	40	37	26	50	60	41
		S D	3.61	4.92	4.96	4.32	2.84	3.47	5.24	4.34
t			0.07	0.45	2.44	1.96	0.32	0.99	—1.90	2.13

2. 여자 태권도· 유도· 펜싱 선수의 性格特性 및 比較

여자 태권도· 유도· 펜싱 선수의 性格特性을 把握하고 比較하기 위하여 성격검사 성적과 意義度檢證結果를 표 5에 기재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권도선수는 지배성, 충동성, 남향성이 극히 높는데 비하여 安定性이 낮아서 매우 문제있는 性格으로 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려 훈련 및 指導方案을 모색하고 성격교정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태권도선수는 유도선수에 비하여 安定性, 客觀性이 낮고 나머지 모든 要因이 높았으며, Fencing 선수 보다는 충동성, 남향성이 높고 불안정하며 주장적인 성격으로 나타났다.

유도선수는 情緒의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제력이 강하여 충동성이 낮고 自我中心의이지만 사색적, 심

미적인 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encing 선수보다 안정성, 객관성이 다소 높은 반면에 나머지 모든 要因에서는 열세를 보이고 있다.

Fencing 선수는 모든 性格要因이 54% 이상으로 全般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배성, 남향성,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향성은 83%로 극히 높은 문제성격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태권도·유도·Fencing 선수의 共通적인 성격은 지배성이 강하고 남향적이며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남자

선수는 여향적인데 반하여 여자선수가 男向의인 점은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태권도·유도·Fencing 선수의 성격차의 信賴度 檢證에서 태권도선수는 유도선수와 객관성에서 $t = -2.20 (p < 0.05)$ 로 의의있고 충동성에서 $t = 4.54 (p < 0.001)$ 로, 남향성에서 $t = 3.20 (p < 0.005)$ 로 매우 의의있으며, 펜싱선수와는 별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柔道選手와 펜싱선수는 남향성에서 $t = 2.32 (p < 0.05)$ 로 의의있고, 충동성에서 $t = -2.79 (p < 0.01)$ 로 매우 의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자 태권도·유도·Fencing 선수의 성격비교

종목	인원	요인	A	D	E	I	M	O	R	S
		구분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남향성	객관성	사려성	사회성
태권도	27	M	15.22	14.56	11.04	17.26	14.48	12.11	16.33	15.04
		P	62	70	45	74	89	49	53	61
		S D	4.92	6.20	6.02	6.75	5.04	4.47	4.54	6.17
유도	27	M	13.22	11.63	14.07	10.52	9.74	15.30	14.26	14.74
		P	46	51	65	30	54	72	40	58
		S D	4.27	5.06	6.66	4.47	4.45	6.28	5.71	5.83
t			1.49	1.97	-1.92	4.54	3.20	-2.20	1.46	0.20

태권도	27	M	15.22	14.56	11.04	17.26	14.48	12.11	16.33	15.04
		P	62	70	45	74	89	49	53	61
		S D	4.92	6.20	6.02	6.75	5.04	4.47	4.54	6.17
펜싱	20	M	15.10	14.25	12.50	15.05	13.15	13.85	16.55	15.85
		P	61	69	56	60	83	62	54	65
		S D	4.96	6.68	6.52	7.64	5.60	3.89	6.84	4.57
t			0.08	0.19	-0.89	1.26	0.88	-1.31	-0.14	-0.54

유도	20	M	13.22	11.63	14.07	10.52	9.74	15.30	14.26	14.74
		P	46	51	65	30	54	72	40	58
		S D	4.27	5.06	6.66	4.47	4.45	6.28	5.71	5.83
펜싱	20	M	15.10	14.25	12.50	15.05	13.15	13.85	16.55	15.85
		P	61	69	56	60	83	62	54	65
		S D	4.96	6.68	6.52	7.64	5.60	3.89	6.84	4.57
t			-1.34	-1.65	0.93	-2.79	-2.32	0.99	-1.40	-0.75

3. 運動選手와 一般學生과의 性格比較

가. 남자선수과 일반학생과의 성격비교

남자 운동선수 73명과 일반학생 115명의¹⁵⁾ 性格檢査成績을 표 6에 기재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선수는 一般學生에 비해 活動的, 主動的이고 責任感이 강하나 自제성이

적어 충동적이고, 안정성이 낮고 女向的이며 理論的, 思索的, 審美的 面에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客觀性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향성이 26%로 一般的으로 추론되는 것과는 달리 매우 女向的인 점은 괄목할만 하다.

표 6. 남자운동선수와 일반학생과의 성격비교

종별	요인		A	D	E	I	M	O	R	S
	인원	구분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남향성	객관성	사려성	사회성
운동선수	73	M	14.05	13.85	13.12	14.32	13.30	12.87	13.55	13.66
		P	52	52	46	48	26	50	46	50
		S D	4.49	4.72	6.27	5.28	4.66	4.83	5.45	5.70
일반학생	115	M	12.51	12.52	15.60	12.21	16.28	15.20	17.70	14.36
		P	41	41	60	33	50	68	69	55
		S D	5.53	5.88	6.17	5.56	4.42	4.72	5.35	6.34
C R			2.09	1.70	-2.64	2.60	-4.33	-3.23	-5.10	-0.78

A. Sperling은 그의 研究에서 운동선수는 非운동선수에 비하여 外向的, 支配性이 강하며 反面에 進歩的, 理論的, 審美的인 면에서 劣等하다고 하였다. 또한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도 對外 試合와 出戰經驗이 많을수록 外向的, 支配性이 더욱 강해지는 傾向을 보인다고 하여 Sports 經驗의 多少에 다른 性格特性의 상이성을 지적하였다.¹⁶⁾

野口는 非九州地方의 대학생 528명의 남자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比較 研究하였던바 운동선수는 一般學生에 비하여 泰然性, 活動性, 社會性, 指導性, 男向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으며 劣等感이 적어 신경질이 적으며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었다.¹⁷⁾

A. Sperling의 研究는 本 研究者의 研究結果와 거의 일치하지만 野口의 研究는 泰然性, 男向性에서 매우 상치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運動選手群의 差, 즉 흥미와 취미로 Sports 活動을 하는 選手群과 專門的으로 Sports 活動을 하는 選手群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國家間的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生活水準에 따른 運動條件과 環境

으로 말미암은 영향도 있으리라 본다. 특히 Sports 形式(個人경기, 對人경기, 團體경기)에 따른 운동선수들의 차도 매우 클것으로 본다.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성격차의 信賴度檢證結果를 보면 활동성에서 CR=2.09($p<0.05$)로, 안정성에서 CR=-2.64($p<0.01$)로, 충동성에서 CR=2.60($p<0.01$)로, 남향성에서 CR=-4.33($p<0.001$)로, 객관성에서 CR=-3.23($p<0.005$)로, 사회성에서 CR=-5.10($p<0.001$)로 매우 의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女子選手와 一般學生과의 性格比較

여자 운동선수 74명과 일반학생 82명의 성격검사성적을 표 7에 기재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선수는 一般學生에 비하여 活動的이고 指導性, 男向性이 높고 協同的이지만 자제력이 적어 충동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男向性이 77%로 극상의 문제성격으로 나타났다. 이는 男子選手가 매우 女向的인데 반하여 女子選手는 매우 男向的이어서 극히 대조적인 점이 괄목할만 하다.

15) 아주공과대학생의 성격검사성적, 코리아 테스트센터 자료실(1978)

16) Sperling, A.,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djustment and achievement in physical education activities"

Research quarterly, 13 (1942)

17) 野口義之, "運動選手의 性格特性に, フムいの 研究", 體育學研究, 2卷 (1957)

표 7. 여자운동선수와 일반학생과의 성격비교

종목	요인		A	D	E	I	M	O	R	S
	인원	구분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남향성	객관성	사려성	사회성
운동선수	74	M	14.47	13.39	12.54	14.22	12.39	13.74	15.64	15.15
		P	54	63	56	54	76	61	48	62
		S D	4.78	6.09	6.52	6.97	5.41	5.26	5.76	5.67
일반학생	82	M	12.81	12.13	12.76	13.16	10.90	14.10	16.06	14.68
		P	42	55	57	47	65	65	51	58
		S D	5.83	6.17	5.89	5.41	4.82	4.77	6.42	5.73
C R			1.93	1.27	-0.22	1.06	-0.44	-0.43	-0.43	0.51

E. G. Booth는 Sports 유형별로 본 研究結果, Sports 유형에 따라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고 하였으나 全體의 共通되는 特性으로서 불안경향이 적고 지배성이 높다고 하였다.¹⁸⁾ 또 圓羽는 近畿地方의 男女大學運動選手 904명과 非운동선수 221명을 대상으로 광범한 연구를 하였던 바, 운동선수의 성격특성은 地域, 運動種目, Sports集團의 성질, 集團內의 位置, 役割 및 個人性格에 따라

상이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여자선수는 外向性, 攻撃性, 活動性이 있음은 물론 신경질경향이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¹⁹⁾ E. G. Booth와 圓羽의 연구결과를 본 研究者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성격차의 신뢰도검증에서는 男性性에서 CR = 2.37 ($p < 0.02$)로 유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結 論

태권도·유도·펜싱선수의 성격특성을 알아 보고자 국가대표급 男女選手 147명(남자 73명, 여자 74명)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實施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남자 운동선수의 성격특성

가. 태권도선수는 全 性格要因이 50%이하로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중 支配性이 50%로 가장 높고 男向性이 23%로 극하의 문제성격으로 나타났다.

나. 유도선수는 社會性이 63%로 가장 높고 男向性이 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Fencing 선수는 思慮性이 60%로 가장 높고 男向性이 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태권도·유도·펜싱선수의 共通의인 성격특성은 比較的 활동성, 지배성이 높은 반면에 일반적으

로 추론되는 것과는 달리 男向性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運動選手는 一般學生에 비해 活動的이고 主動力, 責任感이 강하나 자제성이 적어 충동적이고 理論的, 思索的, 審美的인 면이 劣等하며 客觀성이 낮은 性格特性으로 나타났다.

2. 여자 운동선수의 성격특성

가. 태권도선수는 男向性이 89%로 極上의 문제성격으로 나타났으며 安定性이 45%로 낮았다.

나. 유도선수는 客觀性이 72%로 가장 높고 충동성이 3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Fencing 선수는 全 性格要因이 54% 이상으로 全般的으로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男向性이 83%로 극상의 문제성격으로 나타났으며 思慮性이 54%로

18) Booth, E. G., "personality traits of athletes," Master's thesis, Univ. of California (1947)

19) 圓羽 照, "體育に ちける パスナリテイ 研究の 動向," 體育學研究, 6 卷, 1961.

가장 낮았다.

라. 태권도·유도·펜싱선수의 共通의인 性格特性은 비교적 支配的, 社會性, 男向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運動選手는 一般學生에 比하여 活動的이고 指導性, 男向性이 높으며 協同的이지만 衝動的인 性格特性으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 1) 김대식, 박철빈, 基礎體育統計, 서울:보신문화사, 1974.
- 2) 김덕선, 체육심리학, 서울:형성출판사, 1979.
- 3) 김정래, "대인경기선수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체육학 논문집, 제 7집,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1979.
- 4) 김정래, "Sports 類型別 運動選手의 性格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5) 김지환, 李圭東, "스포츠맨의 인성 검사표 준화," 스포츠과학연구보고서, 통권 7호, 1970.
- 6) 문교부, 체육심리, 체육교육자료총서(3), 서울:서울신문사 출판국, 1973.
- 7) 박승규, "운동선수의 성격에 관한 연구," 교수승진논문,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1966.
- 8) 박영균외 2인, "아이스하키선수의 體格 및 性格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연구보고서, 통권 9호, 1972.
- 9) 신용일, "스포츠行動과 性格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연구보고서, 통권 11호, 1974.
- 10) 이형만, 박철빈, "유도선수의 체격, 체력, 기술 및 性格特性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연구보고서, 통권 13호, 1976.
- 11) 이진숙, 인성검사, 서울:단국대학교부설 한국교육심리연구소, 1977.
- 12) 유재봉, 교육심리학, 서울:재동문화사, 1977.
- 13) 윤남식, "한국유수선수의 성격진단연구" 스포츠과학연구보고서, 통권 5호 1969.
- 14) 정보모, 인성검사방법요강, 코리아테스팅센터, 1965.
- 15) 정인석, 청년심리학, 서울:재동문화사, 1975.
- 16) 野口義之, "運動選手의 性格特性に ついへの 研究," 體育學研究, 2卷, 1957.
- 17) 圓羽 照, "體育に ちけそ パスナリテイ 研究の 動向," 體育學研究, 6卷, 1961.
- 18) Allport, G. W., personality : Henry Holt Co., 1937.
- 19) Booth, E. G., "personality traits," Master's thesis, Univ. of California, 1947.
- 20) Berne euter, R. G., "Validity of the person lity inventory," personal J., 11, 1933.
- 21) Guilford, J. p., "An inventory of factors STDCR," Beverly Hills, California : sheridan supply Co., 1942.
- 22) Guilford, J. p., Zimmerman, W. S., "The Guilford - Zimmerman aptitude Survey," Bever/y HillS, California : Sheridan suppl Co., 1947.
- 23) Humm, D. G., Wa adworth, G. W., "The Humm - Wadworth Temperament Scale," Amer. psghics J., 92, 1935.
- 24) Hathaway, S. R., Meehl, P. E.,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In military Clinical psychology, Washington : GPO, 1951.
- 25) Jung, C. G., psyschological types, New ork : Harcourt & Brace, 1923.
- 26) Kretschmer, E., physisjue and Character, New York : Harcourt & Brace, 1926.
- 27) Sperling, A.,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djudgement in physical education activities" Research fuarterly, 13, 1942.

ABSTRACT

A study on the personality diagnosis of Tae Kwon Do, Ju Do and Fencing national representative athletes.

Kyung Hee University prof. Kim Jin Ho Korea Air Force Academy Instructor KimJeong Rae.

The present study explored personality traits of 147 Jae Kwon Do, Ju Do and Fencing national representative athletes (73 males and 74 femal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Personality traits of male athletes

(1) Tae Kwon Do athletes showed that all personality factors distributed below 50 per cent. Among personality factors, dominance was the highest as 50 per cent, and masculinity, the extremely lowest as 23 per cent, indicated problematic personality.

(2) Ju Do athletes showed that sociability was the highest as 63 per cent and masculinity was the lowest as 28 per cent.

(3) Fencing athletes showed that reflectiveness was the highest as 60 per cent and masculinity the lowest as 26 per cent.

(4) The common personality traits of Tae Kwon Do, Ju Do and Fencing athletes showed that general activity and dominance was relatively higher but opposed to general reas-

oning, masculinity was very low.

(5) The results showed that athletes general activity, initiality and sense of responsibility were higher than general students' while they were impulsive caused by lower self-control and their personality traits were lacking in theoretical, speculative and ethic aspects.

2. Personality traits of female athletes.

(1) Tae Kwon Do showed that masculinity, the extremely highest as 89 per cent, indicatibility was the lowest as 45 per cent.

(2) Ju Do athletes showed that objectiveness was highest as 72 per cent and impulsiveness was the lowest as 30 per cent.

(3) All personality traits of Fencing athletes were relatively higher as distributed above 54 per cent. Among them masculinity, the extremely highest as 83 per cent, indicated problematic personality, and reflectiveness was the lowest as 54 per cent.

(4) The common personality traits of Tae Kwon Do, Ju Do and Fencing athletes showed that dominance, sociability and masculinity were relatively higher.

(5) Athletes' general activity, leadership, masculinity and cooperativeness were higher than general students' but they were relatively more impulsive.

“태권도 편집”은 여러분과 함께

각 시도협회(연맹)의 소식

각종경기, 새로운 인사(임원),

학교 국립대 민간대 민간대 민간대 체육관 (지방에서 특색있는) 소식

태권도를 교기로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관련자료(연혁, 내용, 사진등)을 보내주시면
학교의 명예를 빛낼 수 있습니다.

독자의 란 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태권도에 관한 건의, 제안, 고발, 태권도지에 대한 요구등.

독자의 란 ② 「소설」, 「수필」, 「연구논문」

내용이 공감이 가는것으로 수련기, 지도기, 숨은 미담, 성공사례 등.

독자 사진 콘테스트

태권도와 관련된 좋은 사진(경기장면, 묘기, 격파 등)

○보낼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번지 체육회관 704호 태권도 홍보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교료와 책을 우송해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연락전화번호
도 명기하여 주십시오.



白 鴻

- 1984년 가을호 -

I. 휘어진 청송(靑松)

삼청공원으로 오르는 오르막 길옆에는 8月初에도 코스모스가 망울져 있었다.

혼사(婚事) 말이 오가는 집안 어른들의 번잡과 두 사람의 등떨어져 있었다.

둘은 흡사 오누이나 친구들 처럼만 보였다. 현옥은 국민학교 시절에 멀리 경북에서 전학온 여자애를 좋아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삼청동의 언덕길로 상미를 이끌었다.

「이름이 노아였었는데 지금도 그아이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 현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첫사랑이었군요?」 상미는 그녀가 항상 그랬듯이 입가에 웃음이라도 피어오를 것 같이 말했다.

「내가 애지중지하던 강아지를 그애가 갖겠다고 했었지, 아마…」

현옥이 같이 과외공부를 하던 「그룹」에 그애 노아는 새로이 끼이게 되었다.

말이 별로 없었던 노아는 현옥의 어린 눈에도 감동을 줄 만큼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쑥맥인 현옥은 그저 공부나 잘하는 것으로 계집아이들의 관심을 끌 뿐이었다. 그리고, 착하고 큰 눈망울을 가진 평범한 모범생이었다.

하루는 현옥이 과외선생님께 드린다고 갓 젖을 땀 강아지를 한마리 가져갔다. 말이 통 없었던 노아가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을 조르는 것이었다.

결국 강아지는 노아가 차지했다.

현옥은 내심 즐거웠다. 그러나 둘 사이가 강아지로 인해 가까워 지자 남자아이들이 현옥을 놀렸다. 현옥이 강아지 한마리로 노아와 친해졌다고 빈정댔다. 결국 현옥은 비오는 날, 진흙을 묻쳐 노아의 노란색 치마에 던져 울리고서야 남자아이들의 빈정거림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노아는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과외공부에는 나오지 않았다.

현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흘을 빠진 노아가 행색한 얼굴로 어머니와 함께 과외선생님을 찾아왔다.

현옥의 진흙 세례를 받은 날, 우산도 안 쓴 채로 집에 돌아와 감기로 누워 사흘이나 결석했다면서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옥은 노아의 어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네가 강아지를 주었다지? 사이좋게 지내어 참으로 고맙구나!」라는 말을 듣고는 눈물이 뿜 돌았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이런 저런 말쑤를 드리면서 현옥은 알 수 없는 눈물을 마구 흘렸다.

아버지 리건호씨는 현옥을 불러 앉혀곤 따끔히 타일렀다.

「남자는 남들이 무어라 하던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은 꾀꾀이 해야만 한다」 「약한 여자아이를 친절히 대해 주어야 존경을 받는 남자가 될 수 있다」

「네가 어려서부터 무도를 배워온 것은 스스로 예의를 잘 지키고 약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되겠다 한 것이 아니냐?」

현옥은 아버지께 종아리를 매설게 맞으면서도 부끄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도 못했다.

현옥은 이튿날 과외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전부가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노아에게 사과했다.

「못난 짓을 했는데 용서해라! 다시는 비겁한 짓을 안할게!」

현옥은 노아를 집으로 초대했다. 강아지를 안은 노아를 현옥의 집에 있는 어미개가 제일 반겼다.

현옥은 상미와 감사원 뒷길로 접어들면서 노아와의 얘기를 끝냈다.

상미는 「지금도 종아리 맞은 자육이 따끔 하겠는데요?」하면서 맑게 미소졌다.

현옥은 아버지 리건호씨의 「푸른 숲(靑松)이 비록 꽃꽂이 자라지는 않아도 그 푸른 빛이 바래지는 않는 것처럼 사람도 人生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듭하지만 인간으로서의 향기와 빛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상미는 「잘 알았습니다. 리현옥사범님!」라고 거수경례를 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현옥의 학창시절 농구화 자국이 얼룩졌던 삼청동 뒷산에 새로 뚫린 길로 접어들었다. 서울의 야경이 남산의 긴 잔등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상미는 「현옥씨 같은 남자와 평생을 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낄지 모르겠어요!」라고 자조했다.

옥류정(玉流亭)에서 현옥은 수주 변영로 시인이 벌거벗은 채로 소(牛) 등에 올라타고 종로까지 행진한 이야기를 했다.

비록 술기운이 빛어낸 치기였지만 그들은 탈속(脫俗)하는 기개로 세태(世態)를 비웃었던게 아니냐고 상미가 되물었다.

「요즘같이서는 마이크를 뿜아들고 어느 산정이라도 올라 소리치고 싶은 때가 많아요!」 상미는 무언가 답답한게 많은 것 같았다. 현옥은 「나도 한 때는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갈대 숲에서 외치고 싶은 때가 있었지 하지만, 이제 수정같이 투명한 어린이들의 눈망울에서 나는 꿈을 되찾은 것 같아」

현옥은 그가 지켜 보았던 4월의 캠퍼스에서 나뭇그런진 야스퍼스의 실존과 목이 잘려나간 숭병에서 풍기는 축제의 비릿한 내음, 우정(友情)의 등뒤에서 섬뜩이던 배신(背信)의 칼날, 부하들과의 땀으로 용해된 군복의 교감과 여인의 향기에서 싹트는 배금(拜金)의 발아를 되새겼다.

그의 이십대(二十代)는 스러져가는 별동의 마멸처럼 덧없지만 느껴졌다.

상미는 별빛에 실루엣으로 보이는 현옥의 옆모습에서 묻어 나올 것만 같은 고독을 읽었다. 한밤중에 문득 눈을 뜨고 상념 속에 빠져든 또 하나의 자기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현옥은 상미의 머리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이십대의 신화(神話)는 전설로 남아서 우리 아들·딸들에게 들려줄 옛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거야」

현옥은 회한에 찬 이십대의 고뇌와 갖은 시행착오 속에서 상미를 버려자로 택한 것이 전설의 끝이라고 예견(豫見)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광복절 다음 주말에 뜻밖의 하객(賀客)들이 운집한 가운데 건호도장에서 치루어졌다.

산동네의 학부형들이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거의 다 결혼식에 왔다.

추렴해서 선물한 것은 오지 김치독과 하얀 금화조 한쌍이 들어있는 조롱이였다. 호남에서 상경해서 제법 살타가 생긴 기욱이 엄마는 「전에 사범님이 가정방문 오셨는데 어찌나 김치에 맨 밥을 잘드시는지 그만 눈물이 막 납디여!」하고 머리에 인 김치독을 내려 놓았다.

상미의 드레스차림은 하객들에게 좋은 구경거리였다. 양쪽에 도열한 어린 수련생의 빨강고 까만 도복차림 사이로 순백의 온꽃이 날리는 것만 같았다.

현옥은 난생 처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디에선가 상미가 영송하던 「배나무」의 쇠귀가 들리는 듯 했다. 「자주빛 화심(花心)을 여는 새생활의 첫걸음을, 두사람은 서툴지만 지극한 존경과 사랑으로 수련생들이 오려붙인 색종이 세레 속에서 내딛었다. 그런 두사람을 바라보는 현옥의 친구들과 선배들은 현옥이 순수함을 언제까지라도 지켜나가길 기원했다.

상미의 친구들은 상미의 신혼살림이 도장의 한귀퉁이에 꾸며 놓은 방한칸 부엌방간의 궁벽한 것이란 얘기를 듣고는 입을 비죽거렸다.

더우기 신혼여행을 안간다는 상미의 말에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상미는 친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밝은 표정으로 축하객들에게 답례하고만 있었다.

다음날 새벽 약수터에서 두사람은 관악의 청정한 아침햇살을 받으면서 운명의 축복에 감사했다.

현옥의 서재겸 침실을 개조해 아늑한 도배까지 해놓은 그들의 신방은 동창으로 언제나 관악의 운자가 바라보였다.

두사람의 새벽 산책은 산동네 이웃들의 다정한 애기거리가 되었다.



II. 심사(審査) 유감(有感)

전호도장이 개관한지 일년 남짓하야 입단·품심사에 응심하는 수련생들이 많아졌다.

국기원의 심사장에서 현옥은 많은 것을 느꼈다. 승단심사에서 멋드러진 묘기를 보여 선배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한성여고체육관이 떠올랐다. 또, 영동의 별판에서 멀리 한강을 굽어보는 역삼동 구룡위에 청기와로 지은 웅장한 국기원을 바라보면서 태권도인의 긍지를 새롭게 하던 일과 경기장으로써 세계대회가 열려 세인들의 주목거리가 되던 것, 또 지도자교육에서 사귀었던 동료사범들이 떠올랐다.

현옥의 입문기(入門期), 당시에는 꼬마들이 거의 없었고 거의가 고등학교 이상 된 학생부나 성인부만 있었다.

그러나 십여년이 지난 지금, 국기원 심사장을 찾는 수련자들이 대부분 국민학생과 유치부 꼬마들이었다.

심사장에서 한식은 정말 잘했다. 현옥은 자기 문하생이 열렬한 관객의 박수 속에서 심사관이 따로 불러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어느 사범님 제자나?」고 묻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전호도장은 실력면에서나 예절바른 자세에서나 국기원의 심사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것은 사범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 하는 객관적 평가의 기회였다.

현옥은 지도자교육의 동기생인 안사범과 스탠드에서 심사과정을 지켜보았다.

안사범은 심사내용이 성인과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기술체계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는 대근육운동 위주로 발달시켜서 성인과는 심사내용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과거에 성인위주로 수련하던 전통에서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지도체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앞으로 승단심사와 승품심사 내용을 다르게 하고 채점기준도 전국의 사범들이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범마다 수련방식이나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르게 채점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심사장에서 현옥은 태권도 기술을 정립,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깊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옥이 R·O·T·C 후보생시절에 동료들을 지도할 때는 팔괘포세를 가르쳤었다. 그때만 해도 팔괘가 태극기의 까만 무늬에서 보는 그런 것들로만 알았었다. 그러나 팔괘는 고대 중국의 「복희」란 전설적 인물이 거북이 등의 무늬를 천지(天地)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여 응용했던 데서 비롯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되었다.

현옥은 사범이 될 때까지 태권도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뉴튼」의 운동법칙과 일치함을 알았으나 태권도의 수백수천의 동작이 뜻하는 의미와 역학(力學)적인 근거, 신체의 생리적 변화와 심리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물론 장구한 세월은 때로는 첨단과학이 못 미치는 초과학적(超科學的) 경험의 지혜를 인간에게 습득하게 한다. 그러나 최소한, 세계적 무도 스포츠로 뻗어나간 태권도 종주국의 이론체계가 그저 구전(口傳)되는 경험기술에 머물다면 앞날이 밝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현옥의 소년기에는 태권도 수련자가 한 동네에 서너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민학교 한 학급에 태권도

수련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서너টে 불과한 실정이라고 사범들이 말하지 않았는가?

군대에서든 정규훈련과정에 들어있어 바야흐로 태권도인의 대량생산 시대라고 어느 교수는 말했다. 이처럼 많은 태권도 인구의 양산(量産) 체계가 질적인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자연히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심사장의 진행과정에서도 고쳐야 할 점을 보았다.

도장에서의 심사에서 지켜지던 엄숙한 분위기는 간데 없고 산만한 분위기에서는 흡사 장터같은 소요가 자리잡고 있었다. 심사를 담당한 선배사범들도 언행에 품위가 결여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심사가 끝나고 단정히 인사하면서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는 어린들이 섞여 있었다. 아직도 잠시 휴식하는 휴화산 같은 잠재력이 태권도 안에서 숨쉬는 것을 현욱은 보았다.

무에 양주동 선생이 말한 찬기파랑가처럼 사표가 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현욱은 굳게 다짐했다.

그는 태권도가 공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시대변천에 이끌려가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예견하고 그에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내심으로 다짐했다.

심사장이 학부형들과 수련생들의 마음자락을 숙연히 가다듬게 하는 무형의 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사범들의 책임이라는 어느 선배의 지적에 현욱은 공감했다. 그 선배는 「국기원을 오락장으로 만들면 우리는 끝장이야./」라고 침통하게 말했다.

건호도장에서의 심사는 한층 엄격하게 진행했다.

20여년의 지리한 수업 끝에서야 비로소 자립할 수 있는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처럼 태권도의 위계를 한 계단씩 오르는 심사야말로 수련생이 스스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욱의 지론이었다.

현욱은 건호도장에서의 심사이외에도 동료 사범이나 선배의 도장에서 심사에 임하면 반드시 부모의 이름, 생일, 학교선생님의 이름이나 사범의 이름을 물었다. 또 그들의 청결상태나 인사하는 법에 대해서는 따듯이 일깨워 주었다. 그들이 숨쉬며 살 내일의 나라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德目)들이 심사장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야만 한다고 현욱은 학부형들에게 이해시켰다.

관악의 가을이 산등성이의 밤나무에 익어갈 때 쯤에는 현욱은 수련생들을 이끌고 야외수련을 했다.

어린 문하생들은 도토리나무와 해 묵은 칠팔콜이 어우러진 바위 위에서 현욱의 잊혀진 동요를 되찾아 주곤 했다. 건호도장은 상미의 그윽한 미소와 현욱의 의연하면서도 다감한 보살핌 위에 요요마다 달리 들려주는 음악이 하모니되어 곧 태어날 이세(二世)의 대중에 발육처럼 살찌었다.

현욱은 세상에 태어날 아가를 위해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었다.

아기가 자라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이 무언가 성장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승단심사에 응심했다. 7년여 만에 승단심사장에서 자기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질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새벽과 한 밤에 수련에 몰입했다. 눈문심사도 준비하면서 잠시 멀리했던 책 앞에서 어느듯 마음에 드리워진 이끼를 말끔히 닦아내었다.

고단자들의 심사장은 아직도 품격(品格)을 잃지 않고 있었다.

썩늘한 국기원의 수련장에서 울린 현욱의 기합은 관악을 헤쳐놓던 그의 몸사위와 어우러져 무도의 진중(眞重)한 현란함을 펼쳐내었다.

그의 글은 우수눈으로 뿜혀 잡지에 실렸다.

겸양이 몸에 밴 현욱을 선배들이 이끌어 주는 것은 어쩌면 사필귀정이었다.

태권도 연구실이 발족되자 현욱에게 출중한 이론가들 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베풀어 졌다.

현욱은 모자라는 체육이론을 배우기 위해 「코치 아카데미」과정에 등록했다.

그 강좌에서 평생 우의를 갖게되는 올림픽의 유도 입상자인 거구의 조선생을 만났다. 또 각 종목의 국가대표 코치들과 폭넓은 해후를 겪었다. 비로소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태권도의 위치와 객관적 평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욱은 태권도를 전공한 체육학 교수가 없음에 큰 실망을 맛보았다. 태능선수촌에서의 강의와 실습은 현욱의 태권도 이론과 실기 위에 체육학의 접목을 가능케 했다.

삼십년이라는 자기 생애에서 비로소 남을 가르친다는 방법에 겨우 눈뜨게 되었다고 현욱은 기뻐했다.



Ⅲ. 신념(信念)의 연(薦)

북서풍이 불어오면 산동네는 일찍부터 얼어 붙었다. 새끼줄에 매단 연탄을 날개로 사다 때는 집이 아직도 몇이나 남아있는 난민촌의 잔재는 나랏님도 굴흔은 어쩔 수 없다는 속담을 현대에 까지 잘도 이어주었다.

그래도 철없는 어린이들은 꿈을 날리며 배고픈 줄 몰라했다.

그들 어버이가 여름내 팔다 남긴 우산대를 굽혀 만든 연(薦)이 관악 너머에 있는 과천의 고층 아파트를 넘볼 만큼이나 높이 떠 양초새가 태양까지 나르려다 녹아버렸다는 전설을 상기시켰다.

겨우내 수련비를 못내게 되니 도장을 잠시 쉬게 해야겠다는 상범이 아빠가 다녀간 후 현옥은 우울했다.

상범이는 이다음에 사범이 되겠다는 당돌한 수련생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도장에 나와서는 혼자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에 맞춰 발차기를 하는 그런 아이였다.

아마도 상범이 뿐 아니라 겨울을 나는 동안에 구슬치기나 하면서 지낼 아이가 여럿될 거라고 상미는 말했다.

그녀는 겨울방학 중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무료강좌를 설치하자고 현옥을 설득했다.

현옥은 기꺼이 찬성했다.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을 꺾어서는 안돼./」 산동네 어버이들은 비록 그들이 헐벗은 가난 속에서 지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등이 휘어질 짐을 기꺼이 짊어진다는 것을 현옥은 잘 알고 있었다. 현옥 역시 아버지 리건 호씨가 치욕의 와중에서도 현옥이네 형제들을 위해 고군분투한 어린시절을 겪어 보았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이들이 비록 허기질 망정 남의 것에 탐욕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산동네 주민들은 묵묵히 감내하면서 보여주었다.

오히려 이 땅의 졸부(卒富)들이 그들의 게걸스러운 영혼의 「크레바스」에 매울 길 없는 물욕의 부스러기를 쏟아 붓는 것이 도심(盜心)에 가까운 것을 현옥은 경험해왔다.

현옥은 나중에 갇는다는 조건으로 겨울방학 중에 도장을 개방하여 가르쳤다.

상미는 방송국의 낡은 옷감을 헐값에 구입해서는 맑은 노래로 언 동심을 녹여 주었다.

아이들은 방학 속에도 도장에서 했다. 간혹, 식사시간에는 씨뿌릴게 잘 익은 토종무에 김이 무려무려나는 라면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

상미가 부인잡지의 원고료라도 탈 때는 고구마 파티가 벌어졌다.

간혹 찾아온 상미의 친구들은 그런 상미에게 어이없어 했다.

그들은 현옥이네를 좋아하는 했지만 결코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빈정대곤 했다.

상미의 친구중 하나는 「레지턴트」인 약혼자와 스키 여행을 떠난다며 즐거워 했다. 상미는 그런 친구를 향해 웃어 주지만 했다. 현옥은 친구들이 가버린 후 상미의 쓸쓸한 표정에 생활의 고달픔이 배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의 해맑은 연(薦)이 그들 가슴에 떠 있는 낮 동안,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았지만 두사람만의 호젓한 가슴끼리 마주 앉으면 비애의 선율이 창가의 한풍(寒風)에 실려 들렸다.

현옥은 일요일 오후에 상미와 함께 모처럼 충무로의 거리로 나왔다.

결혼 이후 처음 찾은 「필, 하모니」는 양탄자가 바뀌어져 있었다.

「D.J」가 모처럼 찾아준 아름다운 「커플」을 위한 곡이라며 「커피의 성문」을 들려 주었다.

그들은 「챌리다비케」의 런던 교향악단이 연주하던 장면을 곱씹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상미는 이제 방송국의 인기 「아나」가 아닌 현옥만의 여인이었다.

오랜만의 외식중에 상미의 식욕이 왕성한 것에서 현옥은 아빠가 될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현옥은 거리의 장난꾼이 닦이는 미끄럼 길에서 상미를 앉혀곤 끌어 주었다.

그들의 스키장은 훈훈했다.

「코치, 아카데미」에서 현옥은 「울·에이」의 좋은 성격으로 대한체육회장상을 받았다.

그를 아끼는 선배들은 현옥을 체육회에서 일하도록 권유했다.

하지만 현옥은 관악에 띄어 놓은 그의 연(薦)을 놓을 수가 없었다.

상미는 「여기는 저와 도련님에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라고 권했다.

현옥의 연은 동심과 북서풍에 한껏 팽팽해 있었다.

그리고 저녁마다, 곡조를 알 수 없는 선율은 작은 그들의 창가에 와 가늘게 울리곤 했다.

국기원에 오신 손님들

Visits to Dr. Kim
WTF President
at Kuk Ki Won



베네주엘라 IOC 위원에게 명예회원증 수여
Mme Flor Isava Fonseca IOC Member from Venezuela
(Aug. 21,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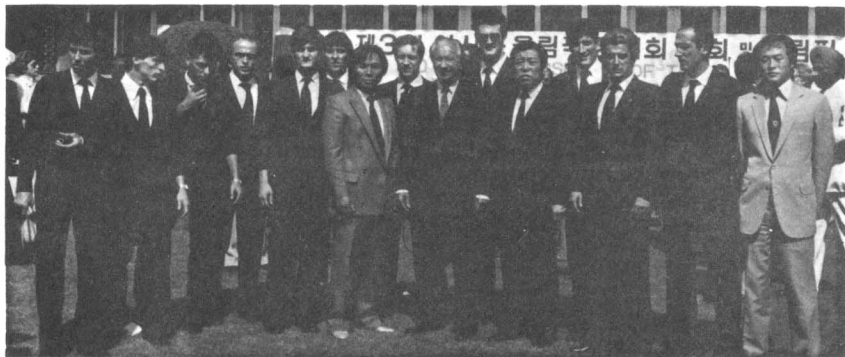
세네갈 내무부장관에게 명예회원증 수여
H. E. Ibrahima Wone Minister Home Affairs from Senegal
(Sep. 11, 1984)



인도네시아 주지사에게 김회장을 대신하여
배충장 (세계연맹) 이 명예 회원증과 배지
를 달아주고 있다.



Dr. Soebagio Chief Assistant for Presidential economic Dept.
(Sep. 6, 1984)



체육부장관 오찬에 참석한 스페인 국가대표 태권도 팀과 I. O. C. 사마란치 위원장, 김운용 협회장과
여수일 사범(스페인 대표팀 사범)

Spanish national Taekwondo Team Poses with the IOC President,
H. E. Juan Antonio Samaranch and Dr. Kim, President WTF at
Shilla Hotel.

제15회 주한외국인 개인선수권 대회 (국기원)

The 15th Foreigner's TKD Championships (Kuk Ki Won)



김운용 회장의 시상
Dr. Kim WTF President Presents Winners
Awards



개회식전의 준비운동
Exercising before games.



4연패를한 BOBBY CLAYTON의 경기모습
Sparring Techniques of Mr. Bobby Clayton, 4th
Times Medalest.



자랑스러운 각조 우승자들
the Winners of Semifinnals

'84 L. A 올림픽 소식

News from '84 L. A Olympics



국위를 선양한 영광의 얼굴들 (競技種目)

Medalest of L. A Olympics



금 하형주
유도
95kg이하



금 안병근
유도
71kg이하



금 유인택
레슬링
라이트 자유형



금 김원기
레슬링 (페더)
그레코로망형



금 신준섭
복싱
미들급



은 황정오
유도
65kg이하



은 김재엽
유도
60kg이하



은 김종규
레슬링
플라이트 자유형



은 안영수
복싱
웰터급



동 조웅철
유도
95kg이하



동 김영남
레슬링 (웰터)
그레코로망형



동 이정근
레슬링
페더 자유형



동 김의곤
레슬링
밴텀 자유형



동 방대두
레슬링 (플라이)
그레코로망형



동 손감도
레슬링
Jr, 플라이 자유형



동 전철성
복싱
라이트급

대표 선수단이여, 凱旋하라! /

(제6회 아시안태권도 선수권 대회)

Wishing of Victory Korea Teams
(For the 6th Asian T. K. D. Champion Ships)



성 명 : 김지태 (핀급)
생년월일 : 1966년 1월 14일
소 속 : 연세대 1년 재학



성 명 : 김준태 (플라이급)
생년월일 : 1966년 8월 15일
소 속 : 경희대



성 명 : 권기문 (밴텀급)
생년월일 : 1964년 4월 10일
소 속 : 한국체육대학 2년



성 명 : 장명삼 (페더급)
생년월일 : 1963년 5월 16일
소 속 : 경희대 2년

THE 6TH
ASIAN TAE KWON DO CHAMPIONSHIPS



MANILA '84



성 명 : 한재구 (라이트급)
생년월일 : 1962년 12월 20일
소 속 : 청주 청도체육관



성 명 : 이준명 (웰터급)
생년월일 : 1964년 3월 19일
소 속 : 한국체육대학 2년



성 명 : 장국현 (미들급)
생년월일 : 1962년 3월 15일
소 속 : 전남협회



성 명 : 박상식 (미들급)
생년월일 : 1964년 4월 28일
소 속 : 한국체육대학 2년



성 명 : 김종식 (헤비급)
생년월일 : 1963년 6월 30일
소 속 : 상무



성 명 : 고영철 (헤비급)
생년월일 : 1963년 9월 4일
소 속 : 유도대학 4년